

2020

정책연구 2020-24

전북 노인일자리 수요분석 및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연구진 이종섭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24

전북 노인일자리 수요분석 및 일자리 정책 방향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이 중 섭 | 연구위원 | 연구총괄, 1~4장, 6장 일부, 9~10장
공동연구송용호 | 전문연구원 | 5장, 6장 일부, 7~8장

자문위원 서양렬 | 금암노인복지관 관장
하갑주 | 덕진노인복지관 관장
이석규 | 김제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이정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실장

연구관리 코드 : 20JU2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1.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	7
2. 노후빈곤심화와 빈곤사각지대 확대	13
3. 높은 노인일자리 수요와 낮은 고용율	16
4. 신노인세대의 출현과 일자리패러다임의 변화	26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29
1. 연구방법	31
2. 연구절차	32
제4장.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동향 분석	33
1.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35
2. 노인일자리 정책현황 및 동향	39
제5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진단	61
1. 설문조사 개요	63
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64
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81
제6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사	95
1. 노인일자리 선발과정	97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98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지원정책	102

제7장.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 분석	105
제8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유형 분석	125
1. 공익활동사업의 유형분석	127
2.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유형분석	147
3. 시장형 사업의 유형분석	148
제9장.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159
1.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	161
2. 시장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164
3. 노인일자리 전문 교육훈련 기관 설치	167
4. 노인일자리 정책의 세부추진과제	169
제10장. 요약 및 결론	177
참고문헌	183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	7
〈표 2-2〉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8
〈표 2-3〉 전북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8
〈표 2-4〉 전라북도 고령인구 비율 추이	9
〈표 2-5〉 전라북도 노년부양비 추계	10
〈표 2-6〉 전라북도별 인구추계	11
〈표 2-7〉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12
〈표 2-8〉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3
〈표 2-9〉 지역별 노인소득 (단위 : 천원, %)	14
〈표 2-10〉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5
〈표 2-1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비율(추정)	16
〈표 2-12〉 취업노인 직종 추이	17
〈표 2-13〉 노인취업자 현황	17
〈표 2-14〉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19
〈표 2-15〉 연령별·사업별 취업분포	19
〈표 2-16〉 연령별 취업자 수	20
〈표 2-17〉 노인 경제활동 참여 현황	21
〈표 2-18〉 전라북도 연령별 고용율 추이	21
〈표 2-19〉 전라북도 고령인구 취업자 현황(천명)	22
〈표 2-20〉 전라북도 고령인구 취업자 현황(남자)	23
〈표 2-21〉 전라북도 고령인구 취업자 현황	24
〈표 2-2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지속적 참여욕구	25
〈표 2-23〉 취업자수 장기전망	26
〈표 2-24〉 노년세대별 특성	27
 〈표 3-1〉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방법	 31
 〈표 4-1〉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35

〈표 4-2〉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38
〈표 4-3〉 노인일자리사업 분류	39
〈표 4-4〉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및 사업내용	40
〈표 4-5〉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41
〈표 4-6〉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	42
〈표 4-7〉 노인일자리 일자리 창출 실적	43
〈표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44
〈표 4-9〉 노인일자리 정책 경향	46
〈표 4-10〉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요약	47
〈표 4-11〉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	48
〈표 4-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관별 참여현황	48
〈표 4-13〉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현황 (2020. 8월 기준)	48
〈표 4-14〉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9
〈표 4-15〉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추진내역(2019년)	50
〈표 4-16〉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51
〈표 4-17〉 사회서비스형의 사업유형	52
〈표 4-18〉 시장형 사업단 주요 사업 내용	52
〈표 4-19〉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53
〈표 4-20〉 시니어인턴십 추진실적	53
〈표 4-21〉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54
〈표 4-22〉 고령자친화기업 현황	55
〈표 4-2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	56
〈표 4-24〉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황	58
〈표 4-25〉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	58
〈표 4-26〉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59
〈표 4-27〉 전라북도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현황	60
 〈표 5-1〉 설문조사 개요	 63
〈표 5-2〉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	64
〈표 5-3〉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65
〈표 5-4〉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66

〈표 5-5〉 경제활동 참여 및 유형	67
〈표 5-6〉 경제활동 분야	68
〈표 5-7〉 근로형태	69
〈표 5-8〉 경제활동 시작시기 및 소득	70
〈표 5-9〉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71
〈표 5-10〉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72
〈표 5-11〉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73
〈표 5-12〉 향후 경제활동 계획	74
〈표 5-13〉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는 이유	75
〈표 5-14〉 적당한 일자리 있다면 일할 의향	76
〈표 5-15〉 하고 싶은 일의 분야	77
〈표 5-16〉 일을 하고 싶은 이유	78
〈표 5-17〉 하고 싶은 일의 형태, 희망급여, 근로시간	79
〈표 5-18〉 일을 하고 싶은 직장	80
〈표 5-19〉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응답자 특성	81
〈표 5-20〉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게 된 경로	82
〈표 5-2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83
〈표 5-2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달라진 점	84
〈표 5-23〉 노인일자리 사업 전 교육 여부	85
〈표 5-24〉 교육에 대한 만족도	86
〈표 5-25〉 교육에 대한 만족도	87
〈표 5-26〉 교육확대가 필요한 분야 및 교육의 필요성	88
〈표 5-27〉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1	89
〈표 5-28〉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2	90
〈표 5-2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3	91
〈표 5-30〉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4	92
〈표 5-31〉 노인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93
 〈표 6-1〉 기관별 응답 분포	 97
〈표 6-2〉 참여자 선발 시 중요 기준	97
〈표 6-3〉 사업유형별 적정연령	98

〈표 6-4〉 사업별 운영 관련 어려움	98
〈표 6-5〉 지자체, 타 수행기관의 협조 필요 영역	99
〈표 6-6〉 시장형 사업단 업무 비중	99
〈표 6-7〉 시장형 사업의 애로사항(중복응답)	100
〈표 6-8〉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기여하는 수준	100
〈표 6-9〉 사회서비스형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101
〈표 6-10〉 사업 유형 별 개선 및 지원사항	101
〈표 6-11〉 수행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조사(전체항목)	102
〈표 6-12〉 사업운영 및 컨설팅 지원 욕구	102
〈표 6-13〉 노인생산물 홍보 및 운영 지원 욕구	103
〈표 6-14〉 전문교육 및 성과향상 지원	103
〈표 7-1〉 지역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응답현황	107
〈표 7-2〉 지역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응답현황	108
〈표 7-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109
〈표 7-4〉 노인일자리 지원 이유 1순위	110
〈표 7-5〉 참여중인 노인일자리 근무 현황	111
〈표 7-6〉 참여중인 노인일자리 근무 현황	112
〈표 7-7〉 활동 중단 시 소득확보를 위한 노력	113
〈표 7-8〉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경험	114
〈표 7-9〉 교육내용	115
〈표 7-10〉 교육 개선점	116
〈표 7-11〉 노인일자리 활동 중 어려운 점	117
〈표 7-12〉 노인일자리 만족도	118
〈표 7-13〉 최근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여부	119
〈표 7-14〉 지난 1년간 가구 연소득	120
〈표 7-15〉 현재 재정상태 수준	121
〈표 7-16〉 사업신청 전과 후의 경제상태 비교	122
〈표 7-17〉 일에 대한 인식도	123
〈표 7-18〉 노인일자리 외 구직을 위한 노력	124

〈표 8-1〉 노노케어	127
〈표 8-2〉 장애인봉사	128
〈표 8-3〉 다문화가정 봉사	129
〈표 8-4〉 한부모가정 봉사	130
〈표 8-5〉 청소년선도 봉사	131
〈표 8-6〉 생활시설이용자 지원	132
〈표 8-7〉 학교급식지원봉사 및 CCTV 상시관제	133
〈표 8-8〉 스쿨존교통지원봉사	134
〈표 8-9〉 보육시설 봉사	135
〈표 8-10〉 도서관 봉사	136
〈표 8-11〉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137
〈표 8-12〉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138
〈표 8-13〉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139
〈표 8-14〉 주정차질서제도봉사	140
〈표 8-15〉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141
〈표 8-16〉 기타 미분류 공공시설봉사	142
〈표 8-17〉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143
〈표 8-18〉 문화공연 활동	144
〈표 8-19〉 체험활동 지원	145
〈표 8-20〉 경륜전수활동	146
〈표 8-21〉 사회서비스형	147
〈표 8-22〉 공동작업장 운영	148
〈표 8-23〉 식품제조 및 판매	149
〈표 8-24〉 공산품제작 및 판매	150
〈표 8-25〉 매장운영	151
〈표 8-26〉 지역영농	152
〈표 8-27〉 기타 제조판매사업	153
〈표 8-28〉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154
〈표 8-29〉 아파트·지하철택배 및 세차·세탁사업	155
〈표 8-30〉 소상공인 협력사업	156
〈표 8-31〉 기타 서비스제공형	157

〈표 9-1〉 노인특성별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162
〈표 9-2〉 전라북도 시장형 일자리사업단 생산품 현황	171



〈그림 2-1〉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추이	10
〈그림 2-2〉 전라북도 연령대별 빈곤인구 추이	15
〈그림 2-3〉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사각지대 규모	16
〈그림 2-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비율(추정)	16
〈그림 2-5〉 노인취업자의 직종별 현황 (2012년)	18
〈그림 2-6〉 노인취업자의 직종별 현황 (2019년)	18
〈그림 2-7〉 지역별 노인고용을 비교	21
〈그림 2-8〉 노인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비율	21
〈그림 2-9〉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별 취업자 추이	23
〈그림 2-10〉 전체-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수 비교	23
〈그림 2-11〉 지역별 성별 고령노인 취업자수 추이(2020년 1/2분기)	24
〈그림 2-12〉 지역별 성별 고령노인 취업자수 추이(2013년 1/2분기)	24
〈그림 2-13〉 연령별 인구와 신노년세대(1955-1963년) 추이	27
〈그림 4-1〉 노인일자리사업 목표량 및 예산 추이 (명, 억원)	44
〈그림 4-2〉 노인일자리 개수 추이	45
〈그림 4-3〉 노인일자리 예산추이	45
〈그림 4-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7
〈그림 4-5〉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59
〈그림 4-6〉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수	60
〈그림 9-1〉 노인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구조	161
〈그림 9-2〉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164
〈그림 9-3〉 노인일자리 정책의 추진주체별 과제	166
〈그림 9-4〉 노인일자리 통합형 지원체계(안)	167
〈그림 9-5〉 노인일자리 전문교육기관 운영체계(안)	168
〈그림 9-6〉 노인일자리 교육운영체계(안)	169
〈그림 9-7〉 지역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개발 및 연계방안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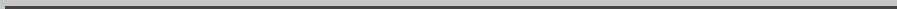
〈그림 9-8〉 노인생산물 복지생태계 구축(안)	172
〈그림 9-9〉 사회적 경제조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반 확대	173
〈그림 9-10〉 노인일자리 추진체계의 역할조정(안)	175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1장. 서론

고령노인의 증가는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기준 고령인구는 20.3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20년 37.1만명, 2030년 53.4만명 그리고 2040년에는 68.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로 인해 국가의 생산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뿐만 아니라 노인의 부양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세대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의 아동인구를 추월하고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 현재의 시점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의 새로운 인구대책 마련 필요하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노인 개인에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위협이 된다. 노인은 경제적 빈곤에 더하여 사회적 고독감과 단절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노인 2명 중 한명은 빈곤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이 같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노인빈곤율인 12.4%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월 20만원정도의 생활비만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고립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정소득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에는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충분치 않고, 지원되는 급여수준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매년 4만개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중 공공형 일자리로만 약 2.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이 지역사회와 단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고용율은 30%내외에 머물러 있고 향후에도 노인고용율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적합한 노인고용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노동생산성이 낮은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공공형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확장성이 높지 않다.

결국,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형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노인적합 일자리 개발 그리고 노인고용능력 신장 등의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주시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맞춰 지역의 노인을 어떻게 고용능력의 신장을 유인하여 지역의 노동시장에 유입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지역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시급하다.

2

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
 2. 노후빈곤심화와 빈곤사각지대 확대
 3. 높은 노인일자리 수요와 낮은 고용율
 4. 신노인세대의 출현과 일자리패러다임의 변화

제2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기준 고령인구는 20.3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전라북도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11.32%에서 2019년 20.31%로 약 8.99%p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폭은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인 7.7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는 2007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만에 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2019년 11월 기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지역은 전남, 경북 그리고 전남 등 세 개 지역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고령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고령화의 속도는 현재의 인구구조의 역진성을 고려하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
전체	7.70	8.07	8.49	8.86	9.30	9.87	10.23	10.58	10.90	11.24	11.74	12.22	12.70	13.15	13.53	14.21	14.76	15.42	7.72
서울	6.00	6.36	6.78	7.19	7.67	8.29	8.73	9.17	9.72	10.19	10.84	11.45	12.04	12.60	13.05	13.80	14.44	15.14	9.14
부산	6.83	7.27	7.80	8.32	8.92	9.63	10.20	10.78	11.26	11.77	12.50	13.25	13.98	14.65	15.32	16.29	17.14	18.07	11.24
대구	6.56	6.92	7.38	7.78	8.26	8.86	9.33	9.73	10.04	10.37	10.94	11.56	12.17	12.71	13.24	14.04	14.74	15.48	8.92
인천	5.93	6.25	6.57	6.87	7.24	7.69	8.02	8.33	8.62	8.94	9.39	9.81	10.26	10.69	11.02	11.70	12.27	12.94	7.01
광주	6.09	6.41	6.75	7.09	7.52	8.05	8.33	8.66	8.97	9.32	9.85	10.31	10.83	11.30	11.75	12.36	12.83	13.35	7.26
대전	5.97	6.26	6.59	6.86	7.21	7.72	8.05	8.39	8.66	8.96	9.38	9.83	10.34	10.90	11.33	12.03	12.65	13.40	7.43
울산	4.45	4.71	5.03	5.31	5.62	6.02	6.29	6.57	6.82	7.09	7.47	7.91	8.34	8.79	9.28	10.01	10.72	11.47	7.02
세종	-	-	-	-	-	-	-	-	-	-	15.22	14.70	12.67	10.62	9.96	9.59	9.29	9.37	-5.85
경기	6.19	6.48	6.79	7.06	7.40	7.84	8.14	8.42	8.67	8.98	9.39	9.77	10.15	10.53	10.81	11.40	11.87	12.42	6.23
강원	10.33	10.91	11.52	12.13	12.75	13.45	13.92	14.36	14.81	15.18	15.71	16.18	16.57	16.89	17.16	18.06	18.75	19.57	9.24
충북	9.97	10.41	10.93	11.33	11.77	12.36	12.67	12.97	13.20	13.40	13.75	14.13	14.50	14.82	15.12	15.83	16.37	17.03	7.06
충남	12.28	12.75	13.06	13.34	13.74	14.31	14.55	14.78	14.87	14.99	15.27	15.64	16.04	16.42	16.70	17.15	17.52	18.15	5.87
전북	11.32	11.76	12.46	12.93	13.49	14.32	14.67	14.97	15.22	15.58	16.21	16.70	17.24	17.84	18.30	18.94	19.51	20.31	8.99
전남	13.35	14.11	14.88	15.58	16.31	17.23	17.63	17.97	18.29	18.61	19.19	19.64	20.14	20.53	20.95	21.54	21.94	22.60	9.25
경북	11.74	12.30	12.94	13.39	13.85	14.57	15.05	15.44	15.57	15.72	16.21	16.76	17.30	17.75	18.23	19.05	19.78	20.54	8.80
경남	9.15	9.49	9.89	10.25	10.65	11.09	11.36	11.63	11.81	12.07	12.50	12.95	13.40	13.79	14.24	14.92	15.51	16.23	7.08
제주	8.72	9.15	9.60	10.01	10.51	11.04	11.45	11.86	12.19	12.60	13.01	13.36	13.57	13.76	13.90	14.17	14.42	14.91	6.19

주 : 2019년은 11월 기준 통계임

자료 : 통계청(2018)

〈표 2-2〉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51,839,852	25,852,796	25,987,056	8,323,396	3,597,673	4,725,723	16.06%
전북	1,808,044	898,719	909,325	380,425	159,444	220,981	21.04%
서울	9,715,429	4,728,872	4,986,557	1,532,693	676,725	855,968	15.78%
부산	3,402,776	1,667,613	1,735,163	643,652	280,329	363,323	18.92%
대구	2,428,022	1,198,621	1,229,401	393,159	166,634	226,525	16.19%
인천	2,945,565	1,475,837	1,469,728	401,297	175,564	225,733	13.62%
광주	1,454,709	719,860	734,849	202,006	85,948	116,058	13.89%
대전	1,470,225	734,008	736,217	206,479	90,389	116,090	14.04%
울산	1,141,362	586,533	554,829	139,272	63,163	76,109	12.20%
세종	346,217	172,660	173,557	33,515	14,597	18,918	9.68%
경기	13,351,891	6,717,812	6,634,079	1,728,614	759,987	968,627	12.95%
강원	1,540,094	774,913	765,181	313,549	135,275	178,274	20.36%
충북	1,597,936	809,841	788,095	282,466	121,534	160,932	17.68%
충남	2,120,692	1,081,752	1,038,940	398,578	171,017	227,561	18.79%
전남	1,853,339	931,280	922,059	430,895	176,846	254,049	23.25%
경북	2,644,001	1,331,461	1,312,540	564,665	237,444	327,221	21.36%
경남	3,347,637	1,685,427	1,662,210	568,220	238,894	329,326	16.97%
제주	671,913	337,587	334,326	103,911	43,883	60,028	15.46%

주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2020년 7월말 기준

전라북도의 고령인구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38.4만명으로 전체 인구 180.8만명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전체 노인의 약 35.84%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전북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808,044	898,719	909,325	380,425	159,444	220,981	21.04%
전주	655,784	322,907	332,877	96,398	41,473	54,925	14.70%
군산	268,243	135,497	132,746	49,741	21,542	28,199	18.54%
익산	283,853	141,360	142,493	55,155	23,266	31,889	19.43%
정읍	109,355	54,186	55,169	30,041	12,102	17,939	27.47%
남원	81,028	39,702	41,326	22,446	9,072	13,374	27.70%
김제	83,177	41,189	41,988	26,126	10,542	15,584	31.41%
완주	91,828	47,139	44,689	21,041	9,131	11,910	22.91%
진안	25,477	12,873	12,604	8,790	3,749	5,041	34.50%
무주	24,014	11,929	12,085	7,991	3,238	4,753	33.28%
장수	22,205	11,051	11,154	7,485	3,080	4,405	33.71%
임실	27,706	14,145	13,561	9,929	4,125	5,804	35.84%
순창	28,016	13,595	14,421	9,417	3,691	5,726	33.61%
고창	54,811	27,051	27,760	18,622	7,422	11,200	33.97%
부안	52,547	26,095	26,452	17,243	7,011	10,232	32.81%

주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2020년 7월 말 기준

전라북도의 높은 고령화는 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군별 고령인구의 추이를 보면, 다수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인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19년 11월 기준 14개 시군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11개 시군지역에 이르고 11개 시군 중에서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높은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곳도 7개 시군이다.

특히, 임실, 순창, 진안 등의 지역은 2010년과 2014년 이후부터 고령인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 같은 고령인구의 비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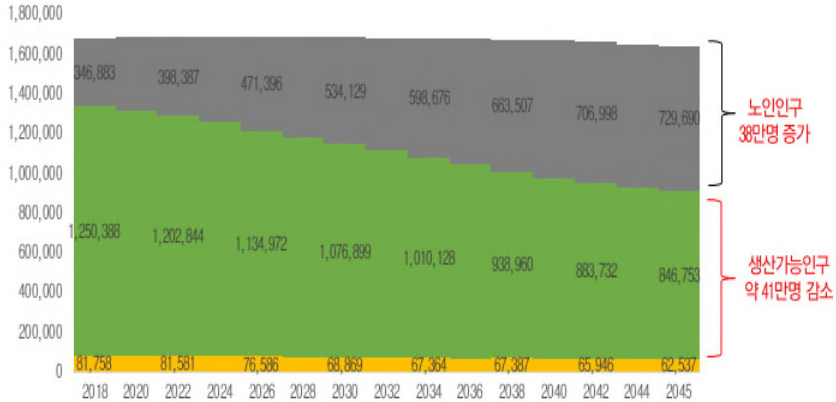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농촌지역 노인의 빈곤화도 함께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불안이나 노후불안에서 농촌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도시와 농촌의 노후빈곤율을 분석해보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후빈곤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4〉 전라북도 고령인구 비율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
전주	6.78	7.13	7.49	7.82	8.20	8.83	9.08	9.33	9.60	9.99	10.55	11.03	11.52	12.10	12.51	13.12	13.60	14.18
군산	8.93	9.41	9.92	10.33	10.91	11.64	11.91	12.11	12.31	12.67	13.21	13.68	14.22	14.84	15.42	16.21	16.84	17.70
익산	9.31	9.76	10.21	10.55	11.00	11.74	12.13	12.51	12.78	13.08	13.78	14.27	14.88	15.57	16.15	16.78	17.53	18.51
정읍	15.13	14.19	16.78	17.40	18.11	19.31	19.74	20.24	20.57	21.12	21.90	22.55	23.32	24.09	24.51	25.13	25.68	26.57
남원	14.95	15.40	16.63	17.37	18.27	19.62	20.12	20.44	20.62	21.10	21.98	22.68	23.36	24.12	24.60	25.42	25.98	26.97
김제	16.89	17.45	18.78	19.52	20.49	21.88	22.56	23.16	23.67	24.28	25.23	25.86	26.68	27.64	28.31	28.94	29.60	30.50
완주	14.11	14.91	15.65	15.82	16.37	17.57	17.82	18.03	18.11	18.56	18.91	19.30	19.29	19.23	19.70	20.19	20.94	22.08
진안	20.38	21.15	21.55	23.31	25.43	24.26	26.78	26.88	27.40	26.84	28.69	29.48	30.20	30.95	31.20	31.63	32.49	33.54
무주	19.58	21.11	22.22	23.15	24.46	25.03	25.57	26.06	26.68	26.88	27.84	28.26	28.53	29.50	30.17	31.04	31.38	32.43
장수	20.19	18.78	21.26	23.52	24.70	23.45	26.29	26.96	27.10	27.40	28.00	28.57	28.71	29.35	29.52	30.91	31.00	32.46
임실	21.41	22.69	24.38	25.06	26.18	27.33	28.11	28.51	28.94	29.04	30.39	31.00	31.21	31.48	31.63	32.06	32.49	34.41
순창	21.82	23.01	23.61	24.27	24.93	26.47	27.40	28.15	28.40	29.12	29.39	29.81	30.16	30.36	30.70	31.27	31.77	32.76
고창	18.82	19.52	21.42	22.54	23.66	25.19	25.85	26.41	26.48	27.05	27.56	27.99	28.92	29.40	29.47	30.01	31.69	32.98
부안	17.81	18.85	19.89	20.72	21.67	23.02	23.61	24.22	24.59	25.34	26.21	26.49	27.74	28.53	28.89	29.74	30.56	31.80

자료 : 통계청(e지방지표)

〈그림 2-1〉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추이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노인인구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는 2018년 34.6만명에서 2030년 53.4만명 그리고 2040년 68.9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반해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125만명에서 2045년 84.6만명으로 약 41만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할 노년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전라북도 노년부양비 추계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전체	21.7	23	24.3	25.8	27.4	29.3	31.4	33	35	36.5	38.2	40	41.8	43.7	46.2	48.4	51	53.4	55.8	58.1	60.1	61.9	63.5	65.2	66.8	69
서울	20.7	21.9	23.3	24.7	26.2	27.9	29.7	31.1	32.9	34.2	35.9	37.4	39	40.7	42.8	44.9	47.1	49.3	51.3	53.3	55	56.5	57.9	59.3	60.8	62.7
부산	26.5	28.3	30.3	32.3	34.5	36.9	39.5	41.5	43.7	45.2	47	48.8	50.6	52.6	55	57.2	59.7	62	64.3	66.6	68.4	70	71.4	73	74.6	76.7
대구	22.3	23.7	25.2	26.8	28.6	30.8	33.1	35.1	37.2	38.9	40.9	42.9	44.9	47.2	49.8	52.3	54.9	57.5	60.1	62.5	64.6	66.4	68.1	69.7	71.3	73.4
인천	18.1	19.4	20.7	22.3	24	26	28.1	29.9	31.9	33.6	35.5	37.3	39.2	41.2	43.6	45.9	48.4	50.8	53.2	55.5	57.5	59.3	61	62.7	64.4	66.6
광주	18.7	19.8	20.9	22.2	23.7	25.5	27.4	28.8	30.6	32	33.6	35.5	37.2	39.2	41.6	43.8	46.3	48.6	51.1	53.4	55.4	57.2	59	60.6	62.4	64.4
대전	18.6	19.9	21.2	22.6	24.2	26.1	28.2	29.8	31.6	33	34.8	36.4	38.2	40.1	42.5	44.6	47	49.3	51.6	53.8	55.6	57.3	58.8	60.3	61.9	63.7
울산	16.2	17.6	19.1	20.7	22.5	24.5	26.7	28.6	30.7	32.4	34.4	36.6	38.6	40.7	43.3	45.7	48.1	50.5	52.8	55	56.9	58.5	60	61.6	63.2	65.4
세종	13.1	13.6	14.2	14.9	15.7	16.7	17.8	18.8	19.7	20.5	21.5	22.4	23.4	24.6	26.1	27.5	29.2	30.8	32.5	34.2	35.8	37.2	38.7	40.1	41.6	43.4
경기	17.3	18.3	19.5	20.8	22.2	23.9	25.8	27.3	29	30.5	32.2	33.8	35.4	37.2	39.4	41.5	43.9	46.1	48.3	50.5	52.4	54	55.5	57.1	58.7	60.7
강원	28.9	30.6	32.5	34.6	36.8	39.4	42.2	44.5	47.1	49	51.2	53.5	55.8	58.3	61.4	64.4	67.6	70.7	73.9	77.1	79.6	81.9	83.9	85.9	87.9	90.3
충청	23.9	25.2	26.7	28.3	30	32	34.4	36.2	38.3	39.7	41.7	43.7	45.8	47.9	50.7	53.2	55.9	58.5	61.1	63.8	66	68	69.8	71.6	73.4	75.6
충남	25.4	26.5	27.5	28.8	30.2	32.1	34.1	35.8	37.6	38.9	40.9	42.5	44.3	46.3	48.8	51.1	53.8	56.3	58.9	61.5	63.7	65.8	67.6	69.6	71.5	73.9
전북	30.5	31.9	33.4	35	36.8	39.2	41.7	43.5	45.7	47.4	49.4	51.6	53.8	56.1	59.1	61.8	65	68	71.1	74.2	76.7	79	81	83.1	85	87.4
전남	35.5	36.7	38.1	39.7	41.7	44.1	46.5	48.4	50.7	52.6	54.7	57.1	59.4	62	65.2	68.3	71.8	75.1	78.6	82	84.8	87.3	89.7	92	94.4	97.3
경북	30.4	32	33.7	35.5	37.5	40	42.7	44.9	47.3	49.3	51.5	53.8	56.2	58.8	61.9	64.9	68.1	71.2	74.4	77.5	80.2	82.5	84.6	86.7	88.8	91.5
경남	23.5	24.9	26.4	28	29.7	31.8	34.3	36.2	38.4	39.9	41.9	43.9	46	48.3	51.1	53.8	56.7	59.5	62.4	65.1	67.5	69.6	71.4	73.4	75.5	78.0
제주	21.4	22.3	23.2	24.3	25.5	26.9	28.4	29.7	31.3	32.7	34.1	35.7	37.2	39	41.2	43.4	45.8	48.2	50.6	53	55	56.8	58.5	60.2	62.1	64.3

자료 : 통계청(e지방지표)

전라북도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 30.5%에서 2030년 47.4% 그리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76.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적 돌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비용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일자리 발굴을 통한 건강한 노후지원은 시급하다.

전라북도의 고령화 추이는 도시와 농촌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향후 노인 일자리 정책의 개발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현상이다. 전라북도는 시군별 인구추계에서는 도시지역은 감소하지만 농촌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등의 도시권 인구는 최소 1%~4%정도 감소하지만 완주를 비롯하여 진안, 순창 등의 지역은 2020년부터 2035년 사이에 크게는 약 12%p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로 인구구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은 높은 고령인구의 비율과 인구증가는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노년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은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전라북도별 인구추계

구분	2020	2021	2023	2025	2027	2029	2030	2031	2033	2035	증감(2020년 대비)	
											인원	비율
전체	1,823,507	1,821,950	1,818,509	1,815,361	1,812,877	1,810,814	1,809,662	1,808,311	1,805,027	1,800,104	-23,403	-1.28
전주	652,478	650,827	647,528	644,242	640,926	637,519	635,707	633,819	629,745	625,061	-27,417	-4.20
군산	272,048	271,728	271,185	270,778	270,451	270,123	269,892	269,570	268,773	267,583	-4,465	-1.64
익산	296,520	295,142	292,603	290,439	288,663	287,206	286,535	285,854	284,521	282,993	-13,527	-4.56
정읍	107,684	107,317	106,611	106,005	105,543	105,233	105,118	105,027	104,891	104,745	-2,939	-2.73
남원	79,189	79,120	78,940	78,786	78,680	78,658	78,684	78,727	78,829	78,903	-286	-0.36
김제	82,252	82,105	81,861	81,710	81,688	81,745	81,788	81,857	81,989	82,101	-151	-0.18
완주	100,576	101,440	103,019	104,468	105,850	107,092	107,648	108,140	108,975	109,537	8,961	8.91
진안	23,753	24,019	24,480	24,884	25,276	25,660	25,836	26,006	26,315	26,632	2,879	12.12
무주	23,789	23,968	24,282	24,573	24,852	25,119	25,246	25,375	25,627	25,856	2,067	8.69
장수	22,214	22,392	22,711	23,002	23,297	23,590	23,729	23,861	24,097	24,303	2,089	9.40
임실	27,155	27,425	27,892	28,273	28,615	28,938	29,099	29,248	29,556	29,849	2,694	9.92
순창	27,826	28,130	28,642	29,058	29,456	29,856	30,046	30,223	30,573	30,903	3,077	11.06
고령	56,243	56,543	56,980	57,366	57,756	58,150	58,348	58,547	58,935	59,307	3,064	5.45
부안	51,780	51,794	51,775	51,777	51,824	51,925	51,986	52,057	52,201	52,331	551	1.06

자료 : 통계청(2020) 전라북도 통계DB

〈표 2-7〉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전체	20.4	21.1	21.9	22.7	23.7	24.8	26.0	26.9	27.9	28.6	29.5	30.4	31.3	32.1	33.2	34.1
전주	14.6	15.3	16.1	16.8	17.7	18.8	19.8	20.6	21.6	22.2	23.1	23.9	24.7	25.5	26.5	27.3
군산	17.5	18.3	19.1	20.0	20.9	22.0	23.1	24.0	24.9	25.7	26.4	27.3	28.1	28.9	29.9	30.8
익산	18.3	19.2	20.2	21.1	22.2	23.4	24.7	25.6	26.8	27.6	28.6	29.5	30.5	31.3	32.5	33.4
정읍	26.8	27.4	28.2	29.1	30.0	31.1	32.4	33.4	34.3	35.2	36.1	37.0	38.0	38.8	40.0	41.0
남원	27.6	28.4	29.1	30.0	31.0	32.3	33.6	34.6	35.7	36.4	37.3	38.3	39.3	40.2	41.4	42.4
김제	30.9	31.7	32.4	33.4	34.3	35.5	36.7	37.6	38.5	39.3	40.1	41.0	41.8	42.6	43.6	44.6
완주	21.1	21.9	22.6	23.5	24.4	25.6	26.9	27.9	28.9	29.8	30.7	31.7	32.7	33.7	34.8	35.9
진안	34.6	35.0	35.4	36.1	36.8	38.0	39.4	40.2	41.2	41.9	42.9	43.9	44.8	45.7	46.9	47.9
무주	32.9	33.5	34.2	35.1	35.9	37.0	38.2	39.2	40.2	40.9	41.8	42.7	43.6	44.5	45.6	46.6
장수	32.3	32.9	33.4	34.2	35.0	36.3	37.3	38.2	39.1	39.8	40.7	41.6	42.5	43.5	44.5	45.5
임실	34.7	35.1	35.5	35.9	36.6	37.8	38.8	39.5	40.5	41.2	42.0	42.9	43.7	44.7	45.7	46.7
순창	33.0	33.4	33.8	34.5	35.1	36.3	37.4	38.2	39.2	39.8	40.6	41.6	42.5	43.4	44.6	45.5
고창	32.3	32.8	33.5	34.3	35.2	36.2	37.4	38.3	39.2	40.0	40.8	41.7	42.5	43.3	44.4	45.4
부안	32.1	32.8	33.5	34.4	35.4	36.4	37.6	38.6	39.6	40.4	41.2	42.1	42.9	43.7	44.7	45.7

자료 : 통계청(2020) 전라북도 통계DB

전라북도의 인구추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82.3만명에서 2030년 180.1만 2035년에는 180.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증감율을 보면, 2020년 대비 2035년은 2.3만명(1.28%p)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시로 2020년 이후 2035년까지는 약 1.3만명(4.56%p)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대다수 시부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반에 완주를 비롯하여 진안, 무주, 순창, 고창 등의 군부지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창군은 경우 2020년 2.8만명에서 2030년 3.0만명 그리고 2035년 3.1만명으로 약 3.1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인구감소의 대부분은 시부지역이고 농촌지역은 8개 군부 지역 모두 인구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안군은 2020년 이후 2020년 2.375만명에서 2035년에는 2.66만명으로 약 2.88천명(1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일부 시군의 경우 7년 후인 2027년부터 고령인구의 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군은 2027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40.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진안군을 포함하여 7개 군지역이 10년 후인 2030년에 고령인구가 4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지역들도 2035년이 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모두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노후빈곤심화와 빈곤사각지대 확대

전라북도의 빈곤율(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9년 기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북의 높은 빈곤율은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9년 11월 기준 5.8%로 전년도 5.5%보다도 0.3%p 증가하였고,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3.6%보다도 1.9%p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높은 고령화율과 빈곤계층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체 빈곤인구의 약 40%정도는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 빈곤화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법정빈곤율의 경우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표 2-8〉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년	3.2	2.0	3.8	3.7	3.7	4.2	3.1	1.8		1.9	4.4	3.9	4.1	6.6	6.9	4.9	3.5	4.1
2008년	3.1	2	3.9	4.0	2.6	4.3	3.2	1.7		1.8	4.3	3.8	3.7	6.2	6.0	4.7	3.3	4.1
2010년	3.1	2.1	4.1	4.3	2.7	4.5	3.2	1.7		1.8	4.3	3.7	3.5	5.9	5.5	4.6	3.2	4.3
2012년	2.7	2	3.8	4	2.5	4.2	3	1.4		1.6	3.8	3.2	2.9	5.1	4.6	3.9	2.8	3.8
2014년	2.6	3.6	3.8	2.5	4.0	2.8	1.3	2.1		1.5	3.6	2.8	2.6	4.6	4.0	3.5	2.6	3.3
2016년	3.2	2.7	4.3	4.3	3.4	4.7	3.6	1.6	1.8	2.1	4.0	3.4	3	5.3	4.4	3.9	3.1	3.6
2018년	3.4	3.0	4.6	4.5	3.7	5.0	3.8	2.0	1.6	2.3	4.3	3.7	3.1	5.5	4.5	4.0	3.3	3.5
2019년 11월	3.6	3.2	5.0	4.8	4.1	5.2	4.0	2.3	1.7	2.5	4.6	3.9	3.3	5.8	4.7	4.3	3.6	3.6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재구성

전라북도의 노인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등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밖에 되지 않는다. 노후소득의 안정성은 사적이전소득이나 공적연금보다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나타난다. 하지만 전라북도 노인은 전체 소득구성비에서 근로소득의 구성비가 낮은 편이다. 전국과 비교해보면, 전라북도 노인은 근로소득은 전국평균보다도 약 4%p 낮은 반면 공적연금은 약 8%p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노인은 근로소득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한 소득보다는 국가의 공적연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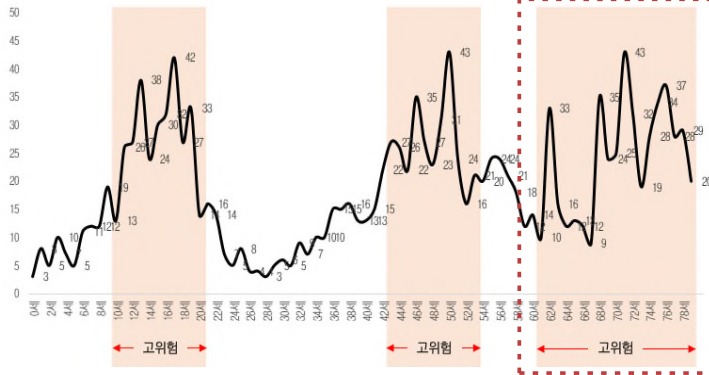
〈표 2-9〉 지역별 노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 연금	사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 급여	기타소득	총수입액
금액	서울	153.20	145.70	300.32	12.14	0.00	6.23	253.84	256.73	125.51	39.58	14.25	1307.49
	부산	164.95	106.91	90.25	3.39	0.00	3.59	252.21	211.65	162.50	43.57	38.83	1077.86
	대구	170.72	105.98	174.73	0.71	0.00	1.93	305.45	329.70	132.53	60.40	9.88	1292.03
	인천	183.61	97.84	76.03	6.57	0.00	10.22	246.77	191.56	165.80	43.55	28.06	1050.02
	광주	134.83	67.98	67.57	1.21	4.57	2.81	330.79	331.71	150.77	45.34	2.22	1139.80
	대전	171.09	52.54	57.91	9.84	0.00	1.61	243.43	289.39	149.26	62.58	20.40	1058.05
	울산	187.25	228.11	384.75	4.94	0.00	1.47	293.77	276.77	119.99	42.04	32.53	1571.60
	세종	83.11	31.44	50.18	16.04	0.00	0.00	186.40	417.65	171.90	70.18	0.24	1027.14
	경기	196.19	175.01	187.11	3.99	0.00	3.42	267.65	190.43	139.03	49.56	7.89	1220.98
	강원	116.05	222.04	67.36	4.38	0.00	1.14	234.91	243.00	151.10	57.70	7.65	1105.33
	충북	134.30	214.78	56.96	3.70	0.00	0.00	235.10	184.47	163.84	63.37	6.63	1063.13
	충남	118.25	247.36	60.09	0.03	5.52	0.74	269.29	189.21	155.93	66.50	12.80	1125.72
	전북	101.59	154.45	47.88	2.29	6.06	0.00	269.12	326.99	139.93	62.44	26.60	1137.34
	전남	94.60	193.67	82.82	1.69	12.70	0.88	239.68	211.41	157.04	61.88	8.68	1065.05
	경북	126.43	173.61	39.59	1.07	0.00	1.29	256.26	256.24	166.56	47.08	2.59	1070.72
	경남	183.60	176.25	64.36	0.46	0.00	0.97	235.19	244.83	155.30	57.76	15.19	1133.89
	제주	168.67	297.31	83.29	0.00	0.00	0.00	211.25	256.13	148.06	53.45	5.21	1223.38
	전체	156.21	160.41	143.30	4.64	1.37	3.09	258.40	237.66	145.99	51.03	14.22	1176.46
비율	서울	11.72	11.14	22.97	0.93	0.00	0.48	19.41	19.64	9.60	3.03	1.09	100.0
	부산	15.30	9.92	8.37	0.31	0.00	0.33	23.40	19.64	15.08	4.04	3.60	100.0
	대구	13.21	8.20	13.52	0.06	0.00	0.15	23.64	25.52	10.26	4.67	0.76	100.0
	인천	17.49	9.32	7.24	0.63	0.00	0.97	23.50	18.24	15.79	4.15	2.67	100.0
	광주	11.83	5.96	5.93	0.11	0.40	0.25	29.02	29.10	13.23	3.98	0.19	100.0
	대전	16.17	4.97	5.47	0.93	0.00	0.15	23.01	27.35	14.11	5.91	1.93	100.0
	울산	11.91	14.51	24.48	0.31	0.00	0.09	18.69	17.61	7.63	2.67	2.07	100.0
	세종	8.09	3.06	4.89	1.56	0.00	0.00	18.15	40.66	16.74	6.83	0.02	100.0
	경기	16.07	14.33	15.32	0.33	0.00	0.28	21.92	15.60	11.39	4.06	0.65	100.0
	강원	10.50	20.09	6.09	0.40	0.00	0.10	21.25	21.98	13.67	5.22	0.69	100.0
	충북	12.63	20.20	5.36	0.35	0.00	0.00	22.11	17.35	15.41	5.96	0.62	100.0
	충남	10.50	21.97	5.34	0.00	0.49	0.07	23.92	16.81	13.85	5.91	1.14	100.0
	전북	8.93	13.58	4.21	0.20	0.53	0.00	23.66	28.75	12.30	5.49	2.34	100.0
	전남	8.88	18.18	7.78	0.16	1.19	0.08	22.50	19.85	14.74	5.81	0.81	100.0
	경북	11.81	16.21	3.70	0.10	0.00	0.12	23.93	23.93	15.56	4.40	0.24	100.0
	경남	16.19	15.54	5.68	0.04	0.00	0.09	20.74	21.59	13.70	5.09	1.34	100.0
	제주	13.79	24.30	6.81	0.00	0.00	0.00	17.27	20.94	12.10	4.37	0.43	100.0
	전체	13.28	13.63	12.18	0.39	0.12	0.26	21.96	20.20	12.41	4.34	1.21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노인생활실태조사 raw data분석

한편, 전라북도 노인의 연평균 소득은 1,137.3만원으로 전국 노인의 연평균소득인 1,176.5만원보다도 약 39.1만원이 적은 편이다. 9개 광역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1,223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1,220.98만원), 전라북도(1,137.34만원), 경상남도(1,133.89만원) 등의 순이다. 연간 총 소득에서는 전라북도가 광역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소득원천별로 보면, 전라북도 노인의 주 소득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노인은 공적연금과 자식이 주는 용돈 등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전라북도 연령대별 빈곤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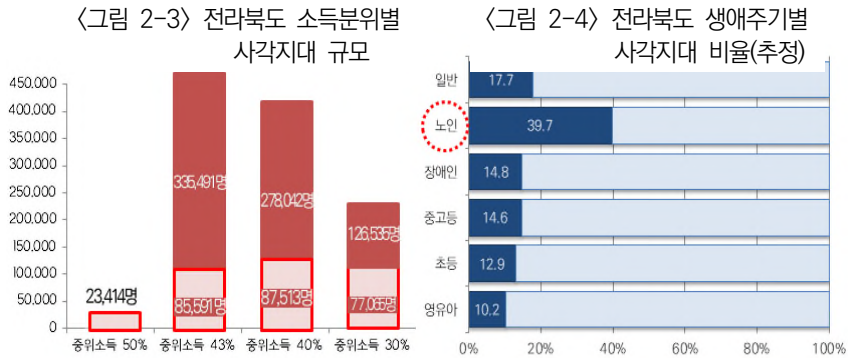


전라북도 노인의 소득원천별 구성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인의 불안정한 소득은 빈곤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다른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아동과 노인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노인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빈곤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19세 전후의 아동, 45세 전후의 장년층 그리고 65세 이후의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빈곤노인은 33,270명으로 전체 빈곤인구 8.1만명의 40.8%를 차지하고 있어 빈곤인구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0〉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구분	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전체	306,195	24,232	70,055	114,285	152,840	75,038	29,436	26,997	47,557	69,189	112,822	134,814	151,945	154,122	142,213	135,384	145,233	202,357
서울	166,536	3,433	8,912	16,220	24,168	12,949	5,998	4,749	7,385	10,937	19,146	23,824	27,674	28,502	26,978	26,130	26,162	32,008
부산	112,279	1,661	5,074	8,141	12,187	6,938	2,681	1,993	3,870	5,957	10,327	12,655	14,798	16,543	15,584	14,255	15,137	18,655
대구	116,589	1,266	3,846	6,397	9,270	5,551	2,076	1,570	2,913	4,467	7,839	9,675	10,539	9,869	9,001	7,892	8,744	11,394
인천	73,462	2,093	5,433	8,070	10,482	4,841	2,160	2,002	3,461	4,974	7,763	8,469	9,327	9,639	8,428	8,244	8,772	12,431
광주	56,271	1,367	3,662	5,252	7,321	4,806	1,805	1,431	2,319	3,491	5,466	6,005	5,949	5,526	4,626	4,369	4,304	5,763
대전	25,336	1,014	2,415	3,914	5,505	2,870	1,142	968	1,550	2,343	3,834	4,443	4,685	4,790	4,230	3,790	3,847	4,931
울산	5,188	411	893	1,444	1,886	939	334	366	720	1,102	1,737	1,916	2,106	2,383	2,447	2,052	2,093	2,507
세종	312,220	111	311	517	501	200	72	80	187	235	315	314	339	366	352	317	384	587
경기	67,012	4,424	13,513	22,465	29,094	12,046	4,717	4,909	8,364	11,760	19,052	22,126	24,760	24,806	23,227	23,679	26,021	37,257
강원	56,994	760	2,477	3,973	5,434	2,692	867	850	1,676	2,348	3,904	4,767	5,890	5,923	5,228	5,185	6,019	9,019
충북	64,373	926	2,546	4,001	4,779	2,057	819	1,002	1,744	2,234	3,278	4,147	4,517	4,691	4,268	4,041	4,747	7,197
충남	100,927	933	2,689	4,634	5,467	2,220	792	943	1,835	2,508	3,812	4,588	5,195	5,357	4,929	4,847	5,254	8,370
전북	81,491	1,559	4,570	7,221	9,341	4,915	1,653	1,496	3,014	4,184	6,404	7,308	8,004	7,988	7,373	6,951	7,380	11,556
전남	107,054	1,073	3,377	5,345	7,046	2,868	1,042	1,202	2,086	2,985	4,646	5,820	6,786	6,474	5,942	6,202	6,861	11,736
경북	115,113	1,309	4,041	6,463	8,158	3,977	1,470	1,574	2,807	4,278	6,558	8,181	9,602	9,482	8,787	7,680	9,141	13,566
경남	22,539	1,481	5,016	8,291	9,880	4,225	1,471	1,558	3,009	4,484	7,285	8,871	10,004	10,002	9,243	8,204	8,907	13,142
제주	1,885,579	411	1,280	1,937	2,321	1,004	337	304	617	902	1,456	1,665	1,770	1,741	1,570	1,506	1,460	2,258

자료 : 보건복지부(20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19년 11월 기준



자료 :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2018) 원자료 분석

전라북도의 빈곤노인은 그 규모도 상당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빈곤층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빈곤노인 중에서 복지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미수급 빈곤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39.7%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30%미만 가구로 추정 시 노인빈곤율은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높은 노인일자리 수요와 낮은 고용율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공공형으로 채워지고 있어 노인의 일자리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수요는 최소 19.1%에서 최대 2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 노인의 평균 일자리 수요는 17.95%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전라북도가 전국평균보다도 상대적으로 높다.

〈표 2-1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비율(추정)

구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국노동패널 (18차)	참여하고 싶다	24.49	25.13	14.43	17.20	12.64	17.58	22.22	16.92	13.56	7.83	9.69	19.17	16.43	14.29	18.50	20.61	17.95
	참여하고 싶지않다	74.54	70.26	82.89	81.10	85.82	80.86	77.78	82.08	84.02	90.08	88.75	80.08	83.41	84.81	78.10	74.81	80.40
전북 복지 실태 조사 (2018)	참여하고 싶다													19.1				
	참여하고 싶지않다													~				
	참여하고 싶지않다													22.1				
	참여하고 싶지않다													77.6				
														78.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한국노동연구원) 및 전북복지실태조사(전북연구원) raw data 분석

〈표 2-12〉 취업노인 직종 추이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어·축산업종사자	56.6	60.4	53.9	51.2	52.9	36.4	25.2
단순노무종사자	21.1	21.5	27.8	26.2	26.1	36.6	21
서비스/판매종사자	12.3	8.8	8.8	11.4	11.7	11.8	20.7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7	0.4	2.7	3.1	2.8	4.8	7.6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2.7	2.7	1.9	2.8	3.2	2.6	10.1
고위임직원·관리자	-	2	1.8	2.7	1	3.7	2.9
전문가	2.9	1.9	1.3	1.7	2	2.7	0
기술공·준전문가	0.4	1.1	1.1	0	0	0	5.2
사무종사자	3.3	1.2	0.7	0.9	0.3	1.5	6.6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노인실태조사

노인의 취업직종을 보면,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직종을 보면, 농어업 및 축산업의 비율이 2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1% 등의 순이다. 다만,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1994년 56.6%에서 2017년 20.7%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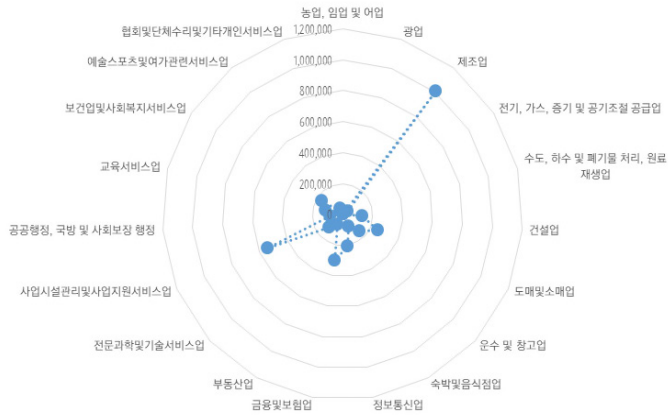
〈표 2-13〉 노인취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계	3,374,703	3,068,259	3,582,410	3,541,579	3,435,785	3,557,007	3,742,423	3,930,831
농업, 임업 및 어업	1,665	577	1,146	641	1,134	541	559	1,236
광업	2,611	747	1,828	2,961	2,871	2,668	2,455	1,936
제조업	1,009,031	988,422	1,144,358	1,128,051	1,035,087	1,073,931	1,084,986	1,100,2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7,317	34,708	49,391	60,409	55,975	53,329	48,440	60,21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634	1,771	3,979	3,223	4,326	10,202	16,617	18,395
건설업	130,325	118,481	122,170	104,773	97,979	97,046	97,252	97,405
도매및소매업	255,077	275,209	318,638	293,037	295,930	311,587	331,144	344,114
운수 및 창고업	153,860	151,389	159,302	174,958	178,787	177,607	189,674	222,772
숙박및음식점업	89,067	110,238	129,795	117,265	121,576	125,638	123,014	130,107
정보통신업	210,146	192,399	201,349	203,010	209,064	220,714	229,875	237,309
금융및보험업	299,677	289,289	305,160	306,587	295,571	301,197	321,665	310,122
부동산업	72,169	30,791	33,207	60,269	45,639	45,621	48,863	47,40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1,109	125,163	133,097	156,074	145,995	163,196	158,194	188,95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46,105	533,212	595,021	603,826	603,979	618,007	629,224	617,0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2,695	65,350	58,548	55,901	84,672	91,752	198,259	249,350
교육서비스업	118,994	63,015	89,996	57,076	54,623	48,066	51,587	54,84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5,582	92,439	166,826	144,682	143,038	154,752	149,316	172,29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7,820	16,039	34,201	34,899	27,896	28,694	33,347	37,585
협회및단체사무및기타개인서비스업	38,977	19,402	19,544	33,937	19,531	20,379	15,900	27,835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644	-	0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	7,842	8,974	14,854	0	12,112	12,080	12,052	1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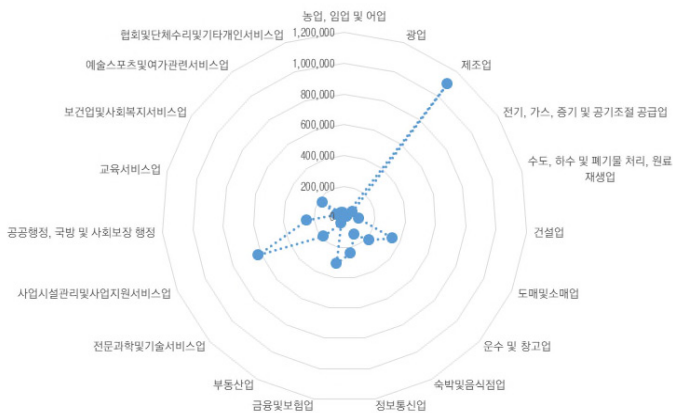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5〉 노인취업자의 직종별 현황 (2012년)



고령자의 취업직종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로 그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2년에는 50세 이상의 장년층 이상의 취업자 직종이 대부분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사업 및 관리직 그리고 금융보험업 등의 순이었다. 고령자의 취업직종의 대부분이 제조업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시설 및 관리직과 도매 및 소매업이 2012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행정분야에서도 고령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행정분야에서 취업고령자가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지원 일자리의 확대 특히,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그림 2-6〉 노인취업자의 직종별 현황 (2019년)



〈표 2-14〉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구분	2018년								2019년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15세 이상 전체	44,182	27,895	26,822	1,073	16,287	63.1	3.8	60.7	44,504	28,186	27,123	1,063	16,318	63.3	3.8	60.9
15-19세	2,759	226	205	21	2,533	8.2	9.3	7.4	2,617	217	198	19	2,401	8.3	8.6	7.6
20-29세	6,330	4,086	3,699	387	2,303	64.0	9.5	57.9	6,443	4,114	3,747	367	2,328	63.9	8.9	58.2
30-39세	7,378	5,777	5,582	195	1,600	78.3	3.4	75.7	7,273	5,719	5,529	190	1,554	78.6	3.3	76.0
40-49세	8,438	6,834	6,666	168	1,604	81.0	2.5	79.0	8,301	6,666	6,504	163	1,644	80.2	2.3	78.4
50-59세	8,442	6,510	6,346	164	1,933	77.1	2.5	75.2	8,541	6,612	6,444	169	1,929	77.4	2.5	75.4
60세 이상	10,776	4,463	4,324	139	6,313	41.4	3.1	40.1	11,329	4,857	4,701	167	6,462	43.0	3.4	41.5
15-64세	36,796	25,515	24,511	1,003	11,282	69.3	3.9	66.6	36,791	25,564	24,565	979	11,228	69.5	3.8	66.8
15-24세	5,717	1,672	1,496	176	4,045	29.3	10.5	26.2	5,543	1,641	1,470	171	3,902	29.6	10.4	26.5
15-29세	9,149	4,312	3,904	408	4,837	47.1	9.5	42.7	9,060	4,331	3,945	386	4,729	47.8	8.9	43.5

자료 : 통계청(각연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2018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446만명이고 실업자는 4432만명이다. 2019년에는 고령자 중 경제활동참가자가 486만명으로 4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여율도 43.0%로 1.6%p 증가하였다.

〈표 2-15〉 연령별·사업별 취업분포

(단위 : 천명, %)

산업별	2013. 5월		2014. 5월		2015. 5월		2016. 5월		2017. 5월		2018. 5월		2019. 5월		2020. 5월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전체 취업자	65-79세
계	25,610	1,896	26,112	1,956	26,431	1,963	26,613	2,007	26,992	2,087	27,064	2,209	27,322	2,389	26,930	2,525
농림어업	1,706	713	1,649	680	1,526	605	1,420	566	1,420	585	1,481	613	1,497	605	1,561	626
광·제조업	4,314	89	4,475	94	4,593	109	4,627	122	4,610	137	4,528	143	4,449	148	4,391	158
· 제조업	4,297	88	4,459	93	4,580	109	4,608	122	4,586	134	4,507	140	4,434	147	4,377	158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19,591	1,095	19,987	1,182	20,312	1,248	20,566	1,319	20,963	1,366	21,054	1,453	21,376	1,636	20,989	1,741
· 건설업(F)	1,832	62	1,855	81	1,894	74	1,862	70	2,031	68	2,035	85	2,041	92	1,979	111
· 도소매·음식숙박업	5,642	310	5,836	313	5,998	327	5,987	316	6,068	317	5,967	310	6,028	348	5,666	36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9,031	608	9,207	649	9,336	710	9,637	787	9,836	839	9,914	883	10,182	1,021	10,172	1,075
· 전가·운수·통신·금융업	3,087	115	3,080	138	3,084	137	3,080	147	3,027	142	3,139	165	3,127	174	3,181	199
계	-	7.40	-	7.49	-	7.43	-	7.54	-	7.73	-	8.16	-	8.74	-	9.38
농림어업	-	41.79	-	41.24	-	39.65	-	39.86	-	41.20	-	41.39	-	40.41	-	40.36
광·제조업	-	2.06	-	2.10	-	2.37	-	2.64	-	2.97	-	3.16	-	3.33	-	3.60
· 제조업	-	2.05	-	2.09	-	2.38	-	2.65	-	2.92	-	3.11	-	3.32	-	3.61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	5.59	-	5.91	-	6.14	-	6.41	-	6.52	-	6.90	-	7.65	-	8.29
· 건설업(F)	-	3.38	-	4.37	-	3.91	-	3.76	-	3.35	-	4.18	-	4.51	-	5.61
· 도소매·음식숙박업	-	5.49	-	5.36	-	5.45	-	5.28	-	5.22	-	5.20	-	5.77	-	6.2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	6.73	-	7.05	-	7.60	-	8.17	-	8.53	-	9.01	-	10.03	-	10.57
· 전가·운수·통신·금융업	-	3.73	-	4.47	-	4.44	-	4.77	-	4.69	-	5.26	-	5.56	-	6.26

자료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16〉 연령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구분	시기	총수	15~19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세이상
전체	2016	940	8	42	60	78	90	114	123	116	111	70	129
	2017	921	4	43	58	69	91	106	124	110	114	74	127
	2018	915	4	40	56	69	90	98	124	107	114	78	134
	2019	928	4	37	60	63	91	95	119	112	112	86	150
	2018.2/4	926	3	42	54	69	91	96	125	107	116	81	142
	3/4	925	4	38	55	68	92	97	124	106	116	81	145
	4/4	923	4	41	56	69	90	96	123	105	117	82	140
	2019.1/4	902	2	41	55	67	90	96	120	108	111	81	130
	2/4	940	5	37	63	62	90	97	120	113	112	86	154
	3/4	934	3	33	63	60	91	94	118	114	113	89	156
	4/4	934	5	35	60	61	91	94	117	113	112	90	158
	2020.1/4	906	4	32	56	61	88	91	116	112	110	86	150
	2/4	929	3	32	52	65	82	89	115	116	112	92	172
	3/4	947	2	37	57	67	84	91	113	115	112	96	175
	2016	538	5	17	31	48	56	66	70	67	64	42	71
	2017	530	3	20	32	41	56	61	71	62	67	45	71
	2018	526	2	21	31	43	56	56	72	60	68	46	72
	2019	526	2	18	36	38	54	53	69	64	66	50	77
	2018.2/4	527	2	22	29	43	56	55	73	59	68	46	74
	3/4	525	3	20	29	42	56	56	72	60	67	46	74
	4/4	529	2	21	32	42	55	55	72	62	68	48	73
	2019.1/4	520	1	21	31	39	54	54	70	62	66	49	73
	2/4	525	3	17	36	38	54	53	69	64	65	50	77
	3/4	529	2	17	38	37	54	51	68	66	67	51	77
	4/4	531	2	17	40	36	54	52	67	65	68	51	80
	2020.1/4	521	1	14	36	37	53	53	66	66	65	50	79
	2/4	525	1	12	33	39	51	51	67	67	64	53	86
	3/4	528	0	15	33	39	50	52	65	67	64	54	88
남자	2016	402	4	25	29	30	33	48	52	49	47	28	58
	2017	391	2	23	26	28	35	45	52	47	47	29	57
	2018	388	2	19	25	26	34	42	53	46	47	32	62
	2019	401	2	19	24	25	37	43	51	48	46	36	73
	2018.2/4	400	1	20	24	27	35	41	53	48	48	34	68
	3/4	399	2	17	26	26	36	41	52	45	49	35	71
	4/4	394	2	20	23	26	36	41	52	43	50	34	67
	2019.1/4	383	2	20	24	28	35	42	51	46	45	32	57
	2/4	415	3	21	28	24	36	44	51	49	47	36	77
	3/4	405	1	16	25	23	37	42	50	48	46	38	80
	4/4	403	3	18	20	24	38	42	50	48	44	38	77
	2020.1/4	385	2	18	20	24	35	38	50	46	46	35	71
	2/4	404	2	20	19	26	31	37	48	49	47	39	86
	3/4	418	2	21	24	28	34	39	48	48	48	41	87
여자	2016	402	4	25	29	30	33	48	52	49	47	28	58
	2017	391	2	23	26	28	35	45	52	47	47	29	57
	2018	388	2	19	25	26	34	42	53	46	47	32	62
	2019	401	2	19	24	25	37	43	51	48	46	36	73
	2018.2/4	400	1	20	24	27	35	41	53	48	48	34	68
	3/4	399	2	17	26	26	36	41	52	45	49	35	71
	4/4	394	2	20	23	26	36	41	52	43	50	34	67
	2019.1/4	383	2	20	24	28	35	42	51	46	45	32	57
	2/4	415	3	21	28	24	36	44	51	49	47	36	77
	3/4	405	1	16	25	23	37	42	50	48	46	38	80
	4/4	403	3	18	20	24	38	42	50	48	44	38	77
	2020.1/4	385	2	18	20	24	35	38	50	46	46	35	71
	2/4	404	2	20	19	26	31	37	48	49	47	39	86
	3/4	418	2	21	24	28	34	39	48	48	48	41	87

자료 : 통계청(2020) 고용동향 9월

전라북도의 고용동향을 보면,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2020년 1분기 15.0만명, 2분기 17.2만명, 3분기 17.5만명으로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9만명에서 2019년 15.0만명으로 약 2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약 17.5만명으로 2019년 대비 약 4.6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표 2-17〉 노인 경제활동 참여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1.4	25.1	18.4	26.6	25.9	23.8	34.1	19.4	29.4	40.4	46.9	44.1	35.1	37.2	38.8	36.0	41.9	30.5
66.4	66.2	62.9	63.1	59.2	68.8	56.7	63.9	59.6	52.1	48.6	51.8	55.1	56.1	51.7	56.1	55.0	59.6
12.2	8.7	18.8	10.4	14.9	7.4	9.1	16.7	11.0	7.5	4.5	4.1	9.8	6.7	9.5	7.8	3.1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노인실태조사 raw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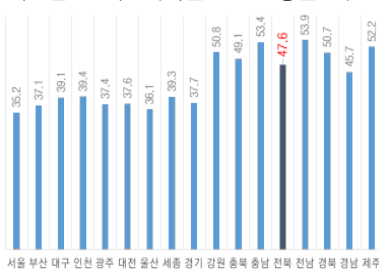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35.1%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인 30.5%보다도 약 4.6%p 높은 수준이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율 현황을 보면, 2020년 1분기 기준 47.2%이다.

〈표 2-18〉 전라북도 연령별 고용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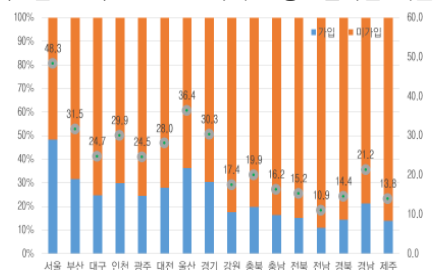
구분	2014 4/4	2015 4/4	2016 4/4	2017 4/4	2018 3/4	2018 4/4	2019 1/4	2019 2/4	2019 3/4	2020 4/4	2020 1/4
소계	59.1	59.2	60.0	58.5	59.0	58.9	57.6	60.1	59.8	59.9	58.2
15~19세	4.8	8.3	4.7	3.4	4.1	3.6	2.2	5.3	3.5	5.1	3.7
20~29세	55.1	48.2	50.9	46.6	44.2	46.0	46.0	47.9	46.1	45.6	42.4
30~39세	73.0	73.7	75.2	75.3	76.0	76.6	76.4	74.9	75.1	76.2	75.5
40~49세	77.5	82.5	82.0	80.9	79.9	80.0	79.5	80.3	79.0	79.1	78.2
50~59세	76.1	77.4	78.9	76.0	75.6	75.7	74.2	76.1	76.5	76.1	75.7
60세 이상	44.9	43.4	45.1	44.7	47.6	46.4	44.0	49.5	50.0	49.9	47.2

노인의 일자리는 낮은 고용율과 경제활동참여율도 문제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인들도 다수가 불안한 고용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13.3만명으로 2011년 10.8만명에서 2.5만명 증가하였지만 일자리의 질적 상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노인 취업자는 전체 노인취업자의 15.2%에 불과하다.

〈그림 2-7〉 지역별 노인고용률 비교



〈그림 2-8〉 노인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비율



〈표 2-19〉 전라북도 고령인구 취업자 현황(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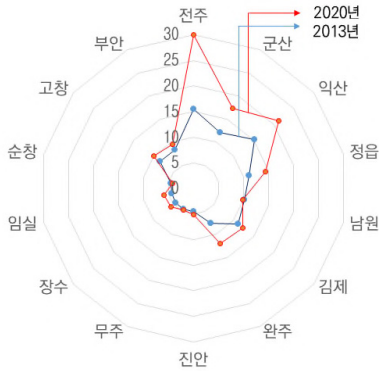
지역	구분	2013 2/2	2014 2/2	2015 2/2	2016 2/2	2017 2/2	2018 2/2	2019 2/2	2020 1/2	증감
전주시	계	294.3	299.4	296.7	298.4	301.0	312.2	328.4	322.9	28.6
	65세이상	15.4	14.1	18.2	18.3	19.1	23.8	28.0	30.0	14.6
군산시	계	128.1	130.8	128.0	128.9	122.5	123.2	128.9	122.4	-5.7
	65세이상	12.0	13.7	11.0	13.4	10.2	13.5	16.3	17.4	5.4
익산시	계	143.5	140.7	139.6	140.8	135.0	142.1	139.1	139.1	-4.4
	65세이상	15.2	15.7	15.8	16.9	11.9	15.2	19.8	21.2	6
정읍시	계	57.5	56.8	58.2	57.7	54.6	56.9	57.1	56.5	-1
	65세이상	11.1	11.1	12.2	12.6	11.7	12.6	13.6	14.4	3.3
남원시	계	44.3	45.0	44.8	42.9	43.8	44.2	45.3	42.7	-1.6
	65세이상	10.2	10.4	10.3	10.3	10.6	10.3	10.7	9.9	-0.3
김제시	계	47.8	49.0	47.7	47.4	43.6	43.2	43.9	43.9	-3.9
	65세이상	11.1	11.7	12.4	11.8	9.5	10.4	11.5	12.3	1.2
완주군	계	44.0	46.6	50.1	50.5	49.8	51.0	50.9	51.5	7.5
	65세이상	7.6	8.3	9.2	9.2	8.6	9.8	11.1	12.0	4.4
진안군	계	14.9	14.5	14.6	14.5	14.4	14.5	14.7	14.4	-0.5
	65세이상	4.6	4.3	4.5	4.4	4.7	4.7	5.0	5.2	0.6
무주군	계	14.6	14.5	14.8	14.2	14.2	14.7	14.9	14.8	0.2
	65세이상	4.5	4.3	4.5	4.3	4.1	4.4	4.5	4.7	0.2
장수군	계	14.3	14.0	14.0	14.3	14.1	14.4	14.3	14.8	0.5
	65세이상	4.5	4.4	4.3	4.6	4.4	4.7	5.0	5.7	1.2
임실군	계	14.9	14.9	15.5	15.7	15.5	15.8	16.1	16.1	1.2
	65세이상	4.4	4.6	5.4	5.4	4.9	5.5	5.7	6.0	1.6
순창군	계	15.3	15.5	15.8	15.6	15.5	15.7	16.1	15.0	-0.3
	65세이상	4.6	5.0	4.8	4.6	4.7	4.7	4.8	4.2	-0.4
고창군	계	32.3	33.5	33.7	33.7	31.4	32.5	31.2	30.2	-2.1
	65세이상	8.5	9.0	9.4	9.4	8.9	9.5	9.6	10.0	1.5
부안군	계	31.7	32.9	34.0	33.7	32.3	31.0	31.2	29.7	-2
	65세이상	8.4	9.2	10.1	10.3	9.7	9.5	10.0	9.6	1.2

자료 : 지역고용조사(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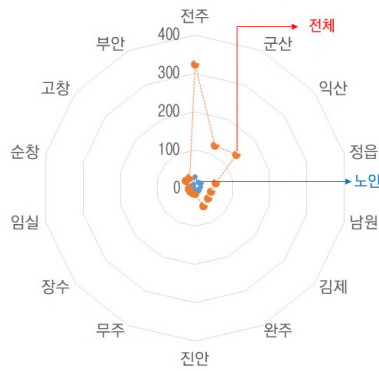
전라북도 취업자 증가를 시군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령인구의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의 지역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가령, 전주시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취업자는 15.4천명이었지만 2020년 1분기에는 30.0천명으로 약 1.46천명 증가하였고, 군산시도 같은 기간 12.0천명에서 17.4천명으로 5.4천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익산과 완주도 각각 6천명 그리고 4천명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취업자도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고령인구 취업지역의 도시집중화는 더욱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의 고령자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순창군은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고, 무주군과 진안군 등의 동부권 농촌지역은 고령자 취업자수의 유동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별 취업자 추이



〈그림 2-10〉 전체-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수 비교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취업자수는 전주 익산 그리고 군산 등의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완주군의 고령자 취업자 증가가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기별로 보면,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의 시부지역과 완주군의 군부지역의 고령 취업자수의 증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특성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추이의 변화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인구의 취업자는 전주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이외에도 익산, 군산, 김제 등이 더욱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취업자수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성 노인 취업자는 여전히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표 2-20〉 전라북도 고령인구 취업자 현황(남자)

(단위 : 천명)

구분	2013 1/2	2013 2/2	2014 1/2	2014 2/2	2015 1/2	2015 2/2	2016 1/2	2016 2/2	2017 1/2	2017 2/2	2018 1/2	2018 2/2	2019 1/2	2019 2/2	2020 1/2	증감
전주시	9.2	9.7	9.2	9.2	12.1	12.5	11.7	12.7	13.0	11.7	13.5	14.6	15.0	16.1	16.6	7.4
군산시	5.9	7.0	7.0	7.3	6.7	5.8	7.0	7.5	7.7	6.0	7.1	7.4	8.4	9.0	9.3	3.4
익산시	7.6	8.3	8.5	8.3	8.7	8.9	8.5	9.2	9.6	7.3	7.7	9.4	10.6	10.7	11.5	3.9
정읍시	5.2	5.3	5.5	5.4	5.6	5.8	6.0	6.0	6.3	5.9	5.9	6.1	6.2	6.5	6.9	1.7
남원시	4.7	5.0	5.0	4.9	4.8	4.7	5.0	5.1	5.1	5.0	5.2	5.1	5.0	5.3	5.2	0.5
김제시	5.6	5.6	5.7	5.7	5.7	5.9	5.6	5.8	6.1	5.1	5.4	5.4	5.6	5.8	6.1	0.5
완주군	3.7	4.0	4.1	4.2	4.4	4.6	4.5	4.5	4.6	4.4	4.7	5.0	5.3	5.5	5.8	2.1
진안군	2.0	2.2	2.0	2.1	2.1	2.2	2.1	2.2	2.3	2.3	2.2	2.4	2.3	2.5	2.6	0.6
무주군	1.9	2.0	1.8	2.0	2.0	2.0	2.1	2.0	2.1	1.9	2.0	2.0	2.0	2.1	2.2	0.3
장수군	2.0	2.0	2.0	1.9	1.9	2.0	2.0	2.1	2.1	2.0	2.0	2.1	2.1	2.2	2.4	0.4
임실군	2.2	2.2	2.2	2.3	2.4	2.6	2.6	2.6	2.6	2.3	2.5	2.6	2.5	2.7	2.9	0.7
순창군	2.2	2.1	2.5	2.3	2.4	2.2	2.1	2.1	2.2	2.1	2.2	2.2	2.3	2.3	2.2	0
고창군	4.0	4.3	4.2	4.3	4.4	4.5	4.7	4.6	4.5	4.2	4.3	4.4	4.2	4.6	4.8	0.8
부안군	3.6	3.7	3.7	4.0	4.2	4.3	4.3	4.4	4.4	4.5	4.5	4.7	4.5	4.7	4.6	1
전체	59.8	63.4	63.4	63.9	67.4	68	68.2	70.8	72.6	64.7	69.2	73.4	76	80	83.1	23.3

자료 : 지역고용조사(각연도)

〈표 2-21〉 전라북도 고령인구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3 1/2	2013 2/2	2014 1/2	2014 2/2	2015 1/2	2015 2/2	2016 1/2	2016 2/2	2017 1/2	2017 2/2	2018 1/2	2018 2/2	2019 1/2	2019 2/2	2020 1/2	증감
전주시	7.0	5.7	4.8	4.9	4.4	5.7	5.7	5.6	5.6	7.4	8.9	9.2	11.9	11.9	13.4	6.4
군산시	4.3	5.0	4.7	6.4	5.3	5.3	5.1	5.9	5.6	4.3	4.6	6.1	6.7	7.3	8.1	3.8
익산시	6.5	6.9	6.3	7.4	6.3	6.9	6.7	7.7	8.6	4.6	4.6	5.8	7.8	9.1	9.7	3.2
정읍시	4.8	5.8	5.7	5.7	5.9	6.4	6.6	6.6	6.7	5.8	6.3	6.5	6.5	7.2	7.5	2.7
남원시	5.3	5.2	5.5	5.5	4.9	5.6	5.4	5.2	5.4	5.5	5.1	5.2	5.5	5.4	4.7	-0.6
김제시	5.5	5.5	5.2	5.9	6.3	6.5	6.1	6.1	6.2	4.5	4.9	4.9	5.4	5.7	6.1	0.6
완주군	3.6	3.7	4.0	4.2	4.6	4.6	4.3	4.6	4.3	4.2	4.2	4.8	5.5	5.6	6.1	2.5
진안군	2.0	2.4	1.9	2.2	2.2	2.3	2.3	2.2	2.2	2.4	2.4	2.4	2.4	2.6	2.7	0.7
무주군	2.4	2.5	2.2	2.3	2.4	2.5	2.3	2.3	2.2	2.2	2.3	2.4	2.4	2.5	2.5	0.1
장수군	2.6	2.5	2.4	2.4	2.5	2.4	2.2	2.5	2.4	2.4	2.6	2.6	2.9	2.8	3.2	0.6
임실군	2.2	2.2	2.1	2.3	2.2	2.7	2.7	2.8	2.7	2.6	2.9	2.9	2.7	3.0	3.1	0.9
순창군	2.5	2.5	2.8	2.7	2.6	2.6	2.5	2.5	2.4	2.6	2.3	2.5	2.5	2.5	2.0	-0.5
고창군	4.1	4.2	4.3	4.7	4.6	4.9	4.6	4.8	4.7	4.7	4.8	5.1	4.9	5.0	5.2	1.1
부안군	4.3	4.7	4.8	5.2	5.6	5.8	5.8	5.9	5.7	5.2	4.9	4.8	4.7	5.3	5.0	0.7
전체	57.1	58.8	56.7	61.8	59.8	64.2	62.3	64.7	64.7	58.4	60.8	65.2	71.8	75.9	79.3	22.2

자료 : 지역고용조사(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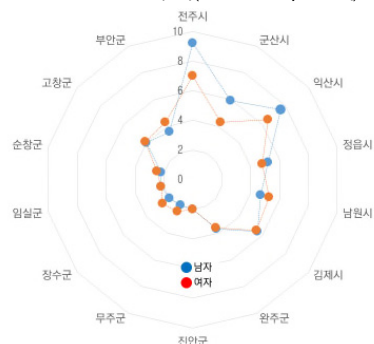
65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자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 취업자는 37.4천명으로 14개 시군 전체 취업자 83.1천명의 4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65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자의 대부분은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군부지역에서는 완주군과 고창군 그리고 부안군이 평균 5만명 전후로 다른 군부지역에 비해서 많았다.

65세 이상 여성고령자의 취업자 추이도 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57.1천명에서 2020년 상반기 79.3천명으로 22.2천명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취업자들도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정읍과 완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세 개 지역에 65세 이상 여성노인 32.1천명이 취업하였고, 이는 14개 시군 전체 취업노인인 79.3천명 4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1〉 지역별 성별 고령노인 취업자수 추이(2020년 1/2분기)



〈그림 2-12〉 지역별 성별 고령노인 취업자수 추이(2013년 1/2분기)



한편, 고령인구는 여전히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18)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66.4%는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활동참여 의사가 없지만 나머지 33.6%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중에서 약 11.2%는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고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도 약 22.5%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지역에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읍면부)에서 다소 높았고,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연령이 적을수록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1분위보다는 소득이 높은 3분위 이상에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았다.

〈표 2-2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지속적 참여욕구

특성별(1)	특성별(2)	일을 하고 싶지 않다 (%)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 (%)
전체	소개	66.4	22.5	1.8	9.4
지역별	동부	68.6	18.9	1.6	10.9
	읍·면부	61.4	30.2	2.2	6.2
성별	남자	57.2	29.1	2.0	11.7
	여자	73.1	17.6	1.6	7.7
연령별	65~69세	52.5	31.5	2.9	13.2
	70~74세	64.0	23.1	1.5	11.4
	75~79세	70.8	20.9	1.5	6.8
	80~84세	82.5	12.2	0.8	4.6
	85세 이상	94.2	3.6	0.3	1.9
결혼상태별	배우자 있음	62.6	25.6	1.8	10.0
	배우자 없음	73.0	16.9	1.7	8.4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71.9	18.2	1.7	8.2
	노인부부	63.5	25.3	1.8	9.4
	재녀동거	67.7	20.3	1.6	10.3
	기타	59.0	26.5	2.9	11.6
교육수준별	무학(글자모름)	80.5	15.3	1.6	2.6
	무학(글자해독)	72.1	19.0	1.6	7.3
	초등학교	65.7	24.2	1.7	8.4
	중학교	58.8	26.8	2.2	12.3
	고등학교	62.3	23.6	1.7	12.4
	전문대학 이상	70.4	16.2	2.0	11.5
연가구소득별	제1오분위	75.1	14.3	1.9	8.7
	제2오분위	70.4	18.4	1.6	9.6
	제3오분위	62.8	25.0	2.3	9.9
	제4오분위	59.5	28.7	1.5	10.3
	제5오분위	63.8	26.0	1.5	8.6
기능상태별	제한없음	61.3	26.0	2.0	10.7
	제한있음	82.6	11.0	1.1	5.2

자료 : 보건복지부(2018) 노인실태조사 raw data

〈표 2-23〉 취업자수 장기전망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취업자수(천명)		21156	23831	24178	22812	20301	17696
취업자증가율(%)		3.5	1.2	0.1	-0.6	-1.2	-1.4
	15-24세	9.0	6.4	7.7	6.5	6.1	6.6
연령별	25-49세	65.8	62.1	56.6	52.6	51.5	48.6
구성비(%)	50-64세	19.8	25.2	29.3	30.3	29.6	31.3
	65세 이상	5.0	6.3	6.4	10.4	12.8	13.5

자료 : 최경수 외(2013); 박경하(201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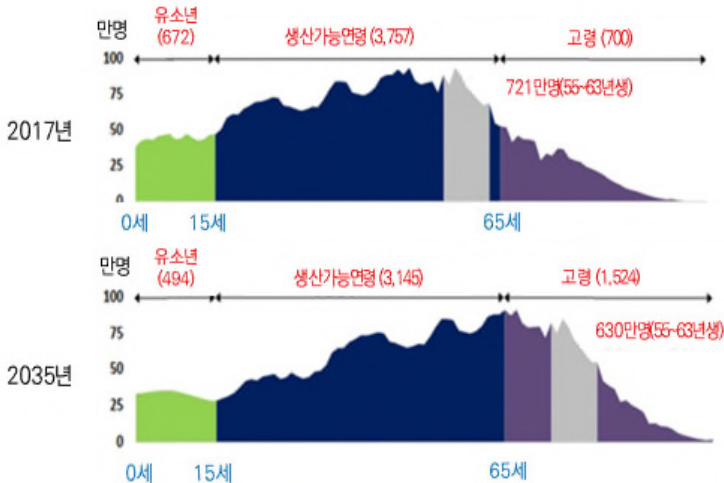
노인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요구로 인해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노인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주로 농가부문의 증가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농가인구의 비율이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전체 취업자의 비중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2000년 전체 취업자 2.12천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5.0%를 차지했지만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 약 1.76천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비중은 13.5%로 크게 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신노인세대의 출현과 일자리패러다임의 변화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수요는 국가의 정부지원 일자리로 수렴해왔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지원대상이 대부분 저소득 노인으로 제한되어 왔고, 지원 내용도 안정적인 소득기반의 제공보다는 소정의 활동수당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부가소득이 필요한 노인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다수 노인이 고령자 혹은 저학력의 빈곤노인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세대는 저학력의 저임금 노인보다는 고학력의 적정임금을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신노인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노인세대는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달리 학력수준이 높고 다양한 전직경험을 보유한 새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저학력 및 저임금의 단순 노무중심의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노인일자리 정책으로는 새로운 노인세대의 고용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함께 신노인세대의 욕구를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의 대상 및 직종 그리고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3〉 연령별 인구와 신노년세대(1955~1963년) 추이



자료 : 김수린(2020)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노년세대 즉 베이비붐세대가 65세의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전체 인구구성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신노년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하는 2020년대에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33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연평균 5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대안으로서 현재 노인인구의 적극적 활용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불가피하다.

신노년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4〉 노년세대별 특성

	학력				건강		가족구성				거주지역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보통 이상	장애	기혼	자녀 동거	기혼 자녀 동거	미혼 자녀 동거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신노년	12.8	17.3	52.6	17.3	90.6	5.2	87.7	51.4	3.5	47.9	15.1	40.4	44.5
노년세대 (A)	25.6	22.7	39.2	12.6	84.2	6.5	86.0	50.3	6.0	44.3	18.1	34.6	47.3
노년세대 (B)	35.5	22.4	30.5	11.5	78.8	8.2	86.9	51.5	9.0	42.5	21.0	31.3	47.7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Jeonbuk Institute

-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대상 노인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인 대상 경제활동 참여 욕구조사는 노인일자리 상담 및 직업연계 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문항은 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 현재 경제활동 참여여부, 현재 경제활동 참여유형 및 참여이유, 급여수준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지속적인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 향후 일자리 참여의사 및 일자리 참여 분야 및 희망급여수준, 희망근로시간 등을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경로, 참여이후 생활,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수혜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현황 및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어려운 점과 개선방향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사는 2020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가 직접 조사한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1〉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방법

대상		조사내용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대상 조사	·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에 대한 인식 · 경제활동참여여부(소득이 있는 근로활동)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의 형태 및 유형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의 참여시기 및 참여이유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의 급여수준 및 만족도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향후 경제활동참여의향(급여, 근로시간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인구학적 특성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경로(이유)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 교육 및 교육만족도 · 향후 교육이 필요한 분야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노인일자리 제공기관 원자료 분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제공인력(담당직원)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형태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 점 · 노인일자리 교육현황 · 노인일자리 향후 개선방향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과 향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적정한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면서 노인일자리 정책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함께 노인일자리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이 같은 정책동향을 먼저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현재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전라북도에 필요한 노인일자리의 적정개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노인일자리 제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원자료를 분석하여 시도별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공공형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분야의 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타 지역은 수행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도 파악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가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 노인대상 수요조사, 수행기관 대상 공급자 조사 그리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여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의 수요에 기초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4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동향 분석

Jeonbuk Institute

-
1.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노인일자리 정책현황 및 동향

제4장.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동향 분석

1.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이 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 적합일자리를 개발하는 연구였다.

가령, 박상우 외(2011)의 연구는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도시유형이나 사회적 경제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심인선 외(2018)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향과 함께 신규 일자리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표 4-1〉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명	주요내용
박상우 외 (2011)	경상북도 지역특성별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전략	· 경북의 특성(도시유형에 따른 특성화 전략, 고령친화적 사회경제모델전략, 도농순환형 경제모델전략)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제시
심인선 외 (2018)	경상남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 노인일자리 사업의 통합적 분석 및 방향제시 ·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존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직무강도에 따른 활동비 차 등 지급, 기업체 지원금 고려, 일자리사업 대기자 DB구축 및 공유 도출, 노노케어 사업대상자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제시 · 신규과제로 가정어린이집 통학차량 도우미 지원, 산후도우미지원 사업단, 실버 나레이터 모델, 초등학교 등하교도우미 워킹스쿨버스, 노노(老老) 정 보제공자 양성 및 활동, 어린이 정서지원) 제안
최승호 (2019)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안 (시니어클럽 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 시니어클럽 사업의 문제점 분석(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목표 명료화, 하향식 노인일자리늘리기 정책 지양, 노인일자리조례 내용 보완 및 실효성 담 보, 충북지역 노인일자리 통합조정시스템 필요, 노인일자리 수요 및 실태 조사 등)후 대안 제시 · 시니어클럽 지원방안 제시(초기 투자비 지원, 60+교육센터 설치, 민간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 위상 강화)
장경호 외(2011)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방향으로 농촌공동체 재구축 지향,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의 통합적 접근 필요, 농촌 노인의 자발성, 지역사회 공생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 농촌지역특성과 농촌노인 특징 고려 등 제시 · 농촌노인일자리 추진 방식으로 주제발굴 및 사업조직의 단계별 육성 필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인큐베이팅 중요, 네트워크 강화, 노인 자 발적 모임 활성화, 지속적인교육사업 전개
황경란 외(201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공익활동 근로자성 인정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가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고소득 시장형일자리창출 위한 퇴직자 기업과의 협력체계 필요, 전담인력 임금현실화 및 근무기간안정화 등 제시

전술한 연구들이 주로 노인일자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에 맞는 노인적합 일자리의 유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최승호(2019)의 연구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시니어클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최승호(2019)의 연구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불명확성,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하향식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문제진단에 기초하여 향후 시니어클럽의 과제로서 초기 재정자금의 지원, 베이비붐세대의 직업훈련을 위한 60센터의 설치 그리고 민간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의 위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전술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도 노인일자리 상당수가 시니어클럽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니어클럽 중심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개선방향은 향후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정책을 농촌지역에 특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형 일자리를 제안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장경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와 유사한 인구학적·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농촌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하였다. 장경호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농촌의 혁신전략과 연계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촌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와의共生성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 등을 기반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추진방식으로는 일자리 수행기관 및 사업조직의 단계별 육성과 함께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인큐베이팅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간의 네트워크와 상호연계 강화, 여기에 노인의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 노인대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역량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제언은 충남과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분석과 분석결과를 토대한 지역단위의 노인적합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 경상북도(박상우 외, 2011)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① 도시유형에 따른 특성화 전략, ② 고령친화적 사회경제모델전략, ③ 도농 순환형 경제모델전략 등 3가지를 제시하다. 도시유형에 따른 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경북의 2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촌형으로 구분하였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형 일자리 창출은 도시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노인 인력활용, 도시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재분류를 하는 자원순환사업, 공원청소 및 꽃밭 가꾸기 등 환경보호사업, 아파트 관내 노인인력을 활용한 아파트택배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농복합형 일자리는 도시재생의 관점과 농촌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업을 제안하였다. 전술한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하는 도시 재생화사업, 도시인근의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는 채소를 판매하는 유기농 청정채소사업, 도시근교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의 공공단체나 학교급식 등에 제공하는 협동농장운영사업, 사유지를 무상임대받아 생태정원을 조성하는 희망의 정원사업 등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산촌형 일자리는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박상우 외(2011)는 도시유형별 노인적합 일자리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DB화 사업,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의 성장발달환경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보육지원사업, 공동작업장의 수익화 사업인 실버쇼핑몰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농순환형으로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사업, 친환경 비즈니스 창출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심인선의 연구에서는 노인적합일자리로 크게 가정 어린이집 통학차량 도우미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지원사업단 운영, 실버 나레이터 모델,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워킹스쿨버스, 노-노 정보제공자 양성 및 활동사업 그리고 어린이 정서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표 4-2〉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박상우 외 (2011)	도시형	대형마트 노인인력 활용사업, 도시광산사업, 녹색환경지킴이 사업, 아파트 택배 사업
	도시 유형	도시재생활사업, 유기농 청정채소사업, 협동농장 운영사업, 희망의 정원사업
	도시	귀농귀촌 지원사업, 농촌어메니티지원 DB화 사업, 다문화가정 보육지원사업, 폐농자재수거사업, 실버쇼핑몰사업, 자활생산물 홍보판매사업, 실버 스토리텔러 육성화 사업, 지역 문화자원 발굴단 사업, 로컬푸드활용 농가형 레스토랑 사업, 노인인력활용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산림환경분야 GIS정보 구축사업, 농업환경분야 GIS정보 구축사업, 묘지실태조사 사업
	농산촌형	
	고령 친화	문화재 관리활용사업 경상북도의 풍부한 문화자원에 대한 관리영역의 일자리 창출 필요
		전통고택문화재 문화재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필요
		전통고택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지역의 산업구조와 물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자원의 순환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역할
	도농 순환형	물질흐름 분석을 위한 DB구축 사업 물질흐름분석에 기초한 지역내 자원과 에너지순환정보, 관련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사업 우드칩 열병합 발전소, 우드펠렛 보일러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제공
심인선 외 (2018)	친환경 비즈니스 창출사업	폐기물 재활용 사업화, 재생에너지 사업화, 도시광산 사업기반 지원 등
	가정어린이집 통학차량 도우미 지원사업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노인일자리인력을 배치하여 통학차량 승하차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소
	산후도우미지원 사업단 운영	산후도우미 미지원 가정에 산후도우미인력을 파견하여 아이돌봄, 산후조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버 나레이터 모델 초등학생 등하교도우미 워킹스쿨버스	실버나레이터 교육이수 및 실습을 통해 기업 및 관공서 행사도우미 활동 등하교 동행도우미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
	노-노 정보제공자 양성 및 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정보에 취약한 노인에게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로 활동
장경호 외(2011)	어린이 정서지원 사업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이동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인성교육을 제공
	농촌공동체 재구축 지향	농촌노인일자리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미래세대의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농촌공동체의 유지가 중요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	로컬푸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사업과 연계 전통문화, 역사교육, 음식문화 등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연계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의 통합적 접근 필요	단순한 노인일자리마련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전략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필요
	농촌 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강화	하향식 일자리가 아닌 민간주도, 일자리 수행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의 확립으로 노인일자리의 성과와 참여만족도 증진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일자리운영시스템구축 등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요
	농촌지역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 고려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장경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으로 농촌공동체의 재구축 그리고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 농촌 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 공생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 농촌지역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고려한 일자리의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노인일자리 정책현황 및 동향

가. 중앙정부 노인일자리정책 현황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본 사업이 추진된 2004년에는 공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그리고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이었고,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이 개발되어 왔다. 최근 민간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시니어인턴십과 고령친화기업 등의 유형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리고 2014년에 공익형 봉사활동사업으로 재능나눔활동이 추가되었고, 2017년도에는 민간분야의 일자리 영역인 기업연계형 사업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사업이 추가되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에는 공익형에서 최근에는 민간의 시장형 사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사회활동과 일자리의 두 개의 축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활동성격과 예산구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활동성격에 따라서는 봉사형태인 사회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분류되고 근로형태인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등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예산구조에 따른 분류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는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그리고 기업연계형 등이 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의 형태가 봉사형태인지 아니면 근로형태인지 그리고 예산의 지원구조가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3〉 노인일자리사업 분류

구분	범주	사업
활동성격	노인사회활동(봉사형태)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노인일자리(근로형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예산구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민간경상보조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분류 재구성

〈표 4-4〉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및 사업내용

유 형	내 용		대상	평균 월보수* (만원)	규모 (천명)	월 평균 활동시간 **
계				740		
공공 형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	기초연금 수급자	27	543	30시간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만60세	10	30	10시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		만65세 이상	65	37	60시간
민 간 형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만 60세	31	60	30시간
	취업 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바·청소·가사·간병인 등)		134	50	-
	시니어 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170	18	-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95	2	-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20년 노인일자리 관련 내부자료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74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20년에 만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체계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서울시는 30%, 지방은 50%가 보조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자체를 거쳐 약 1.3천개에 이르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19년도에 약 64만개에서 2020년도에 74만개로 약 10만개 확대되었다. 이 같은 노인일자리 확대는 당초 목표인 80만개 일자리에 근접한 것으로 2020년에 이어 노인일자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일자리의 확대에 따라 관련 일자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66개소, 노인회 207개소, 지자체 159개소 그리고 시니어클럽 161개소 등 총 1,291개소이다.

한편, 국가차원에서 노인일자리의 확대에 의해 전라북도에서 노인일자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는 5.5만개로 2019년 4.9만개에서 약 1.6만개 정도 증가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약 32.6%p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물론 전라북도의 노인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노인일자리의 확대는 일정정도 빈곤한 저소득노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공공형은 주로 노인일자리 내용의 공익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매월 지원되는 급여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7만원이다. 2020년에는 공공형일자리도 월 30시간 3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공익활동지원 일자리의 경우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되는 반면, 재능나눔 일자리는 만60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익활동은 주로 노노케어나 보육시설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의 지역사회공익증진을 위한 사회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능나눔사업은 노인의 자격과 재능을 활용한 학습지도나 상담안내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노인의 경력을 활용한 돌봄 등의 지원인력으로 활용되는 일자리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에 대응하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의 돌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월 60시간으로 최대 59.4만원을 지원받는다.

2019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74.0만개가 제공되었고, 이중 공공형으로 573만개(77.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형이 13.0만개로 전체 노인일자리 17.5%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약 3.7만개 이다.

〈표 4-5〉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유형	내용	대상	지원	전달체계
계				
공공형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노케어, 보육시설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	기초연금 수급자	월 27만원 10개월 활동비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만60세	월 10만원 6개월 활동비	노인복지관 노인회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 무지원 등)	만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 및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채용	월200만원 사업비	시니어클럽 등
	취업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시니어 인턴쉽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연 최대 270만원 인건비보조	민간 운영기관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 고용기업 설립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최대 3억원 사업비	기업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20년 노인일자리 관련 내부자료

〈표 4-6〉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60) · 부부가구소득(60)	· 기초연금미수급(20) · 기초연금 12.5만원 이하 수급(10) · 기초연금수급(0)	· 단독가구(35) · 부부가구소득(35)
			· 기초연금수급여부(10~20) · 기초연금미수급(0) · 차상위계층자격(20)
참여경력	· 신규참여여부(5)	· 활동경력 5년+(40) · 활동경력 1~5년(20) · 활동경력 1년-(10) · 활동경력없음(0)	· 노인일자리 중도포기경험(10)
			· 관련분야 자격소지(30) · 관련경력(0~10년)(25)
세대구성	· 경제력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부부(15) · 독거노인가구(10) · 부부노인가구(5) · 경제력있는 가족동거(0)	· 경제력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부부(15) · 독거노인가구(10) · 부부노인가구(5) · 경제력있는 가족동거(0)	· 경제력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부부(20) · 독거노인가구(15) · 부부노인가구(10) · 경제력있는 가족동거(0)
활동역량	· 보행능력(10) · 의사소통(10)	· 보행능력(10) · 의사소통(10)	
관련분야 자격보유		· 관련분야 국가자격(30) · 관련분야 민간자격(20) · 관련분야 교육수료(10) · 관련분야 자격없음(0)	
담당자 의견	· 참여적극성(5) · 건강상태등 활동능력(5)	· 수행기관 접합성 판단(10)	· 참여적극성(5) · 건강상태등 활동능력(5)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에 있다는 점에서 선정과정에서 소득인정액과 세대의 구성 등의 소득 및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참여경력이나 활동역량 그리고 관련분야의 자격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공익활동은 사회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참여경력 그리고 세대구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대 구성에서는 부양가구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재능나눔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전직경험에 기초한 사회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경력과 관련분야의 자격보유 등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된다. 가령, 관련분야의 자격에서는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그리고 교육수료 등의 제반 자격이나 교육의 이수 등에 따라 배점 기준이 상이하게 부여되어 있다. 이외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단은 소득기준과 참여경력 등의 일반적인 사항이외에 수행기관의 적합성 판단 그리고 참여자의 적극성 등도 함께 평가하여 민간분야의 안정적인 매출이나 시장성 확보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공공재원으로 충당되는 공공형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공공형일자리란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임금수준도 민간형 일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고용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라북도과 같이 고령화 수준은 매우 높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은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시장과 함께 노인일자리를 책임지는 민간형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1년 노인일자리 개수는 약 22.4만개에서 2019년 68.4만개로 약 세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전체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익활동 일자리는 2011년 19.4만개에서 2019년 50.4만개로 약 30만개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활동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65%에서 2019년 73.7%로 다소 감소하였다. 전체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활동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활동일자리는 70%이상을 차지한다.

공익활동 이외의 노인일자리의 영역별 비율을 보면, 시장형 사업단이 2019년 기준 약 6.7만개로 9.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재능나눔 4.7만개(6.9%), 그리고 취업알선형 사업 2.8만개(4.1%) 등의 순이다.

〈표 4-7〉 노인일자리 일자리 창출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익활동(b)	194,480	217,710	227,439	269,244	305,140	290,625	359,932	405,134	504,206
전체(a)	224,655	248,306	261,593	336,431	385,963	429,726	496,200	543,926	684,177
공익형 일자리 비율(b/a)	86.57	87.68	86.94	80.03	79.06	67.63	72.54	74.48	73.70
사회서비스형	-	-	-	-	-	-	-	-	23,548 (3.44)
재능나눔	0 0	0 0	0 0	30,609 (9.10)	40,847 (10.58)	40,163 (9.35)	44,714 (9.01)	52,153 (9.59)	47,367 (6.92)
시장형사업단 (구성비)	14,967 (6.66)	16,101 (6.48)	17,680 (6.76)	19,764 (5.87)	22,889 (5.93)	77,734 (18.09)	64,573 (13.01)	54,585 (10.04)	66,972 (9.79)
취업알선형 (구성비)	10,380 (4.62)	9,349 (3.77)	10,397 (3.97)	10,514 (3.13)	9,730 (2.52)	21,557 (5.02)	17,039 (3.43)	20,067 (3.69)	27,718 (4.05)
민간형	3,643 (1.62)	3,612 (1.45)	4,500 (1.72)	5,103 (1.52)	6,176 (1.60)	6,730 (1.57)	5,268 (1.06)	5,686 (1.05)	7,349 (1.07)
시니어인턴십 (구성비)	1,185 (0.53)	1,534 (0.62)	1,577 (0.60)	1,197 (0.36)	1,181 (0.31)	1,917 (0.45)	1,332 (0.27)	1,708 (0.31)	1,344 (0.20)
고령자친화기업 (구성비)	-	-	-	-	-	-	3,342 (0.67)	4,593 (0.84)	5,673 (0.83)
기업연계형 (구성비)	-	-	-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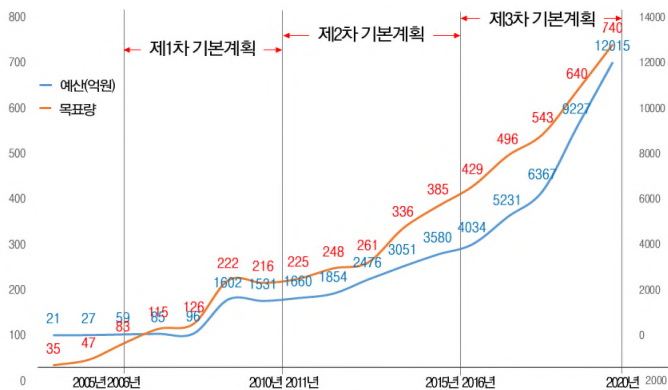
〈표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2006~2010	2011~2015	2016~2020
기본방향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 반 조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주요계획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지원
노인일자리 추진목표	21만개	33만개	8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21만개	38만개	74만개
달성률	100	115	92.5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3차 각 자료 재구성

이처럼, 정부지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배정
량에 대한 적정성 분석과 함께 노인일자리의 창출분야로서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공익형
과 함께 시장형 일자리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노인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 동향과 연계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아울러 전라
북도의 지역상황에 맞게 다원화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체계 개편 방향 제시하기 위한 노
력도 필요하다.

〈그림 4-1〉 노인일자리사업 목표량 및 예산 추이 (명, 억원)



한편, 국가차원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
부분의 노인일자를 확대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목표로 노인일자리를 약 8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도 말까
지 노인일자리 창출 개수는 약 74만개로 목표대비 달성율이 92.5%에 이른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공형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도 확대하고 있다. 2020년에도 시니어 인턴십이나 취업알선형 일자리 등 민간분야 일자리를 포함하여 노인일자리를 2019년 64만개에서 10만개 늘어난 74만개까지 확대하고 관련 지원기간도 종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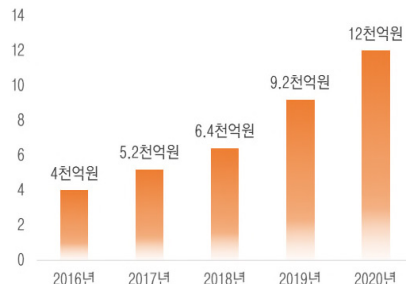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함께 관련 정부의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는 2015년 39만개에서 2017년 50만개 그리고 2019년도에는 총 64만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예산도 2015년 3.9천억원에서 2019년 6.4천억원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12천억원으로 약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국가계획에서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이상 향후에도 이 같은 노인일자리 예산의 확대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0)에 따라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약 80만개 창출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지원센터 등 대상시설의 돌봄지원인력)에 일자리 신설을 통해 신규일자리 약 2만개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형 일자리는 2018년 4.9만개였고 2019년도에는 이보다 약 1만개 이상 증가한 6.0만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고령친화기업도 2018년 1.8천개에서 2019년 2.3천개로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의 확대정책이 주로 공공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0)에서는 복지수요에서 집중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분야의 노인일자리 확대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2〉 노인일자리 개수 추이



〈그림 4-3〉 노인일자리 예산추이



다만, 2019년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익활동이 44.6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장형 5.4만개, 재능나눔 4.6만개, 사회서비스형 1.9만개, 인력파견형 1.18만개 그리고 시니어인턴십 4.3천개, 기업형 2.2천개 마지막으로 고령친화기업 9.4백개 등으로 전체 약 58.6만개의 일자리 중에서 공익활동이 44.6만개로 76.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정책의 확대는 국가의 주요 사회보장계획에도 반영되어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창업지원체계 구축,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및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9〉 노인일자리 정책 경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제1차(2014~2018)	제2차(2019~2023)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선 ·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 중고령층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 사회적 기업 육성 · 시니어 창업지원 ·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 에이지 캠페인 실시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 정년연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확대	·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

〈표 4-10〉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요약

1차(2013년)	2차(2018년~2022년)												
• 재정지원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 참여보수(월 20만원→월 30만원 인상) · 복지형일자리 중심 참여보수 인상(월 40만원) ※ 복지형 일자리 : 노노케어,지역아동센터,아동돌봄,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table><tr><th>구 분</th><th>현행('13)</th><th>개선('17)</th></tr><tr><td>일자리 수</td><td>23만개</td><td>43만개</td></tr><tr><td>노인일자리 (공익·교육형)</td><td>9개월 / 월20만원</td><td>10개월 / 월30만원</td></tr><tr><td>노인일자리 (복지형)</td><td>9개월 / 월20만원</td><td>12개월 / 월40만원</td></tr></table> · 사회공헌 활동기회부여를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충 확대	구 분	현행('13)	개선('17)	일자리 수	23만개	43만개	노인일자리 (공익·교육형)	9개월 / 월20만원	10개월 / 월30만원	노인일자리 (복지형)	9개월 / 월20만원	12개월 / 월40만원	• 일자리 참여자 역량 및 보호강화 · 노인적합직무 추정지표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 · 개인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개발, 연계지원 · 실버보험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 노인일자리 인프라 강화 · 60플러스 DB 구축(노인일자리 관련 기관들간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및 매칭서비스 제공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운영 · 민간노인일자리 성장체계 구축 · 우수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품질인증)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협동조합 등이 수행기관 및 수요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급여(135만원)를 시도 전담인력급여의 90% 수준까지 인상, 고용기관 확대(11개월→12개월) •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확대 · 시니어 인턴십 개편(지원단가, 채용성공보수 등 차등화 및 평가체계 개편) ※ 시니어인턴십 주요취업직종 : 시설관리원(27.7%), 운전 및 운송종사원(11.7%) ·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기업연계형 일자리 개편) ※ 기술전수가 용이한 분야 발굴 지원 · 고령친화기업 개편(우수노인고용기업) · 시장형 사업단 자립촉진 •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강화 · 시니어 사회공헌단 도입(베이비부머 연계) ※ ex, 치매공공후견지원, 시니어 취업컨설팅센터, 임원자 상담, 공공사회복지도우미, 시니어강사 등 · 공익활동수당 인상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전주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 제주 올레길 이야기 할머니 등)
구 분	현행('13)	개선('17)											
일자리 수	23만개	43만개											
노인일자리 (공익·교육형)	9개월 / 월20만원	10개월 / 월30만원											
노인일자리 (복지형)	9개월 / 월20만원	12개월 / 월40만원											
기대효과	• 노인빈곤 완화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사회서비스 연계형 노인일자리 확대 • 민간분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확대 및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확립 • 노인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활성화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8)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주요내용 재구성

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서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보호강화 그리고 노인일자리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세부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는 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시니어 사회공헌단 도입 등의 사업을 통해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표 4-11〉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

연도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 (A)	노인일자리 수 (B)	수요충족률 (B/A)
2015	119.0만	37.0만	31.1%
2016	123.1만	41.9만	34.0%
2017	114.5만	46.7만	40.8%
2018	119.4만	51.3만	43.0%
2019	124.5만	64만	51.4%
2020	131.6만	74만	56.2%

자료 : 남인순(2020) 국정감사 자료

한편, 국가의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에 따른 수요충족율을 보면,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131.6만명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약 74만명으로 수요충족율은 56.2%에 이른다. 노인일자리 수요충족율은 2015년 31.1%에서 2017년 40.8% 그리고 2020년에 56.2%로 약 두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4-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관별 참여현황

(기준 : '20.08.31., 단위 : 명, %)

구분	합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계	656,548	100.0	544,590	100.0	37,202	100.0	62,176	100.0	12,580	100.0%
지자체	103,261	15.7	101,829	18.7	611	1.6	821	1.3	0	0.0
시니어클럽	214,389	32.7	144,188	26.5	19,587	52.7	45,310	72.9	5,304	42.2
대한노인회	100,255	15.3	92,430	17.0	2,606	7.0	4,811	7.7	408	3.2
노인복지관	105,407	16.1	94,284	17.3	6,241	16.8	3,612	5.8	1,270	10.1
종합사회복지관	40,350	6.1	37,912	7.0	1,351	3.6	938	1.5	149	1.2
노인복지센터	28,962	4.4	26,424	4.9	1,675	4.5	738	1.2	125	1.0
지역문화원	1,486	0.2	1,372	0.3	100	0.3		0.0	14	0.1
기타	62,438	9.5	46,151	8.5	5,031	13.5	5,946	9.6	5,310	42.2

자료 : 남인순(2020)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65.6만개의 일자리 중에서 공익형이 54.4만개로 전체 노인일자리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형 6.2만개, 사회서비스형 3.7만개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공익형에서 창출되고 있다.

〈표 4-13〉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현황 (2020. 8월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군구	229	25	16	8	10	5	5	5	1
설치	176 (161)	17	16	8	2	5	5	5	1
비율(%)	76.9 (70.3)	68.0	100.0	100.0	2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31	18	11	15	14	22	23	18	2
설치	20 (19)	13	11(6)	13	15(12)	10	14	19(13)	2
비율(%)	64.5	72.2	100.0(54.5)	86.7	107.1(85.7)	45.5	60.9	105.6(72.2)	100.0

나.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정책 현황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정책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과 유사하게 전라북도에서도 노인사회활동으로 노노케어와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사업단 그리고 기타사업 등으로 취업형이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상담과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공공시설봉사활동의 경우 도서관관리,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그리고 학교급식 도우미와 환경정비, 스쿨존 등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경륜전수활동의 경우 노노케어 교육강사, 체육건강 강사 파견, 그리고 숲해설 등의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표 4-14〉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유형	단위사업	지원기준	대 상	사업기간	예 시
노인 사회 활동 (공익 활동)	노노케어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한부모가정 방문 상담, 정서지원 서비스,
	공공시설봉사	활동비 1인당/월 27만원 부대경비 년 14~16만원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근로자 미해당	9~12개월	도서관 관리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 지원, 환경정비, 학교급식 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등
	경륜전수활동				노-노교육 강사, 체육건강 강사 파견, 숲해설 등
노인 일자리 취업 형	사회서비스형	활동비 시간당 9천원 (1인당/월 54만원 이상) 부대경비 년 48.9만원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0개월 이상	취약사회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보육,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노인시설 등)
	공동 작업형		만 60세이상 (기초연금미수급자 참여가능)		소림백제자, 영농사업, 짚물공예 등
	시장형 제조 사업단 판매형	1인당/연간 230만원 * 창업시 설립비용 3억이내 지원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로 봄	연중	참기름, 천연비누제조, 택배사업, 세탁사업 등
	서비스 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등 교육지원
	인력파견형 사업단	부대경비 연 15만원			시험감독 파견, 가정도우미, 주유원 파견사업, 식당보조원 등
	기타사업	· 시니어클럽 운영, ·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 노인일자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 기업체 전수조사		· 수행기관전담인력지원 · 시장형 인센티브 · 노인회 사회적일자리사업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취약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쇼팽백 제작, 영농사업, 짚불공예, 참기름이나 천연비누 제조, 택배사업, 세탁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형 사업으로는 시험감독 파견, 가정도우미, 주유원 파견사업 그리고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등이 대부분의 사업이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총 3.9만개의 일자리에 대해 약 1,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0년도에는 총 5.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관련예산만 2,0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9년도의 예산구성을 보면, 국비 556억원, 도비 229억원 그리고 시군비 364억원 등이고, 2020년도에는 국비 1,055억원, 도비 386억원, 시군 603억원 등이다.

각 사업별 예산을 보면, 공익활동에 약 8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취업형에 약 2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예산이 공익활동에 투입되었다. 취업형의 경우 일자리 개수는 시장형 사업단이 약 3.8천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력파견형 1.6천개, 사회서비스형 1.1천개 등의 순이다.

〈표 4-15〉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추진내역(2019년)

유형	단위사업	사업량	예산액(단위 : 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
총계		54,870	204,396,552	105,506,400	38,581,128	60,309,024
공익 활동	소계	47,400	160,536,798	85,861,599	29,870,080	44,805,119
	소계	7,913	58,034,652	24,447,174	11,485,125	22,102,353
취업형	사회서비스형	2,350	18,534,456	9,267,228	3,706,891	5,560,337
	시장형 사업단	4,120	11,000,400	5,500,200	2,200,080	3,300,120
	취업알선형	1,000	150,000	75,000	30,000	45,000
	소계		14,174,898	4,802,373	2,774,077	6,598,448
기타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15개소	4,190,320		454,096	3,736,224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377명	9,540,746	4,770,373	1,908,149	2,862,224
	도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	43,832	12,000	31,832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6명	244,000		244,000	
	노인일자리양성 맞춤형 교육	-	26,000		26,000	
	네트워크 구축사업	-	40,000	20,000	20,000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 사업	44명	90,000		90,000	
	소계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표 4-16〉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구분	유형	사업내용	수행기관
공익 활동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거동불편노인,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보육시설, 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교통지원 등	
	경륜전수 활동	노-노교육 강사, 체육건강 강사 파견, 숲해설 등	시니어클럽 13개
시장형	공동작업형	쇼핑백 제작, 공·고사리 재배, 짚풀공예 등	도시군일자리센터 15개소
	제조판매형	참기름, 장류, 천연비누 제작판매, 공원관리, 재활용사업 등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 등 14개
	서비스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등	노인복지관(15개소)
	관리사무종사자	행정, 경영, 회계관리, 여행상담 등	종합복지관(14개소)
인력 파견형	공공/전문직 종사자	교육강사, 보육교사, 시험감독관, 번역 등	노인복지센터 (13개소)
	서비스종사자	요양, 간병, 패스트푸드원, 택배원 등	노인대학 1개/문화원 1개
	판매종사자	매장계산원, 주유원, 상점판매원 등	기타 3개 등 총 110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곡식, 채소 및 특용작품 등 재배업, 임산물 채취 등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정육원, 밀반찬제조 종사원, 목재·악기 기능직 등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청소 및 환경미화원, 과실 및 채소가공, 소분 등	
		생산제조업	생산협동조합,
시니어 인턴쉽	일반형	식품제조업	식품회사,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전략직종형	주유소 및 세차장	LPG충전소, 주유소, 세차장
	장기취업유지형	급식업체	농업회사법인
		편의점	마을단위 편의점(GS 등)
		사회서비스	어린이집, 재가복지센터,
			노인요양원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인력 파견형은 주로 관리사무종사자, 공공 및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의 기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다. 가령,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요양, 간병, 패스트푸드원, 택배원 등의 사업에 파견되고 있고, 판매종사자는 매장계산원, 주유원, 상점 판매원 등의 사업체에 파견되고 있다. 농도의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어업숙련종사자로도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곡식이나 채소 그리고 특용작물 등의 재배업과 임산물 채취 등의 사업에도 인력파견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그리고 인력파견형 사업은 주로 시니어클럽, 도와 시군의 노인일자리센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시니어인턴쉽은 생산제조업과 식품제조업, 주유소와 세차장 그리고 급식업체와 편의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장으로는 생산협동조합, 식품회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LPG충전소와 주유소, 세차장 그리고 마을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4-17〉 사회서비스형의 사업유형

유 형	세 부 사 업 내 용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귀가지원, 급식지원 등
가정 서비스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서비스 지원	·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보조 등 · 치매노인 대상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 시니어 소비파해 상담, 컨설팅 및 예방지원 등
기타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주로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가정서비스 지원, 그리고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서비스지원 및 상담과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지원의 경우 보육교사나 돌봄서비스, 아동등하교 지원 그리고 급식지원 등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서비스의 경우도 한부모가족과 새터민 등의 교육과 정착지원 등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서비스는 보호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보조와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의 이동보조와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는 주로 시니어계층의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표 4-18〉 시장형 사업단 주요 사업 내용

유 형	세 부 사 업 내 용
반제품 제조 및 판매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아파트택배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철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세차 및 세탁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 제공
기타	· 기타 제조판매 사업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표 4-19〉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구분	개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군 및 노인일자리센터	15	14개 시·군,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	15	전주, 전주서원, 효자, 군산, 전북익산, 원광효도마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반딧불, 장수, 임실, 고창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16	전주시지회 등 14개 시·군 지회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전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14	전북, 금암, 꽃발정이, 서원, 안골, 양지, 덕진, 금강, 정읍시, 정읍시북부,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북한노인복지타운,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13	군산, 동산, 부송, 원광, 길보른, 김제, 김제제일, 김제노인, 부안, 익산시, 평화, 군산노인, 남원
(재가)노인복지센터	30	동부, 보은, 북익산, 신광, 원광효도마을, 성공회행복, 하늘향, 남원, 인월, 김제, 성암, 구이, 명지, 예은, 완주, 용진, 운주, 이서, 단양, 순창, 창북,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함깨하는, 임마누엘, 진안,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효림, 어울림, 사랑방노인복지함열, 고창원광
노인(평생)대학	1	군산직접사평생대학
문 화 원	1	김제문화원
기 타	3	익산새노인운동본부, 순창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합 계	108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주로 노인일자리센터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등 14개 지회가 16개로 재가노인복지센터 다음으로 많고, 시군 노인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이 각각 15개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14개소 복지관 13개소 등이 노인일 자리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상당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시니어인턴십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82개의 기관에서 약 245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2015년 288명에서 2020년 245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는 사업체수는 약 세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4-20〉 시니어인턴십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명)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비	계획	실적	사업비	계획	실적	사업비	계획	실적
436	110명	288명(72개소)	571	210	328명(81개소)	290	121	121명(51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사업비	계획	실적	사업비	계획	실적	사업비	계획	실적
341	110	103명(44개소)	270	94	137명(75개소)	756	300	245명(82개소)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표 4-21〉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유형	사업내용
취업종합지원 (사후관리 포함)	· 주요사업 : 노인 구직자 등록, 구직자 상담, 동행면접, 사후관리 · 취업직종 : 제조서비스, 경비원, 청소원, 운송업, 조리원, 현장 관리원 등 · 취업인원 : 연평균 2,500명
방문형 구직상담	· 센터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14개 시군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 제공
채용박람회	· 60세 이상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 채용박람회를 통한 구인자-구직자 매칭서비스 제공
노인맞춤형 취업교육	· 기업맞춤형교육 : 주유, 경비, 서비스, 간병, 산모도우미 등 · 지역특화교육 : 농촌일손도우미, 수목관리사, EM생활지도사 등 · 취업사전교육 : 기초소양교육, 직장예절교육, 면접 및 이력서작성 등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지원 : 폭염안전, 직무안전 예방교육 등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교육	·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실무자 대상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대응 교육
노인일자리 조사연구사업	· 지역노인 대상 취업관련 욕구조사 · 지역노인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및 사업 개발
노인일자리 포함 개최	· 14개 시군 일자리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 일자리 유관기관 등 실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방향 모색 및 제언을 위한 포럼 진행
전라북도 기업체 간담회	· 전라북도 소재 기업체 대상 노인일자리센터 사업설명회 및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설명회 · 기업체 대상 노인채용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후 향후 노인일자리 발전방향 토론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기관간 네트워크 증진 제고 ·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방향 논의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MOU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노인일자리 사업성과 제고
노인채용 우수기업에 인증	· 전라북도 노인채용 우수 민간사업장 대상 현판을 증정 후 홈페이지 등록하여 기업체 홍보 및 노인생산물 판매 지원
노인채용기업체 컨설팅	· 노인채용 기업체 대상 노무 / 법무 / 세무 컨설팅 무료지원
노인생산물 홍보 및 전시	· 전라북도 노인채용 우수 민간사업장 대상 생산물 홍보 및 전시 지원으로 민간 사업장 성장 지원
고령우수사원 워크숍	· 장기근속 노인을 위한 힐링의 장 제공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한편,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노인일자리 확대, 특히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광역차원에서 노인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센터의 주요사업을 보면, 취업종합지원과 함께 방문형 구직상담, 채용박람회, 노인맞춤형 취업교육, 노인일자리 포럼 등의 사업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와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체와의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차원의 노인일자리센터는 광역시도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의 일부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22〉 고령자친화기업 현황

선정	기 관 명	월평균 급여	지원 예산	사업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5개소					100	75	72	32	70	58	53	48	110	101	80	71	95	86
12.7.	김제지평선(김제)	55만원	230	친환경 농산물 선별 가공	30	4	30	10										
13.4.	(주)위산업 (주)농민농산(군산)	60만원	160	간편조리 식품제조	15	17	15	4										
14.5.	카멜레온(전주)	65만원	200	파충류, 곤충류 사육판매	13	16	10	5	5	5								
14.8.	고마음(악산)	120만원	257	고구마이용 목가공,유통	17	19	17	13	17	13								
15.7 (16.5)	새참수레2호점 (완주시니어클럽)	70만원	300	뷔페식 농가레스토랑					13	10	13	13	15	15				
16.6.	크린시니어 (남원시니어클럽)	80만원	129	청소사업단					35	30	40	35	40	40				
	(주) 남원부각 (남원시니어클럽)	80만원 목표	300	HACCP인증 부각, 김스넥 제품 생산 및 판매							20	20	20	20	20	20	20	
17.6.	(주) 견주사랑 (주)코리아펫푸드	100만원 목표	250	애완동물 수제간식 제조							15	10	15	10	15	10		
	(주) 홍익월드 (주) 코리아하이테크	80만원 목표	250	실내청소 등 용역사업							20	16	20	16	20	16		
	전북노인 일자리센터	44만원	100	드림카페 운영 *음료,커피제조 판매											5	5	5	5
18.6.	전주호자 시니어클럽	60만원	150	실버카페											6	6	6	6
	전주 시니어클럽	60만원	200	또바기 식당운영											6	6	6	6
	(주)순창 문옥례식품	80만원	300	실내청소 등 용역사업											8	8	8	8
19.5.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회	60만원	200 (3년분 할교부)	한식뷔페 전문점 마실밥상													10	10
	전안 시니어클럽	60만원	100 (일시)	마이산 정기담은 고원한과													5	5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고령친화기업은 총 15개소이고, 이들 기업은 2012년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개, 2014년 2개, 2015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개의 고령친화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었고,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3개의 고령친화기업이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전라북도의 고령친화기업의 업종별로 보면, 농산물과 식품제조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사업단과 실내청소 등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식뷔페나 실버카페, 한과제조 등의 사업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전라북도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9년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두 개 기업은 총 15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7년도에 선정된 3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은 총 46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향후에도 식품과 제조분야 그리고 노인적합직종분야에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이 다수 선정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총 5.6만개의 노인일자리 중에서 전주시가 9.6천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9.4천개, 군산이 7.3천개, 김제 5.4천개, 정읍 4.6천개 등의 순이다. 전체 5.6만개의 노인일자리 중에서 전주와 군산, 익산 등이 약 2.6만개로 전체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

구 분	총 계		공익활동형 (중도포기자수 제외)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소계		노노 케어	취약 계층 지원	공공 시설 봉사	경륜전수 봉사						
	사업단	참여 자수	사업단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사업단	참여 자수	사업단	참여 자수		
합계	724	56,180	461	48,021	6,841	467	39,352	1,361	111	2,707	152	4,451	1,001	
전주	149	9,640	84	7,409	1,475	20	5,758	156	23	501	42	1,190	540	
군산	67	7,299	41	6,135	1,455	0	4,452	228	19	584	7	416	164	
익산	115	9,444	68	7,987	837	129	6,884	137	23	561	24	730	166	
정읍	52	4,655	36	3,917	800	0	2,801	316	5	290	11	448		
남원	51	3,511	35	3,235	399	50	2,752	34	4	123	12	153		
김제	63	5,401	52	4,596	541	0	3,951	104	4	184	7	490	131	
완주	33	2,187	16	1,864	244	0	1,620	0	7	148	10	175		
진안	41	1,733	31	1,668	237	72	1,342	17	4	16	6	49		
무주	18	2,257	11	2,041	165	0	1,856	20	2	32	5	184		
장수	18	2,745	9	2,614	0	0	2,594	20	2	10	7	121		
임실	38	1,778	24	1,615	93	41	1,368	113	5	27	9	136		
순창	24	1,019	19	965	77	119	739	30	4	24	1	30		
고창	30	1,892	19	1,687	149	30	1,385	123	4	70	7	135		
부안	25	2,619	16	2,288	369	6	1,850	63	5	137	4	194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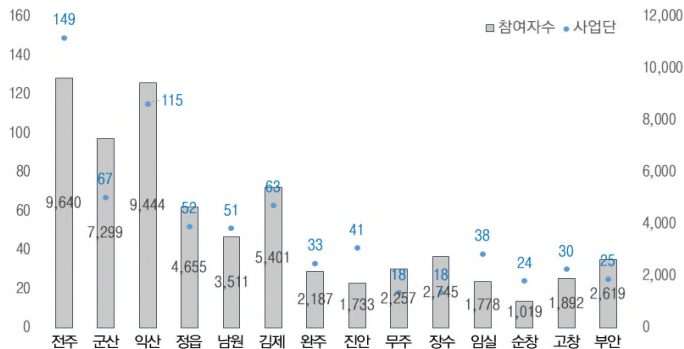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의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이 전체 노인일자리의 80%를 상회하는 4.8만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2.7천명 그리고 시장형은 4.5천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에서는 노노케어가 6.8천명 참여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원이 4.6백명, 그리고 공공시설봉사가 가장 많은 3.9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총 724개이고 이중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 461개 사업단으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등의 약 260개의 사업단보다도 1.5배 이상 많다. 지역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전주시가 14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115개, 군산 67개, 그리고 김제 63개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권이 331개로 전체 741개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형 사업은 총 4.8만명이 참여하고 있고, 총 461개 사업단에서 관련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은 총 111개 사업단에 2.7천명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형은 총 152개 사업단에 4.4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는 주로 공익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행기관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권에 집중된 현재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분포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욕구를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수행기관의 다변화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그림 4-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표 4-24〉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사업단수	149	67	115	52	51	63	33	41	18	18	38	24	30	25	724
노인수	9.6만	5.0만	5.5만	3.0만	2.2만	2.6만	2.1만	8.8천	8.0천	7.5천	9.9천	9.4천	1.9만	1.7만	38만
노인1명당 사업단수	1.55	1.35	2.09	1.73	2.27	2.41	1.57	4.66	2.25	2.40	3.83	2.55	1.61	1.45	1.9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도시지역 편중과 함께 지역별 수행기관의 편차가 큰 것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령,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사업단 현황을 보면, 전주는 노인인구 천명당 사업단이 1.55개이지만 진안과 진안은 노인인구 천명당 사업단이 4.66개로 큰 차이를 보인다. 노인인구대비 사업단 수를 보면, 진안이 4.6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실 3.83개, 김제 2.41개, 장수 2.40개 등의 순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농촌지역보다는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다양성은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유형의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5〉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

구 분	총 계		공익활동형 (중도포기자수 제외)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소계		노 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봉사						
	사업단	참여 자수	사업단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참여 자수	사업단	참여 자수	사업단	참여 자수	참여 자수	
합계	724	56,180	461	48,021	6,841	467	39,352	1,361	111	2,707	152	4,451	1,001	
전주	149	9,640	84	7,409	1,475	20	5,758	156	23	501	42	1,190	540	
군산	67	7,299	41	6,135	1,455	0	4,452	228	19	584	7	416	164	
익산	115	9,444	68	7,987	837	129	6,884	137	23	561	24	730	166	
정읍	52	4,655	36	3,917	800	0	2,801	316	5	290	11	448		
남원	51	3,511	35	3,235	399	50	2,752	34	4	123	12	153		
김제	63	5,401	52	4,596	541	0	3,951	104	4	184	7	490	131	
완주	33	2,187	16	1,864	244	0	1,620	0	7	148	10	175		
진안	41	1,733	31	1,668	237	72	1,342	17	4	16	6	49		
무주	18	2,257	11	2,041	165	0	1,856	20	2	32	5	184		
장수	18	2,745	9	2,614	0	0	2,594	20	2	10	7	121		
임실	38	1,778	24	1,615	93	41	1,368	113	5	27	9	136		
순창	24	1,019	19	965	77	119	739	30	4	24	1	30		
고창	30	1,892	19	1,687	149	30	1,385	123	4	70	7	135		
부안	25	2,619	16	2,288	369	6	1,850	63	5	137	4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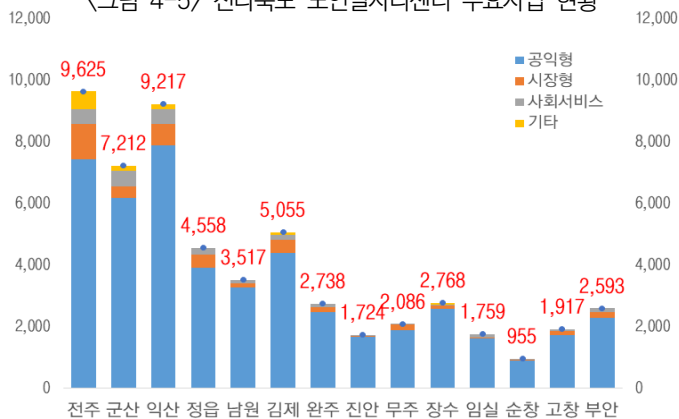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표 4-26〉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구분	일자리 참여자 수					일자리 참여자 비율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	기타	전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	기타	전체
전주	7,430	1,145	471	579	9,625	77.19	11.90	4.89	6.02	100.0
군산	6,170	366	511	165	7,212	85.55	5.07	7.09	2.29	100.0
익산	7,890	670	492	165	9,217	85.60	7.27	5.34	1.79	100.0
정읍	3,919	420	219	-	4,558	85.98	9.21	4.80		100.0
남원	3,268	140	109	-	3,517	92.92	3.98	3.10		100.0
김제	4,393	423	148	91	5,055	86.90	8.37	2.93	1.80	100.0
완주	2,457	166	115	-	2,738	89.74	6.06	4.20		100.0
진안	1,661	46	17	-	1,724	96.35	2.67	0.99		100.0
무주	1,890	174	22	-	2,086	90.60	8.34	1.05		100.0
장수	2,572	116	10	70	2,768	92.92	4.19	0.36	2.53	100.0
임실	1,620	25	114	-	1,759	92.10	1.42	6.48		100.0
순창	902	30	23	-	955	94.45	3.14	2.41		100.0
고창	1,726	130	61	-	1,917	90.04	6.78	3.18		100.0
부안	2,288	180	125	-	2,593	88.24	6.94	4.82		100.0
전체	48,186	4,031	2,437	1,070	55,724	86.47	7.23	4.37	1.92	100.0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로 보면, 전체 일자리 5.57만개에서 공익형이 4.8만개, 시장형 4.0천개, 사회서비스형 2.4천개 그리고 기타 1.1천개 등이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형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86.4%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공익형의 비율은 순창이 94.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안군(92.9%), 남원시(92.9%), 임실군(92.1%)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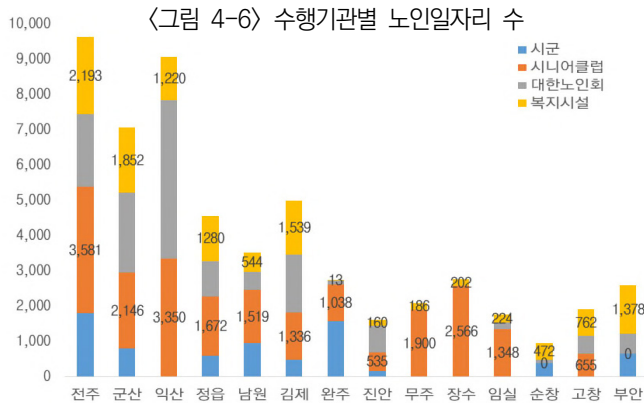
〈그림 4-5〉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표 4-27〉 전라북도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현황

구분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복지시설	
	수행기관	사업량	수행기관	사업량	수행기관	사업량	수행기관	사업량
전주	1	1,800	3	3,581	9	2,051	3	2,193
군산	1	804	1	2,146	6	2,260	1	1,852
익산	-	-	2	3,350	10	4,487	1	1,220
정읍	1	600	1	1,672	4	1,006	1	1,280
남원	1	945	1	1,519	6	509	1	544
김제	1	473	1	1,336	6	1,642	1	1,539
완주	1	1,574	1	1,038	7	113	1	13
진안	1	160	1	535	5	746	1	160
무주	-	-	1	1,900	-	-	1	186
장수	-	-	1	2,566	-	-	1	202
임실	-	-	1	1,348	1	187	1	224
순창	1	379	-	-	1	100	1	472
고창	-	-	1	655	2	500	1	762
부안	1	650	-	-	2	565	1	1,378
전체	9	7,385	15	21,646	59	14,166	16	12,025

다음으로 일자리 수행기관별 현황을 보면, 전체 일자리 약 5.6만개 중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일자리는 약 2.16만개로 38.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1.4만개, 복지시설 1.2만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7.4천개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행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가령, 대한노인회는 익산시가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주시, 완주군 등의 순이고, 복지시설은 전주시가 3개로 가장 많다. 시니어클럽은 전주시가 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2개 등의 순이다. 수행기관이 대체로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수행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진단

Jeonbuk Institute

-
1. 설문조사 개요
 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제5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진단

1. 설문조사 개요

전라북도 노인의 소득기반으로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민간분야 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일자리 만족도조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는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의 현황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 희망노인의 희망업종, 향후 경제활동참여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 등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는 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희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만족도 조사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와 근로시간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이후의 변화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수요 및 만족도 조사는 2020년 11월 20일~27일 기간 동안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도내 거주 노인 약 4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조사 대상 노인은 400명이고,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약 250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약 6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0년 11월 20일(금) ~ 2020년 11월 27일(금), 7일
조사대상	도내 60세 이상 노인 400명
조사응답	도내 60세 이상 노인 400명(노인일자리참여노인 250명 포함)
조사방법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단순임의표본추출법

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n=400)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수요조사의 대상자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245명(61.3%)으로 남성 142명(33.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노인이 232명(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 미만(22.5%), 80세 이상(18.8%)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교육수준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4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하 25.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5%, 그리고 대졸 이하가 13.5%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142명(3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61명(15.3%), 군산과 김제, 장수, 고창, 부안 등이 각각 30명이었고, 진안 27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소득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50~70만원 미만인 경우가 93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미만 22.5%, 그리고 80세 이상 18.8%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400명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25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2.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5-2〉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142	33.5	거주지역	전주		142	35.5
	여성		245	61.3		군산		30	7.5
	기타		13	3.3		익산		61	15.3
연령	70세 미만		90	22.5		김제		30	7.5
	70-79세		232	58.0		완주		3	.8
	80세 이상		75	18.8		진안		27	6.8
	기타		3	.8		장수		30	7.5
학력	초졸이하		149	37.3		고창		30	7.5
	중졸이하		100	25.0		부안		30	7.5
	고졸이하		82	20.5		기타		17	4.3
	대졸이상		54	13.5	30만원 미만		77	19.3	
	기타		15	3.8	30-50만원 미만		50	12.5	
가구구성	독거부부		158	39.5	소득	50-70만원 미만		93	23.3
	부부동거		199	49.8		70-100만원 미만		51	12.8
	자녀동거		24	6.0		100만원 이상		73	18.3
	손자녀동거		7	1.8		기타		56	14.0
	기타		3	.8		노인일자리 참여		250	62.5
	기타		9	2.3	참여 미참여		150	37.5	
전체			400	100.0	전체			400	100.0

2)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인식과 현황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대해서는 조사대상 노인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능력이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노인의 일자리 참여보다는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게 좋다(12.4%)는 의견과 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6.3%)의견도 10% 내외에서 일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대별로는 70세 미만의 초로기 노인이 80세 이상의 고령노인보다는 더 높았고, 학력수준에서는 초졸이하의 학력계층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령,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69.8% 수준이지만 대졸이상에서는 절대다수인 98%의 노인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정도에서는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보다는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3〉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능력이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하는게 좋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좋다	연금제도 확대가 좋다
성별	남성	80.7	10.7	1.4	7.1
	여성	79.5	13.5	1.2	5.7
연령	70세 미만	92.2	4.4	1.1	2.2
	70-79세	78.2	12.7	1.7	7.4
	80세 이상	70.7	21.3		8.0
학력	초졸이하	69.8	22.1		8.1
	중졸이하	82.0	10.0	3.0	5.0
	고졸이하	82.7	6.2	2.5	8.6
	대졸이상	98.0			2.0
거주 시 지역		79.2	13.9	1.9	5.0
지역 군 지역		80.8	10.8		8.3
가구 독거		73.2	19.7	1.9	5.1
구성 비독거		84.6	7.5	0.9	7.0
소득	30만원 미만	81.6	10.5		7.9
	30-50만원 미만	58.0	26.0	4.0	12.0
	50-70만원 미만	77.4	16.1	1.1	5.4
	70-100만원 미만	84.3	11.8		3.9
	100만원 이상	90.3	1.4		8.3
전체		79.9	12.4	1.3	6.3

세부적으로 보면, 능력이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연령별로는 70세 미만(92.2%), 70~79세(78.2%), 80세 이상(70.7%)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에서는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가 90.3%로 가장 많았고, 70~100만원 미만 소득이 84.3%로 뒤이어 많았다.

한편,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는 30~50만원의 비교적 저소득층에서 26.0%로 가장 많았고, 초졸이하(22.1%), 80세 이상(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것 같다(17.9%), 불쌍한 노인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소득구분별로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50만원 미만 소득인 경우는 46.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것 같다 라고 응답한 경우로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력별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서 28.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분	불쌍한 노인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 같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것 같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 같다
성별				
남성	10.6	67.6	16.9	4.9
여성	11.8	66.9	17.6	3.7
연령				
70세 미만	6.7	70.0	22.2	1.1
70~79세	9.5	68.1	18.1	4.3
80세 이상	21.3	60.0	12.0	6.7
학력				
초졸이하	20.1	63.8	10.7	5.4
중졸이하	6.0	70.0	18.0	6.0
고졸이하	6.1	70.7	22.0	1.2
대졸이상	1.9	69.8	28.3	
거주 지역				
시 지역	11.5	65.1	18.4	5.0
군 지역	10.0	73.3	15.0	1.7
가구 형태				
독거	19.0	65.2	8.2	7.6
비독거	5.7	68.7	23.9	1.7
소득				
30만원 미만	5.2	81.8	9.1	3.9
30~50만원 미만	24.0	46.0	20.0	10.0
50~70만원 미만	18.3	72.0	8.6	1.1
70~100만원 미만	11.8	64.7	19.6	3.9
100만원 이상	2.7	65.8	28.8	2.7
전체	11.1	67.0	17.9	4.0

현재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56.4%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8.0%로 남성 51.4%보다는 다소 높았고, 교육수준에서는 초졸이하가 6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이하 53.1%, 대졸 이상 50.9%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대졸이상의 고학력 보다는 주로 중졸이하에서 높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시부 지역보다는 군부 지역의 노인 경제활동참여율이 95.1%로 가장 높았고, 시부지역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39.4%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30만원 미만의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8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64.7%, 50만원에서 7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62.5%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는 정부지원일자리가 8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6.0%, 기타 5.6% 그리고 민간업체 일자리 2.3%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의 경우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이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 경제활동 참여 및 유형

구분	경제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유형			
	참여	미참여	정부지원 일자리	민간업체 일자리	자영업	기타
성별						
남성	51.4	48.6	79.2	5.6	12.5	2.8
여성	58.0	42.0	91.1	0.7	3.0	5.2
연령						
70세 미만	58.9	41.1	78.8	3.8	7.7	9.6
70-79세	54.6	45.4	87.6	1.7	6.6	4.1
80세 이상	58.9	41.1	90.7	2.3	2.3	4.7
학력						
초졸이하	65.1	34.9	94.6	1.1	2.2	2.2
중졸이하	53.1	46.9	82.0	4.0	6.0	8.0
고졸이하	50.0	50.0	87.5	2.5	7.5	2.5
대졸이상	50.9	49.1	59.3	3.7	18.5	18.5
거주 지역						
시 지역	39.4	60.6	78.1	3.1	9.4	9.4
군 지역	95.0	5.0	94.7	1.8	1.8	1.8
가구						
독거	57.8	42.2	92.0		3.4	4.5
구성						
비독거	55.5	44.5	82.1	4.1	7.3	6.5
소득						
30만원 미만	80.3	19.7	95.1			4.9
30-50만원 미만	40.0	60.0	94.7		5.3	
50-70만원 미만	62.5	37.5	96.2		1.9	1.9
70-100만원 미만	64.7	35.3	90.9			9.1
100만원 이상	56.9	43.1	63.4	7.3	22.0	7.3
전체	56.4	43.6	86.1	2.3	6.0	5.6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약 31.8%가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9.3%, 운전 및 운송 3.3%, 생산직 2.8%, 그리고 행정직 1.4% 등의 순이었다. 청소업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거주지역에서는 시부보다는 군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구구성에서 독거노인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에서는 월평균 30만원 미만 이하일수록 청소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은 대체로 성별로는 남성,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70세에서 79세,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하, 거주지역은 군부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에서는 3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정직의 경우는 대체로 교육수준에서 대졸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에 비해서 많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유형의 경우 마을지킴이, 가스검침, 컨설턴트, 식당보조, 교통정리, 일용근로자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노인의 경제활동분야는 대부분이 청소업 등의 단순서비스업으로 제한되고 있고, 농림어업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5-6〉 경제활동 분야

구분		농림어업	경비/수위	청소업	생산직	가사돌봄	운전/운송	행정직	기타
성별	남성	19.7	1.4	32.4	2.8	1.4	5.6	4.2	32.4
	여성	4.5		33.6	3.0	0.7	2.2		56.0
연령	70세 미만	5.9	3.9	19.6	5.9		2.0	3.9	58.8
	70-79세	13.2		31.4	2.5	1.7	5.0		46.3
	80세 이상	2.4		47.6				2.4	47.6
학력	초졸이하	6.5		38.7		2.2	5.4		47.3
	중졸이하	18.0		30.0	4.0		2.0	2.0	44.0
	고졸이하	7.7		35.9	5.1		2.6		48.7
	대졸이상	7.7	7.7		7.7			7.7	69.2
거주 시 지역		7.4	1.1	19.1	4.3	1.1	3.2	2.1	61.7
지역 군 지역		10.5	0.9	43.0	0.9		3.5	0.9	40.4
가구 독거		5.6		44.9		2.2	3.4		43.8
구성 비독거		12.4	1.7	22.3	5.0		3.3	2.5	52.9
소득	30만원 미만	14.8		54.1			4.9		26.2
	30-50만원 미만	11.1		44.4	5.6		5.6		33.3
	50-70만원 미만	1.9		28.8	5.8	3.8	1.9		57.7
	70-100만원 미만	3.0	3.0	24.2					69.7
	100만원 이상	12.5	2.5	5.0	5.0		2.5	7.5	65.0
전체		9.3	0.9	31.8	2.8	0.9	3.3	1.4	49.5

한편,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기타직업(마을지킴이, 컨설턴트, 식당보조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특성별로 보면 소득이 70~1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69.7%로 많았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69.2%)인 경우가, 거주지역별로는 시 지역(61.7%)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직업에 이어 청소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소득구간별로 30만원 미만 (54.1%)의 노인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군 지역(43.0%),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47.6%)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의 형태로는 기타(37.7%)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가 2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시근로자(17.0%), 상용근로자(10.8%) 등의 형태로 근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를 특성별로 보면 소득수준에 따 라서는 30~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45.0%), 학력별로는 초졸이하(34.8%), 성별로는 여성(32.8%)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경우 학력별로 대졸이상이 44.4%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70세 미만 (28.8%),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26.8%)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 근로형태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기타
성별	남성	13.9	22.2	20.8	2.8	8.3	31.9
	여성	6.1	14.5	32.8	0.8	3.8	42.0
연령	70세 미만	25.0	28.8	11.5		5.8	28.8
	70~79세	5.8	15.0	29.2	2.5	5.0	42.5
	80세 이상	7.5	7.5	45.0		5.0	35.0
학력	초졸이하	6.5	9.8	34.8		3.3	45.7
	중졸이하	8.3	20.8	25.0	2.1	6.3	37.5
	고졸이하	10.3	10.3	28.2	2.6	7.7	41.0
	대졸이상	29.6	44.4	3.7	3.7	7.4	11.1
거주 지역	시 지역	10.5	15.8	24.2	1.1	8.4	40.0
	군 지역	11.7	17.1	31.5	0.9	1.8	36.9
가구 구성	독거	4.6	11.5	32.2	1.1	2.3	48.3
	비독거	15.8	20.0	25.0	1.7	6.7	30.8
소득	30만원 미만	1.7	6.9	19.0			72.4
	30~50만원 미만		15.8	52.6		5.3	26.3
	50~70만원 미만	2.0	19.6	43.1		2.0	33.3
	70~100만원 미만	24.2	15.2	30.3		9.1	21.2
	100만원 이상	31.7	26.8	9.8	4.9	12.2	14.6
	전체	10.8	17.0	27.8	1.4	5.2	37.7

상용근로자는 전체적으로 10.8%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를 특성별로 보면 소득이 100만원 이상(31.7%)인 경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29.6%), 연령별로는 70세 미만(25.0%)등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로는 전체적으로 2019년에 시작한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18년(24.9%), 2017년 이전(22.8%), 2020년(20.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월 평균 소득액으로는 30만원 미만이 53.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70만원(24.1%), 70만원 이상인 경우는 22.2%로 가장 적게 나타나 다수 경제활동참여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특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7년 이전(33.3%)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은 2019년(35.8%)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은 2018년(38.5%), 80세 미만의 연령대는 2019년에 시작을 한 경우가 많았다. 월 평균 소득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력별로 대졸이상인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74.4%로 많았다.

〈표 5-8〉 경제활동 시작시기 및 소득

구분	경제활동 시작시기				월 평균 소득액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30만원 미만	3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성별 남성	33.3	19.7	24.2	22.7	54.2	13.9	31.9
여성	16.7	29.2	35.8	18.3	55.6	30.4	14.1
연령 70세 미만	7.1	9.5	42.9	40.5	23.5	25.5	51.0
70~79세	26.8	25.9	30.4	17.0	59.0	26.2	14.8
80세 이상	28.2	38.5	25.6	7.7	74.4	16.3	9.3
학력 초졸이하	17.4	27.9	34.9	19.8	67.0	24.5	8.5
중졸이하	30.4	19.6	28.3	21.7	50.0	36.0	14.0
고졸이하	20.0	34.3	25.7	20.0	60.0	15.0	25.0
대졸이상	25.0	5.0	45.0	25.0		15.4	84.6
거주 시 지역	24.1	30.1	31.3	14.5	47.9	21.9	30.2
지역 군 지역	20.0	21.0	34.3	24.8	60.5	25.4	14.0
가구 독거	17.7	32.9	31.6	17.7	67.4	27.0	5.6
구성 비독거	27.3	19.1	32.7	20.9	45.1	21.3	33.6
소득 30만원 미만	9.4	22.6	39.6	28.3	91.8	8.2	
30~50만원 미만	22.2	16.7	33.3	27.8	31.6	57.9	10.5
50~70만원 미만	25.0	40.4	21.2	13.5	54.7	45.3	
70~100만원 미만	26.7	16.7	40.0	16.7	39.4	18.2	42.4
100만원 이상	41.2	17.6	26.5	14.7	22.0	7.3	70.7
전체	22.8	24.9	32.1	20.2	53.7	24.1	22.2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생계비 마련이 53.1%로 가장 많았고 바로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1.5%), 건강을 위해서(10.5%),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5.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게 되면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가 40%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었지만 70만원 이상의 소득노인의 경우는 생계비 마련과 용돈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비마련(24.3%)과 용돈이 필요해서(24.3%)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70~100만원 미만인 경우 또한 생계비 마련(30.3%)과 용돈이 필요해서(24.2%)의 차이가 6%p 이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연령계층 그리고 소득수준에서는 생계비 마련 이외에 단순한 용돈별이 그리고 경력활동 등의 사유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에서는 대졸이상 노인은 주로 생계비 마련보다는 경력활동과 건강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구분		생계비 마련	용돈필요	건강	친구관계 형성	시간 보내려고	능력발휘	경력활동	기타
성별	남성	47.2	20.8	16.7		2.8	5.6	6.9	
	여성	58.9	22.5	7.0	2.3	1.6	1.6	3.9	2.3
연령	70세 미만	25.0	20.8	16.7		6.3	12.5	14.6	4.2
	70-79세	59.2	25.0	7.5	1.7	0.8	1.7	3.3	0.8
	80세 이상	68.3	12.2	12.2	2.4			2.4	2.4
학력	초졸이하	69.6	21.7	4.3	1.1		2.2		1.1
	중졸이하	56.0	20.0	14.0	4.0			2.0	4.0
	고졸이하	35.1	32.4	16.2		2.7	5.4	8.1	
	대졸이상	16.7	8.3	20.8		8.3	12.5	29.2	4.2
거주	시 지역	48.9	15.6	13.3		4.4	5.6	8.9	3.3
지역	군 지역	55.8	26.5	8.8	2.7		2.7	2.7	0.9
가구	독거	70.6	21.2	3.5	2.4	1.2			1.2
구성	비독거	42.0	22.7	14.3	0.8	1.7	5.9	10.1	2.5
소득	30만원 미만	85.0	13.3		1.7				
	30-50만원 미만	44.4	27.8	22.2			5.6		
	50-70만원 미만	49.0	29.4	9.8	2.0	2.0		3.9	3.9
	70-100만원 미만	30.3	24.2	18.2	3.0	3.0	12.1	6.1	3.0
	100만원 이상	24.3	24.3	18.9		5.4	8.1	18.9	
전체		53.1	21.5	10.5	1.4	1.9	3.8	5.7	1.9

3)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만족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만족도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먼저 급여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63.6%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매우 만족이 12.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대에는 80세의 고령노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72.0%였고,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급여만족도를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세적인 분석을 해보면, 소득구분에 따라서는 30~50만원 미만인 노인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88.9%로 가장 높게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83.3%)에서, 학력별로는 초졸이하(83.9%)인 경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0〉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구분	급여수준								근로시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b)	(d+e)	(a)	(b)
성별 남성	1.4	13.9	22.2	47.2	15.3	15.3	62.5	5.6	29.2	48.6	16.7	5.6	65.3			
여성	0.7	6.6	28.7	53.7	10.3	7.3	64.0	0.8	23.3	60.9	15.0	0.8	75.9			
연령 70세 미만		13.5	42.3	23.1	21.2	13.5	44.3	3.9	37.3	39.2	19.6	3.9	58.8			
70~79세		8.2	26.2	58.2	7.4	8.2	65.6	1.7	24.8	60.3	13.2	1.7	73.5			
80세 이상	4.7	4.7	9.3	65.1	16.3	9.4	81.4	2.4	14.3	64.3	19.0	2.4	83.3			
초졸이하	1.1	5.3	19.1	66.0	8.5	6.4	74.5		16.1	73.1	10.8	0.0	83.9			
중졸이하	2.0	14.0	22.0	48.0	14.0	16.0	62.0	4.0	30.0	48.0	18.0	4.0	66.0			
고졸이하		5.0	37.5	40.0	17.5	5.0	57.5	5.3	26.3	44.7	23.7	5.3	68.4			
대졸이상		14.8	44.4	25.9	14.8	14.8	40.7	3.7	51.9	33.3	11.1	3.7	44.4			
거주시 지역	1.0	6.2	35.1	38.1	19.6	7.2	57.7	4.3	25.5	43.6	26.6	4.3	70.2			
지역군 지역	0.9	10.5	20.2	61.4	7.0	11.4	68.4	0.9	25.4	65.8	7.9	0.9	73.7			
가구독거	1.1	10.1	22.5	57.3	9.0	11.2	66.3	2.3	19.3	62.5	15.9	2.3	78.4			
구성비독거	0.8	5.7	30.9	48.0	14.6	6.5	62.6	2.5	29.8	51.2	16.5	2.5	67.7			
30만원 미만		1.6	21.3	70.5	6.6	1.6	77.1	1.6	19.7	68.9	9.8	1.6	78.7			
30~50만원 미만		5.3	36.8	47.4	10.5	5.3	57.9	5.6	5.6	72.2	16.7	5.6	88.9			
50~70만원 미만	1.9	15.1	18.9	54.7	9.4	17.0	64.1		23.1	61.5	15.4	0.0	76.9			
70~100만원 미만		9.1	27.3	36.4	27.3	9.1	63.7		30.3	39.4	30.3	0.0	69.7			
100만원 이상	2.4	14.6	34.1	34.1	14.6	17.0	48.7	5.0	37.5	42.5	15.0	5.0	57.5			
전체	0.9	8.8	26.7	51.2	12.4	9.7	63.6	2.3	25.7	56.1	15.9	2.3	72.0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은 전체적으로 만족(51.4%)과 매우 만족(22.4%)을 합한 만족도가 73.8%로 매우 높았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80세 이상의 경우 작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8.1%로 매우 높았다.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30~50만원 미만(83.3%)과 30만원 미만(80.3%)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직장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이 50.0%, 매우 만족이 28.0%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8.0%로 높은 수준이었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1.9%로 대부분의 경제활동 참여노인은 직장동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인 경우의 동료관계만족도가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81.6%로 시 지역(7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작업환경								직장동료관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b)	(d+e)	(a)	(d+e)
성별																
남성	1.4	4.2	26.4	48.6	19.4	5.6	68.0	4.2	27.8	44.4	23.6	4.2	68.0			
여성		0.8	22.6	53.4	23.3	0.8	76.7	0.8	15.8	53.4	30.1	0.8	83.5			
연령																
70세 미만	2.0	2.0	35.3	37.3	23.5	4.0	60.8	5.9	33.3	29.4	31.4	5.9	60.8			
70~79세		2.5	23.1	53.7	20.7	2.5	74.4	0.8	18.2	56.2	24.8	0.8	81.0			
80세 이상			11.9	61.9	26.2	0.0	88.1		9.5	57.1	33.3	0.0	90.4			
학력																
초졸이하			17.2	63.4	19.4	0.0	82.8		11.8	62.4	25.8	0.0	88.2			
중졸이하		4.0	26.0	42.0	28.0	4.0	70.0	2.0	22.0	46.0	30.0	2.0	76.0			
고졸이하		2.6	26.3	42.1	28.9	2.6	71.0		21.1	39.5	39.5	0.0	79.0			
대졸이상	3.7	3.7	37.0	44.4	11.1	7.4	55.5	11.1	40.7	33.3	14.8	11.1	48.1			
거주시 지역	1.1	1.1	21.3	46.8	29.8	2.2	76.6	3.2	22.3	36.2	38.3	3.2	74.5			
지역군 지역		1.8	27.2	53.5	17.5	1.8	71.0	0.9	17.5	60.5	21.1	0.9	81.6			
가구독거		1.1	20.5	55.7	22.7	1.1	78.4	1.1	13.6	58.0	27.3	1.1	85.3			
구성비독거	0.8	2.5	25.6	48.8	22.3	3.3	71.1	1.7	24.8	44.6	28.9	1.7	73.5			
소득																
30만원 미만		1.6	18.0	50.8	29.5	1.6	80.3	1.6	14.8	55.7	27.9	1.6	83.6			
30~50만원 미만			16.7	61.1	22.2	0.0	83.3		11.1	66.7	22.2	0.0	88.9			
50~70만원 미만		1.9	19.2	63.5	15.4	1.9	78.9		17.3	53.8	28.8	0.0	82.6			
70~100만원 미만			30.3	42.4	27.3	0.0	69.7		24.2	39.4	36.4	0.0	75.8			
100만원 이상	2.5	5.0	32.5	40.0	20.0	7.5	60.0	7.5	30.0	37.5	25.0	7.5	62.5			
전체	0.5	1.9	23.8	51.4	22.4	2.4	73.8	1.9	20.1	50.0	28.0	1.9	78.0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향후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97.8%로 매우 높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기간으로는 4~6년 기간이 3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35.9%, 7년 이상 27.2% 등의 순이었다.

경제활동의 지속여부를 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은 7년 이상이 36.0%로 가장 많았으나 군 지역은 1~3년이 40.5%로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1~3년(41.2%), 여성은 4~6년(43.8%)의 기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32.0%,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2〉 향후 경제활동 계획

구분	경제활동 지속 여부		향후 경제활동 지속기간			경제활동을 하고싶지 않은 이유			
	그렇다	아니다	1~3년	4~6년	7년 이상	현재 일에 불만족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일하고 싶어서	기타
성별 남성	95.6	4.4	41.2	25.0	33.8	10.0	30.0	60.0	
여성	98.8	1.2	33.1	43.8	23.1	30.8	53.8	15.4	
연령 70세 미만	97.1	2.9	27.1	29.2	43.8	33.3		44.4	22.2
70~79세	100.0		35.0	41.7	23.3	16.7	58.3	25.0	
80세 이상	92.0	8.0	50.0	31.6	18.4		75.0	25.0	
학력 초졸이하	98.0	2.0	44.0	40.7	15.4	20.0	60.0	20.0	
중졸이하	94.3	5.7	31.9	27.7	40.4	11.1	44.4	44.4	
고졸이하	100.0		18.9	37.8	43.2				
대졸이상	100.0		36.0	44.0	20.0	40.0		20.0	40.0
거주 시 지역	96.2	3.8	30.3	33.7	36.0	36.4	18.2	27.3	18.2
지역 군 지역	100.0		40.5	39.6	19.8	7.7	53.8	38.5	
가구 독거	96.2	3.8	39.8	45.8	14.5	7.7	76.9	15.4	
구성 비독거	98.8	1.2	33.1	31.4	35.6	22.2		55.6	22.2
소득 30만원 미만	100.0		40.0	43.3	16.7			100.0	
30~50만원 미만	94.1	5.9	26.7	53.3	20.0				
50~70만원 미만	100.0		41.2	37.3	21.6	23.1	53.8	23.1	
70~100만원 미만	90.9	9.1	16.1	25.8	58.1		33.3	50.0	16.7
100만원 이상	100.0		41.0	30.8	28.2	50.0		25.0	25.0
전체	97.8	2.2	35.9	36.9	27.2	20.0	40.0	32.0	8.0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43.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22.8%), 일자리 찾는 방법을 몰라서(13.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체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은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과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13.9%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수행 절차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성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42.9%)가 다른 사유보다도 일을 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고, 소득수준에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소득을 가진 노인 그리고 70만원에서 100만원의 소득을 가진 노인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라는 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 수준에서도 대졸이상의 노인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초졸이하의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 미참여의 가장 큰 이유였다.

〈표 5-13〉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는 이유

구분	경제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는 이유							
	참여	미참여	경제적 여유 있어서	일을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 찾는법 몰라서	가족 반대	주위의 시선 때문에	기타
성별										
남성	51.4	48.6	9.1	3.0	54.5	13.6	13.6	1.5	4.5	
여성	58.0	42.0	8.8	5.5	35.2	29.7	14.3	3.3	2.2	1.1
연령										
70세 미만	58.9	41.1	8.8	2.9	41.2	14.7	23.5	2.9	5.9	
70~79세	54.6	45.4	10.4	2.1	50.0	19.8	11.5	2.1	3.1	1.0
80세 이상	58.9	41.1	3.6	14.3	25.0	42.9	10.7	3.6		
학력										
초졸이하	65.1	34.9	6.3	6.3	27.1	43.8	8.3	2.1	6.3	
중졸이하	53.1	46.9	7.0	9.3	44.2	14.0	20.9	4.7		
고졸이하	50.0	50.0	13.5		51.4	10.8	16.2	2.7	5.4	
대졸이상	50.9	49.1	12.5		62.5	12.5	8.3			4.2
거주 지역										
시 지역	39.4	60.6	9.7	4.2	45.8	20.8	13.9	2.1	2.8	0.7
군 지역	95.0	5.0		20.0	20.0	20.0	20.0		20.0	
가구 구성										
독거	57.8	42.2	10.0	8.3	35.0	28.3	13.3	3.3	1.7	
비독거	55.5	44.5	8.5	2.1	48.9	19.1	13.8	2.1	4.3	1.1
소득										
30만원 미만	80.3	19.7	7.7		61.5	15.4	15.4			
30~50만원 미만	40.0	60.0	3.3	6.7	36.7	40.0		6.7	6.7	
50~70만원 미만	62.5	37.5		6.9	58.6	24.1	6.9		3.4	
70~100만원 미만	64.7	35.3	5.6	11.1	22.2	33.3	16.7	5.6	5.6	
100만원 이상	56.9	43.1	20.7		48.3	10.3	13.8	3.4		3.4
전체	56.4	43.6	8.9	4.4	43.7	22.8	13.9	2.5	3.2	0.6

4) 희망하는 일자리 분야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 중에서 향후에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일자리 욕구에서는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20.4%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다수가 적당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8.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26.8%, 적당한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19.5%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향후에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주된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가령, 연령대별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유는 70세 미만에서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57.1%로 가장 많았으나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적당한 일자리 있다면 일할 의향

구분	일할 의향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없다	그저 그렇다	있다	건강 안좋아서	편안한 노후 보내고 싶음	적당한 일자리 없을 것 같음	전문성 부족해서	기타	
성별	남성	18.0	8.2	73.8	35.7	35.7	28.6		
	여성	22.4	7.1	70.6	55.6	22.2	14.8	3.7	3.7
연령	70세 미만	10.3	3.4	86.2	14.3	28.6	57.1		
	70-79세	15.4	8.8	75.8	54.5	27.3	9.1	4.5	4.5
	80세 이상	48.1	7.4	44.4	58.3	25.0	16.7		
학력	초졸이하	40.9	9.1	50.0	70.0	15.0	10.0		
	중졸이하	10.3	5.1	84.6	40.0	40.0	20.0		
	고졸이하	11.1	5.6	83.3	30.0	30.0	30.0	10.0	
	대졸이상	16.7	12.5	70.8	20.0	60.0	20.0		
거주 지역	시 지역	22.6	7.5	69.9	48.7	25.6	20.5	2.6	2.6
지역	군 지역			100.0	50.0	50.0			
가구	독거	22.8	8.8	68.4	53.3	33.3	6.7		
구성	비독거	18.4	6.9	74.7	44.0	24.0	28.0	4.0	
소득	30만원 미만	8.3		91.7		100.0			
	30-50만원 미만	25.0	7.1	67.9	75.0	12.5			
	50-70만원 미만	22.2	11.1	66.7	75.0		25.0		
	70-100만원 미만	25.0	6.3	68.8	50.0	33.3	16.7		
	100만원 이상	27.6	3.4	69.0	11.1	66.7	22.2		
전체		20.4	7.5	72.1	48.8	26.8	19.5	2.4	2.4

향후 적당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일자리의 분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청소업이 23.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행정직 업무(20.9%), 기타(19.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희망 일자리로 단순노무직과 행정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선호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성별에 따라 남성노인은 행정직(22.9%)과 청소업(20.8%)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노인은 청소업(25.8%)과 가사돌봄(24.2%)이 많이 나타나 성별에 따라 희망하는 일자리의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력별로도 선호하는 일자리의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초졸이하와 중졸이하의 경우는 청소업이 각각 46.2%, 24.3%로 가장 많았으나, 고졸이하, 대졸 이상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청소업 등의 단순노무직보다는 행정직에 대한 수요가 각각 45.2%, 37.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독거노인은 청소업이 38.6%, 비독거 노인은 행정직이 29.0%로 나타나 가구구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고,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3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노인은 청소업과 가사돌봄을 가장 선호했지만 1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행정직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5〉 하고 싶은 일의 분야

	구분	농림어업	경비/수위 (시설관리)	청소업	생산직	가사돌봄	운전/운송	행정직	기타
성별	남성	4.2	16.7	20.8	4.2	6.3	6.3	22.9	18.8
	여성		1.5	25.8	9.1	24.2		19.7	19.7
연령	70세 미만	3.8	7.7	7.7		26.9	7.7	38.5	7.7
	70-79세		6.6	25.0	6.6	17.1	1.3	18.4	25.0
	80세 이상	7.7	15.4	46.2	23.1				7.7
학력	초졸이하		11.5	46.2	3.8	15.4	3.8	3.8	15.4
	중졸이하		5.4	24.3	13.5	21.6	5.4	5.4	24.3
	고졸이하	3.2	9.7	12.9	3.2	16.1		45.2	9.7
	대졸이상	6.3	6.3		6.3	6.3		37.5	37.5
거주 지역	시 지역	2.0	7.9	23.8	6.9	18.8	3.0	19.8	17.8
	군 지역				20.0	20.0		20.0	40.0
가구 구성	독거	2.3	6.8	38.6	9.1	13.6	2.3	9.1	18.2
	비독거	1.4	8.7	14.5	5.8	17.4	2.9	29.0	20.3
소득	30만원 미만	7.7		30.8		30.8		7.7	23.1
	30-50만원 미만			55.0		5.0	5.0	10.0	25.0
	50-70만원 미만		15.0	50.0	5.0	20.0		5.0	5.0
	70-100만원 미만		30.8		15.4	30.8	15.4		7.7
	100만원 이상	5.3	5.3			5.3		68.4	15.8
	전체	1.7	7.8	23.5	7.0	17.4	2.6	20.9	19.1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생계비의 마련을 위해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건강을 위해서(24.3%),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13.0%), 용돈이 필요해서(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제활동 희망 노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미만의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가 27.6%로 가장 많았으나 70~79세, 80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가 각각 37.0%, 61.5%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마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초졸이하의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사유가 생계비 마련이 69.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대졸이상에서는 생계비 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 지역 거주노인의 경우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가 36.3%로 가장 많았으나 군 지역 거주노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40.0%로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라도 일을 하고 싶은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일을 하고 싶은 이유

구분		생계비 마련	용돈필요	건강	친구관계 형성	시간 보내려고	능력발휘	경력활용	기타
성별	남성	30.0	16.0	24.0	6.0	10.0	6.0	8.0	
	여성	39.1	9.4	25.0	1.6	15.6	6.3	1.6	1.6
연령	70세 미만	20.7	17.2	27.6	10.3	10.3	3.4	10.3	
	70~79세	37.0	11.0	24.7	1.4	15.1	6.8	2.7	1.4
	80세 이상	61.5	7.7	15.4		7.7	7.7		
	초졸이하	69.2	11.5	11.5		7.7			
학력	중졸이하	47.2	11.1	19.4		16.7	2.8		2.8
	고졸이하	10.0	13.3	40.0	6.7	13.3	10.0	6.7	
	대졸이상	11.1	5.6	22.2	11.1	16.7	16.7	16.7	
	대졸이상	11.1	5.6	22.2	11.1	16.7	16.7	16.7	
거주 시 지역		36.3	12.7	24.5	2.9	10.8	6.9	4.9	1.0
지역 군 지역		20.0	20.0	20.0		40.0			
가구 독거		57.1	11.9	14.3	4.8	7.1	4.8		
구성 비독거		21.1	12.7	31.0	2.8	16.9	7.0	7.0	1.4
소득	30만원 미만	50.0	16.7	16.7		8.3		8.3	
	30~50만원 미만	50.0	15.0	20.0	5.0	10.0			
	50~70만원 미만	65.0	5.0	10.0		10.0	5.0		5.0
	70~100만원 미만	38.5	15.4	30.8		15.4			
	100만원 이상	9.5		33.3	14.3	9.5	14.3	19.0	
	전체	35.7	12.2	24.3	3.5	13.0	6.1	4.3	0.9

한편,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의 희망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80.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규일자리(10.2%), 기타(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수 노인들이 정규직의 일자리보다는 시간제 파트타임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희망하는 급여 수준으로는 100만원 이상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만원~100만원 미만(32.2%), 50만원 미만(24.3%) 등의 순이었다.

다만, 희망하는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에 따라 초졸이하인 경우는 50만원 미만이 42.3%로 많았으나 대졸 이상의 노인은 희망하는 급여수준으로 100만원 이상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급여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4시간 이하가 73.3%, 4시간 이상이 26.7%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이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희망근로시간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원하는 희망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의 되도록 적은 노동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하고 싶은 일의 형태, 희망급여, 근로시간

구분	일의 형태				희망급여			희망근로시간	
	정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자영업	기타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성별									
남성	15.7	72.5	3.9	7.8	16.0	32.0	52.0	60.0	40.0
여성	6.1	86.4		7.6	31.3	32.8	35.9	83.1	16.9
연령									
70세 미만	20.7	69.0	6.9	3.4	14.3	17.9	67.9	60.7	39.3
70-79세	7.9	84.2		7.9	28.4	33.8	37.8	76.0	24.0
80세 이상		84.6		15.4	23.1	53.8	23.1	84.6	15.4
학력									
초졸이하	11.5	76.9	3.8	7.7	42.3	34.6	23.1	69.2	30.8
중졸이하	5.4	78.4	2.7	13.5	18.9	32.4	48.6	83.8	16.2
고졸이하	12.5	87.5			19.4	41.9	38.7	71.9	28.1
대졸이상	16.7	72.2		11.1	17.6	11.8	70.6	52.9	47.1
거주 지역									
시 지역	9.6	79.8	1.9	8.7	25.7	33.7	40.6	76.5	23.5
군 지역	20.0	80.0			20.0	20.0	60.0	40.0	60.0
가구 구성									
독거	9.3	83.7	2.3	4.7	32.6	39.5	27.9	79.1	20.9
비독거	11.0	78.1	1.4	9.6	20.0	28.6	51.4	69.0	31.0
소득									
30만원 미만		100.0			33.3	33.3	33.3	75.0	25.0
30-50만원 미만		90.5		9.5	50.0	45.0	5.0	90.0	10.0
50-70만원 미만	30.0	60.0		10.0	20.0	35.0	45.0	60.0	40.0
70-100만원 미만	15.4	69.2	15.4		7.7	15.4	76.9	46.2	53.8
100만원 이상	14.3	71.4		14.3	5.0	15.0	80.0	70.0	30.0
전체	10.2	80.5	1.7	7.6	24.3	32.2	43.5	73.3	26.7

노인들이 가장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의 유형으로는 노인을 존중해 주는 직장이 28.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이 힘들지 않은 직장(24.6%),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직장(17.5%), 급여가 높은 직장(16.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는 높은 급여보다도 노인을 존중해주는 정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성별에 따른 희망직장의 유형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노인은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직장이 27.1%로 가장 많았지만 여성노인은 노인을 존중해주는 직장이 32.3%로 가장 높았다. 남성노인은 근로시간의 자유 그리고 여성노인은 노인을 존중하는 직장의 근로환경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시 지역의 경우 노인을 존중해주는 직장을 가장 선호하는 직장의 유형으로 제시하였지만 군지역은 휴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도 30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은 노인을 존중해주는 직장을 가장 선호한 반면, 100만원 이상은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직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일을 하고 싶은 직장

구분		급여가 높은 직장	동료관계가 좋은 직장	노인을 존중해 주는 직장	휴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직장	일이 힘들지 않은 직장
성별	남성	16.7	6.3	25.0	6.3	27.1	18.8
	여성	15.4	7.7	32.3	4.6	10.8	29.2
연령	70세 미만	10.3	6.9	31.0	6.9	27.6	17.2
	70-79세	18.1	8.3	30.6	5.6	13.9	23.6
	80세 이상	23.1		15.4		15.4	46.2
학력	초졸이하	19.2	3.8	19.2	3.8	7.7	46.2
	중졸이하	16.7	5.6	27.8	2.8	11.1	36.1
	고졸이하	16.7	13.3	43.3	3.3	23.3	
	대졸이상		5.9	23.5	17.6	41.2	11.8
거주 시 지역		17.8	7.9	30.7	4.0	15.8	23.8
지역 군 지역		20.0			40.0	20.0	20.0
가구 독거		20.9	2.3	20.9	4.7	11.6	39.5
구성 비독거		13.2	10.3	32.4	5.9	22.1	16.2
소득	30만원 미만		8.3	75.0			16.7
	30-50만원 미만	21.1		21.1		15.8	42.1
	50-70만원 미만	30.0		25.0	5.0	20.0	20.0
	70-100만원 미만	23.1		7.7	15.4	7.7	46.2
	100만원 이상		10.0	35.0		40.0	15.0
	전체	16.7	7.0	28.9	5.3	17.5	24.6

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n=250)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여성이 156명(62.4%)으로 남성 92명(36.8%)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노인이 135명(54.0%)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초졸이하가 106명(42.4%)으로 많았고, 이어서 중졸 이하 53명(21.2%), 고졸 이하 48명(19.2%), 대졸 이상 30명(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전주시가 73명(29.2%), 장수와 고창, 부안이 각각 29명(11.6%), 진안 26명(10.4%), 김제 25명(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일자리 참여 기간은 3년 이상이 103명(41.2%), 일자리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가 163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46명(18.4%), 시니어클럽 9명(3.6%), 지자체와 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6명(2.4%) 등의 순이었다. 참여형태는 공익형이 183명(73.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이 공익형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자조사에서도 다수가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9〉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92	36.8	거주지역	전주	73	29.2
	여성	156	62.4		군산	13	5.2
	결측	2	.8		익산	9	3.6
연령	60대	56	22.4	거주지역	김제	25	10.0
	70대	135	54.0		진안	26	10.4
	80대 이상	55	22.0		장수	29	11.6
	결측	4	1.6		고창	29	11.6
학력	초졸이하	106	42.4	일자리 수행기관	부안	29	11.6
	중졸이하	53	21.2		결측	17	6.8
	고졸이하	48	19.2		지자체	6	2.4
	대졸이상	30	12.0		시니어클럽	9	3.6
	결측	13	5.2		대한노인회	163	63.2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	1년 미만	45	18.0	참여형태	노인복지관	46	18.4
	1년~2년 미만	53	21.2		종합사회복지관	6	2.4
	2년~3년 미만	47	18.8		노인일자리전담기관	5	2.0
	3년 이상	103	41.2		기타	2	.8
	결측	2	.8		결측	13	5.2
	합계	250	100.0		공익형	183	73.2
				참여형태	사회서비스형	35	14.0
					시장형	17	6.8
					결측	15	6.0
					합계	250	100.0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게 된 경로로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의 복지기관을 통해서가 47.5%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31.5%),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 등을 통해서(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적관계망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 형태에 따라서는 공익형의 경우 복지기관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가 4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이상 참여한 경우는 복지기관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66.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참여기간이 1년~2년 미만인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51.9%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0〉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게 된 경로

	구분	복지기관	가족 친구	지역의 통반장	시군 공무원	인터넷	TV 라디오	지역신문 소식지	기타
성별	남성	42.7	30.3	9.0	3.4	4.5		5.6	4.5
	여성	50.0	32.7	6.0	3.3	4.0	1.3	1.3	1.3
연령	60대	26.4	39.6	7.5	1.9	15.1	1.9	3.8	3.8
	70대	50.4	27.5	9.2	4.6	1.5	0.8	3.8	2.3
	80대 이상	61.1	33.3	1.9	1.9				1.9
학력	초졸이하	52.4	37.1	3.8	1.9	1.0		3.8	
	중졸이하	44.2	32.7	13.5	3.8			1.9	3.8
	고졸이하	50.0	22.7	11.4	4.5	2.3	2.3	2.3	4.5
	대졸이상	28.6	25.0		7.1	28.6		3.6	7.1
참여 기간	1년 미만	43.9	34.1	7.3	2.4	2.4		4.9	4.9
	1~2년 미만	19.2	51.9	5.8	3.8	11.5	1.9	3.8	1.9
	2~3년 미만	40.4	27.7	12.8	6.4	4.3		6.4	2.1
	3년 이상	66.3	22.8	5.0	2.0	1.0	1.0		2.0
거주 지역	시 지역	40.2	36.8	3.4	4.3	8.5	1.7	0.9	4.3
	군 지역	53.2	26.1	11.7	2.7			5.4	0.9
수행 기관	대한노인회	56.9	27.8	1.4	5.6	4.2	1.4	1.4	1.4
	대한노인회 외	42.6	35.2	9.9	2.5	3.7	0.6	3.7	1.9
참여 형태	공익형	55.8	29.3	8.8	3.3	1.1		0.6	1.1
	사회서비스형	20.6	44.1		2.9	23.5	2.9		5.9
	시장형	6.3	43.8		6.3		6.3	37.5	
	전체	47.5	31.5	7.1	3.4	4.2	0.8	2.9	2.5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가 45.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용돈 마련을 위해서(27.8%), 건강증진을 위해서(1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의 주된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참여노인의 학력수준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참여사유가 생계비마련 등의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여가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졸이하의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유형에 따라서도 참여사유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공익형 참여노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57.5%)가 가장 많았지만 사회서비스형(28.1%)과 시장형(68.8%)은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된 참여이유로 용돈 마련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인 경우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가 31.7%로 가장 많았으나 1년 이상으로 참여기간이 높아질수록 생계비의 마련을 위해서가 4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표 5-2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구분		생계비마련	용돈마련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동위해	소외감해소 정신적안정	자기발전	기타
성별	남성	36.4	28.4	15.9	8.0	4.5	6.8	
	여성	51.0	27.2	10.2	4.1	2.7	2.7	2.0
연령	60대	27.5	27.5	9.8	9.8	7.8	11.8	5.9
	70대	49.2	28.5	10.8	6.2	2.3	3.1	
	80대 이상	52.8	26.4	18.9		1.9		
학력	초졸이하	63.5	26.0	7.7		1.9	1.0	
	중졸이하	41.2	39.2	13.7	3.9	2.0		
	고졸이하	31.8	27.3	18.2	6.8	6.8	9.1	
	대졸이상	7.7	11.5	15.4	26.9	7.7	19.2	11.5
참여 기간	1년 미만	24.4	31.7	17.1	14.6		7.3	4.9
	1-2년 미만	39.2	27.5	11.8	2.0	7.8	9.8	2.0
	2-3년 미만	43.5	32.6	13.0	4.3	4.3	2.2	
	3년 이상	58.6	23.2	10.1	4.0	2.0	2.0	
거주 지역	시 지역	39.8	23.0	15.0	9.7	5.3	4.4	2.7
	군 지역	53.2	32.4	9.0	0.9	1.8	2.7	
수행 기관	대한노인회	32.4	29.7	18.9	12.2	1.4	4.1	1.4
	대한노인회 외	53.8	26.3	9.6	1.3	3.8	4.5	0.6
참여 형태	공익형	57.5	22.3	11.7	3.9	2.2	2.2	
	사회서비스형	12.5	28.1	18.8	6.3	12.5	15.6	6.3
	시장형	6.3	68.8	12.5	12.5			
	전체	45.3	27.8	12.4	5.6	3.4	4.3	1.3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워졌다가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삶에 활력이 생겼다(35.1%),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여유와 함께 삶의 활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일자리의 참여형태에 따라서는 참여이후의 효과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의 경우 삶에 활력이 생겼다가 각각 40.6%, 50.0%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공익형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워졌다가 43.8%로 나타나 참여형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60대의 경우는 삶에 활력이 생겼다가 32.6%로 가장 많았으나 70대와 80대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생겼다가 4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달라진 점

구분		삶에 활력이 생겼다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워졌다	친구가 많이 생겼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	고독감이 많이 해소되었다
성별	남성	33.7	34.9	8.1	19.8	3.5
	여성	35.2	42.3	10.6	9.9	2.1
연령	60대	32.6	26.1	6.5	28.3	6.5
	70대	38.0	41.9	8.5	10.9	0.8
	80대 이상	30.2	43.4	15.1	7.5	3.8
학력	초졸이하	31.7	51.9	9.6	4.8	1.9
	중졸이하	36.7	34.7	14.3	8.2	6.1
	고졸이하	32.6	27.9	4.7	32.6	2.3
	대졸이상	54.5	4.5	9.1	31.8	
참여기간	1년 미만	44.1	23.5	14.7	17.6	
	1-2년 미만	37.3	37.3	5.9	17.6	2.0
	2-3년 미만	41.3	37.0	8.7	13.0	
	3년 이상	27.3	46.5	10.1	11.1	5.1
거주지역	시 지역	29.9	34.6	9.3	22.4	3.7
	군 지역	35.1	45.0	10.8	7.2	1.8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28.2	36.6	16.9	16.9	1.4
	대한노인회 외	38.5	41.0	6.4	10.9	3.2
참여형태	공익형	31.8	43.8	10.2	11.4	2.8
	사회서비스형	40.6	18.8	6.3	34.4	
	시장형	50.0	37.5	6.3		6.3
	전체	35.1	39.0	9.6	13.6	2.6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 실태

노인일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 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의견이 85.7%였고, 교육의 경험이 없다는 의견도 14.3%정도 였다. 교육을 받은 경우, 그 형태로는 교양 및 소양교육(62.6%)과 직무관련교육(29.8%)을 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유형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는 직무관련교육이 50.0%로 가장 많았으나 70대와 80대 이상인 고령노인의 경우는 교양 및 소양교육을 받은 경우가 60%를 상회하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을 받은 횟수로는 전체적으로 1년에 2회 이하인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년에 4회 이하(37.9%), 1년에 5회 이상(16.6%) 등의 순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노인일자리 사업 전 교육 여부

구분		교육여부		교육 유형				교육 횟수			
		받음	받지 않음	직무 관련 교육	교양 소양 교육	단순 교육	기타	1년 1회 이하	1년 2회 이하	1년 4회 이하	1년 5회 이상
성별	남성	79.1	20.9	36.2	52.2	11.6		7.7	42.3	38.5	11.5
	여성	88.0	12.0	25.0	68.3	4.8	1.9	3.8	40.6	36.1	19.5
연령	60대	57.7	42.3	50.0	40.6	6.3	3.1	7.1	57.1	21.4	14.3
	70대	91.8	8.2	22.4	70.4	6.1	1.0	2.5	43.7	39.5	14.3
	80대 이상	96.3	3.7	31.7	61.0	7.3		10.0	18.0	48.0	24.0
학력	초졸이하	98.1	1.9	11.9	76.2	10.7	1.2	2.0	33.0	53.0	12.0
	중졸이하	80.0	20.0	46.9	40.6	12.5		2.4	38.1	31.0	28.6
	고졸이하	72.0	28.0	57.7	42.3			10.8	48.6	16.2	24.3
	대졸이상	63.6	36.4	42.9	52.4		4.8	12.5	62.5	16.7	8.3
참여 기간	1년 미만	66.7	33.3	33.3	58.3	4.2	4.2	17.9	46.4	32.1	3.6
	1-2년 미만	88.9	11.1	40.5	45.9	10.8	2.7	4.3	34.8	34.8	26.1
	2-3년 미만	88.9	11.1	36.4	54.5	9.1		7.0	55.8	20.9	16.3
	3년 이상	88.4	11.6	20.3	73.4	6.3		1.0	35.4	47.9	15.6
거주 지역	시 지역	89.6	10.4	47.3	50.0	1.4	1.4	8.1	31.3	27.3	33.3
	군 지역	75.6	24.4	13.8	73.6	11.5	1.1	1.0	48.5	49.5	1.0
수행 기관	대한노인회	96.0	4.0	27.9	68.9	3.3		9.0	55.2	31.3	4.5
	대한노인회 외	80.8	19.2	30.6	57.7	9.9	1.8	2.8	34.3	41.3	21.7
참여 형태	공익형	85.7	14.3	23.1	70.1	6.0	0.7	3.8	38.4	37.7	20.1
	사회서비스형	75.0	25.0	52.2	43.5		4.3	9.4	53.1	31.3	6.3
	시장형	100.0		54.5		45.5		11.8	23.5	58.8	5.9
	전체	85.7	14.3	29.8	62.6	6.4	1.2	5.2	40.3	37.9	16.6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의 만족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49.1%, 매우 만족이 32.1%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81.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만족이 46.2%, 매우 만족이 33.0%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9.2%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형태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시장형 참여인 경우가 94.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 또한 시장형이 94.1%로 나타나 시장형 참여노인이 교육의 내용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참여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경우 소양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에는 교육내용 및 강사의 전문성 재고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4〉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분	교육내용						교육강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성별												
남성			25.6	42.3	32.1		74.4		21.8	48.7	29.5	78.2
여성	0.7		14.9	52.2	32.1	0.7	84.3	0.7	19.4	44.8	35.1	79.9
연령												
60대	2.4		21.4	38.1	38.1	2.4	76.2	2.4	19.0	40.5	38.1	78.6
70대			19.2	55.0	25.8		80.8		23.3	49.2	27.5	76.7
80대 이상			14.0	44.0	42.0		86.0		14.0	44.0	42.0	86.0
학력												
초졸이하			16.8	55.4	27.7		83.1		21.8	48.5	29.7	78.2
중졸이하	2.4		19.0	38.1	40.5	2.4	78.6		16.7	40.5	42.9	83.4
고졸이하			25.0	30.6	44.4		75.0		22.2	36.1	41.7	77.8
대졸이상			21.7	56.5	21.7		78.2	4.3	21.7	56.5	17.4	73.9
참여기간												
1년 미만			11.1	40.7	48.1		88.8		14.8	40.7	44.4	85.1
1-2년 미만			12.8	42.6	44.7		87.3		14.9	40.4	44.7	85.1
2-3년 미만			38.6	31.8	29.5		61.3		36.4	34.1	29.5	63.6
3년 이상	1.0		15.6	61.5	21.9	1.0	83.4	1.0	17.7	56.3	25.0	81.3
거주지역												
시 지역	1.0		14.9	36.6	47.5	1.0	84.1	1.0	16.8	30.7	51.5	82.2
군 지역			19.8	63.4	16.8		80.2		21.8	63.4	14.9	78.3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22.1	48.5	29.4		77.9		27.9	42.6	29.4	72.0
대한노인회 외	0.7		18.2	48.3	32.9	0.7	81.2	0.7	16.8	48.3	34.3	82.6
참여형태												
공익형	0.6		19.9	48.4	31.1	0.6	79.5		22.4	44.7	32.9	77.6
사회서비스형			21.9	40.6	37.5		78.1	3.1	15.6	46.9	34.4	81.3
시장형			5.9	58.8	35.3		94.1		5.9	58.8	35.3	94.1
전체	0.5		18.4	49.1	32.1	0.5	81.2	0.5	20.3	46.2	33.0	79.2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51.4%, 매우 만족이 31.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82.4%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교육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내용과 강사, 교육공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8.8%,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35.5%로 나타나 교육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참여형태별로 보면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의 경우 만족도가 90%를 상회하며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익형의 경우는 교육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81.3%로 공익형 노인의 참여자가 사회서비스형보다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형은 주로 집단형식의 소양교육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교육공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5〉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분	교육시간								교육공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b)	(d+e)	
성별																
남성			23.1	47.4	29.5		76.9		1.3	19.2	43.6	35.9	1.3	79.5		
여성			14.4	53.8	31.8		85.6		0.8	12.8	51.1	35.3	0.8	86.4		
연령																
60대			19.5	48.8	31.7		80.5			17.1	48.8	34.1		82.9		
70대			18.5	55.5	26.1		81.6		0.8	16.7	51.7	30.8	0.8	82.5		
80대 이상			14.0	44.0	42.0		86.0			10.0	42.0	48.0		90.0		
학력																
초졸이하			19.2	54.5	26.3		80.8			17.0	53.0	30.0		83.0		
중졸이하			14.3	42.9	42.9		85.8		2.4	16.7	38.1	42.9	2.4	81.0		
고졸이하			22.2	36.1	41.7		77.8			16.7	33.3	50.0		83.3		
대졸이상			17.4	65.2	17.4		82.6		4.3	8.7	60.9	26.1	4.3	87.0		
참여기간																
1년 미만			11.1	48.1	40.7		88.8		3.7	7.4	44.4	44.4	3.7	88.8		
1-2년 미만			10.9	45.7	43.5		89.2			10.9	43.5	45.7		89.2		
2-3년 미만			34.1	34.1	31.8		65.9		2.3	27.3	36.4	34.1	2.3	70.5		
3년 이상			15.8	63.2	21.1		84.3			14.6	57.3	28.1		85.4		
거주지역																
시 지역			15.2	37.4	47.5		84.9		1.0	14.0	33.0	52.0	1.0	85.0		
군 지역			18.8	67.3	13.9		81.2		1.0	14.9	65.3	18.8	1.0	84.1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19.1	51.5	29.4		80.9			20.6	47.1	32.4		79.5		
대한노인회 외			17.0	51.8	31.2		83.0		0.7	13.4	49.3	36.6	0.7	85.9		
참여형태																
공익형			19.5	50.9	29.6		80.5		0.6	18.1	48.8	32.5	0.6	81.3		
사회서비스형			12.5	50.0	37.5		87.5			6.3	40.6	53.1		93.7		
시장형			5.9	58.8	35.3		94.1			5.9	58.8	35.3		94.1		
전체			17.6	51.4	31.0		82.4		0.5	15.2	48.8	35.5	0.5	84.3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전체적으로 교양 및 소양교육이 4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자리 전문성 강화 교육(40.3%), 직무관련 교육(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형태별로 공익형의 경우는 교양 및 소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에서는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71.0%,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일자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시장형의 경우 업종에 따라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58.1%,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도 35.1%로 전반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교육확대가 필요한 분야 및 교육의 필요성

구분		확대가 필요한 교육분야				노인일자리교육의 필요성					
		직무관련 교육	전문성 강화교육	교양소양 교육	기타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필요
성별	남성	15.4	47.4	34.6	2.6	3.3	6.7	51.7	38.3	10.0	90.0
	여성	15.6	35.9	45.3	3.1		4.4	61.1	34.4	4.4	95.5
연령	60대	15.4	61.5	20.5	2.6		2.5	52.5	45.0	2.5	97.5
	70대	14.5	39.3	41.9	4.3	1.3	7.7	59.0	32.1	9.0	91.1
	80대 이상	18.0	26.0	56.0		3.3	3.3	63.3	30.0	6.6	93.3
학력	초졸이하	14.1	32.3	50.5	3.0		5.3	71.9	22.8	5.3	94.7
	중졸이하	22.5	37.5	35.0	5.0	3.6	7.1	46.4	42.9	10.7	89.3
	고졸이하	19.4	50.0	27.8	2.8	2.7	5.4	40.5	51.4	8.1	91.9
	대졸이상	9.1	72.7	18.2				56.5	43.5		100.0
참여 기간	1년 미만	15.4	53.8	30.8			3.8	65.4	30.8	3.8	96.2
	1~2년 미만	19.6	45.7	26.1	8.7		7.7	34.6	57.7	7.7	92.3
	2~3년 미만	20.9	41.9	34.9	2.3		14.3	39.3	46.4	14.3	85.7
	3년 이상	10.8	34.4	53.8	1.1	2.8	1.4	70.4	25.4	4.2	95.8
거주 지역	시 지역	15.6	41.7	42.7		3.4	3.4	42.4	50.8	6.8	93.2
	군 지역	13.0	39.0	43.0	5.0		7.1	70.2	22.6	7.1	92.8
수행 기관	대한노인회	7.5	35.8	56.7		3.0		45.5	51.5	3.0	97.0
	대한노인회 외	18.8	43.5	33.3	4.3	0.9	7.1	60.7	31.3	8.0	92.0
참여 형태	공익형	17.3	29.5	50.0	3.2	1.8	6.2	55.8	36.3	8.0	92.1
	사회서비스형	12.9	71.0	12.9	3.2			62.1	37.9		100.0
	시장형		93.8	6.3				66.7	33.3		100.0
전체		15.5	40.3	41.3	2.9	1.4	5.4	58.1	35.1	6.8	93.2

4)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중 월 보수에 대한 만족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38.6%, 매우 만족한다 20.3%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58.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형태별로는 시장형 참여노인의 경우 월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70.6%로 가장 높았고,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57%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업무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이 45.8%, 매우 만족 27.3%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3.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형태별로 보면, 시장형 참여노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94.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공익형(73.7%), 사회서비스형(60.0%)의 순으로 높았다.

〈표 5-27〉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1

구분		월 보수						업무의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b)	(d+e)
성별	남성	2.3	12.6	26.4	37.9	20.7	14.9	58.6		2.3	25.0	46.6	26.1	2.3	72.7
	여성		12.0	30.7	38.0	19.3	12.0	57.3	0.7	2.0	25.8	44.4	27.2	2.7	71.6
연령	60대		21.2	19.2	36.5	23.1	21.2	59.6	1.9	1.9	32.7	36.5	26.9	3.8	63.4
	70대	1.5	8.5	33.8	40.0	16.2	10.0	56.2		2.3	24.2	50.8	22.7	2.3	73.5
	80대 이상		11.1	24.1	37.0	27.8	11.1	64.8		1.9	16.7	42.6	38.9	1.9	81.5
학력	초졸이하		9.4	28.3	46.2	16.0	9.4	62.2		0.9	20.8	53.8	24.5	0.9	78.3
	중졸이하	1.9	17.3	30.8	25.0	25.0	19.2	50.0		3.8	28.8	34.6	32.7	3.8	67.3
	고졸이하		9.1	29.5	38.6	22.7	9.1	61.3			26.7	42.2	31.1		73.3
	대졸이상	4.0	24.0	20.0	32.0	20.0	28.0	52.0	3.8	7.7	30.8	34.6	23.1	11.5	57.7
참여기간	1년 미만	5.4	10.8	29.7	29.7	24.3	16.2	54.0		5.3	26.3	36.8	31.6	5.3	68.4
	1-2년 미만		15.1	24.5	32.1	28.3	15.1	60.4	1.9	3.8	18.9	43.4	32.1	5.7	75.5
	2-3년 미만		15.2	32.6	34.8	17.4	15.2	52.2			40.4	29.8	29.8		59.6
	3년 이상		9.7	29.1	45.6	15.5	9.7	61.1		1.0	21.4	56.3	21.4	1.0	77.7
거주지역	시 지역	1.8	12.4	28.3	27.4	30.1	14.2	57.5	0.9	3.5	21.7	37.4	36.5	4.4	73.9
	군 지역		9.7	30.1	52.2	8.0	9.7	60.2			27.4	56.6	15.9		72.5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2.7	15.1	23.3	38.4	20.5	17.8	58.9	1.4	2.7	21.9	52.1	21.9	4.1	74.0
	대한노인회 외		9.9	31.5	38.3	20.4	9.9	58.7		1.2	26.4	42.9	29.4	1.2	72.3
참여형태	공익형	0.6	10.6	31.1	38.3	19.4	11.2	57.7	0.5	1.1	24.7	45.1	28.6	1.6	73.7
	사회서비스형	2.9	14.3	25.7	31.4	25.7	17.2	57.1		5.7	34.3	31.4	28.6	5.7	60.0
	시장형		11.8	17.6	58.8	11.8	11.8	70.6			5.9	88.2	5.9		94.1
	전체	0.8	11.9	28.4	38.6	20.3	12.7	58.9	0.4	2.1	24.4	45.8	27.3	2.5	73.1

노인일자리사업의 업무 강도에 대한 만족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6.6%,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28.2%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4.8%로 높은 수준이었다. 참여형태별로는 시장형 참여노인의 경우 업무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94.2%로 가장 높았고, 공익형(74.8%), 사회서비스형(68.6%)의 순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업무강도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강도의 만족도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1.2%,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30.7%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1.9%로 높은 수준이었다. 참여형태별로는 시장형 참여노인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88.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익형(72.0%), 사회서비스형(68.5%)의 순서대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다른 일자리 유형보다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행기관의 근무환경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8〉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2

구분		업무 강도						근무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	(b)	(c)	(d)	(e)	(a+b)	(d+e)	(a)	(b)	(c)	(d)	(e)
성별	남성		3.4	23.9	46.6	26.1	3.4	72.7	1.1		31.8	34.1	33.0
	여성	0.7	2.6	21.9	46.4	28.5	3.3	74.9		1.3	24.5	45.7	28.5
연령	60대	1.9	1.9	26.9	42.3	26.9	3.8	69.2	1.9		25.0	40.4	32.7
	70대		3.8	21.2	49.2	25.8	3.8	75.0		1.5	31.8	38.6	28.0
	80대 이상		1.9	18.5	44.4	35.2	1.9	79.6			16.7	48.1	35.2
학력	초졸이하		0.9	20.8	53.8	24.5	0.9	78.3		0.9	25.5	47.2	26.4
	중졸이하		5.8	21.2	36.5	36.5	5.8	73.0		1.9	21.2	46.2	30.8
	고졸이하		2.2	24.4	40.0	33.3	2.2	73.3			33.3	26.7	40.0
	대졸이상	3.8	7.7	30.8	38.5	19.2	11.5	57.7	3.8		38.5	30.8	26.9
참여기간	1년 미만		10.5	23.7	34.2	31.6	10.5	65.8		2.6	36.8	21.1	39.5
	1-2년 미만	1.9		18.9	43.4	35.8	1.9	79.2		1.9	22.6	34.0	41.5
	2-3년 미만		2.1	34.0	31.9	31.9	2.1	63.8			34.0	29.8	36.2
	3년 이상		1.9	19.4	58.3	20.4	1.9	78.7	1.0		23.3	57.3	18.4
거주지역	시 지역	0.9	4.3	20.0	36.5	38.3	5.2	74.8	0.9	1.7	23.5	33.0	40.9
	군 지역		0.9	23.9	58.4	16.8	0.9	75.2			31.0	50.4	18.6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1.4	2.7	26.0	46.6	23.3	4.1	69.9	1.4		32.9	38.4	27.4
	대한노인회 외		1.8	21.5	46.6	30.1	1.8	76.7		0.6	24.5	42.9	31.9
참여형태	공익형	0.5	1.6	23.1	45.1	29.7	2.1	74.8		0.5	27.5	44.0	28.0
	사회서비스형		5.7	25.7	40.0	28.6	5.7	68.6	2.9		28.6	31.4	37.1
	시장형			5.9	82.4	11.8		94.2			11.8	47.1	41.2
전체		0.4	2.9	21.8	46.6	28.2	3.3	74.8	0.4	0.8	26.9	41.2	30.7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6.2%,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34.5%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80.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참여형태별로는 시장형 참여노인의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족도의 수준이 80%정도 였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5.6%,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28.3%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3.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형태별로 보면, 시장형 참여노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87.5%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공익형(73.6%), 사회서비스형(6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표 5-2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3

구분		동료관계						근로시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b)	(d+e)
성별	남성		2.3	22.7	42.0	33.0	2.3	75.0		3.4	26.1	43.2	27.3	3.4	70.5
	여성	0.7	0.7	15.2	49.7	33.8	1.4	83.5		0.7	25.3	46.0	28.0	0.7	74.0
연령	60대	1.9		19.2	42.3	36.5	1.9	78.8		3.8	26.9	38.5	30.8	3.8	69.3
	70대		1.5	19.7	46.2	32.6	1.5	78.8		0.8	27.3	47.7	24.2	0.8	71.9
	80대 이상		1.9	11.1	50.0	37.0	1.9	87.0			17.0	47.2	35.8		83.0
학력	초졸이하			12.3	55.7	32.1		87.8		0.9	24.5	51.9	22.6	0.9	74.5
	중졸이하		5.8	19.2	40.4	34.6	5.8	75.0		3.8	19.2	42.3	34.6	3.8	76.9
	고졸이하			17.8	37.8	44.4		82.2			27.3	34.1	38.6		72.7
	대졸이상	3.8		34.6	38.5	23.1	3.8	61.6		3.8	38.5	38.5	19.2	3.8	57.7
참여 기간	1년 미만			28.9	34.2	36.8		71.0		5.4	27.0	40.5	27.0	5.4	67.5
	1~2년 미만	1.9		17.0	34.0	47.2	1.9	81.2			26.4	32.1	41.5		73.6
	2~3년 미만		2.1	21.3	36.2	40.4	2.1	76.6		2.1	31.9	36.2	29.8	2.1	66.0
	3년 이상		1.9	12.6	62.1	23.3	1.9	85.4		1.0	21.4	57.3	20.4	1.0	77.7
거주 지역	시 지역	0.9	0.9	20.0	31.3	47.0	1.8	78.3		1.8	20.2	35.1	43.0	1.8	78.1
	군 지역		1.8	15.9	61.1	21.2	1.8	82.3		1.8	30.1	56.6	11.5	1.8	68.1
수행 기관	대한노인회	1.4		17.8	52.1	28.8	1.4	80.9		1.4	30.6	44.4	23.6	1.4	68.0
	대한노인회 외		1.8	16.6	44.8	36.8	1.8	81.6		1.2	22.7	46.0	30.1	1.2	76.1
참여 형태	공익형	0.5	1.1	18.1	50.0	30.2	1.6	80.2		1.6	24.7	43.4	30.2	1.6	73.6
	사회서비스형			20.0	40.0	40.0		80.0			31.4	40.0	28.6		68.6
	시장형				29.4	70.6		100.0			12.5	87.5			87.5
전체		0.4	1.3	17.6	46.2	34.5	1.7	80.7		1.3	24.9	45.6	28.3	1.3	73.9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5.6%,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36.7%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82.3%로 높은 수준이었다. 참여형태별로 보면, 시장형 참여노인의 소속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88.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서비스형(80.0%), 공익형(7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47.1%,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30.7%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77.8%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참여형태별로 보면, 시장형 참여노인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88.2%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서비스형(80.0%), 공익형(7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유형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의 만족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참여노인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도 요구된다.

〈표 5-30〉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4

구분	소속기관과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a)	(b)	(c)	(d)	(e)	(a+b)	(d+e)		(a)	(b)	(c)	(d)	(e)	(a+b)	(d+e)	
성별	남성	1.1	18.2	40.9	39.8	1.1	80.7		1.1	28.4	39.8	30.7	1.1	70.5		
	여성		17.3	49.3	33.3		82.6			19.9	51.0	29.1		80.1		
연령	60대	1.9	17.3	42.3	38.5	1.9	80.8		1.9	23.1	42.3	32.7	1.9	75.0		
	70대		18.2	47.7	34.1		81.8			23.5	51.5	25.0		76.5		
	80대 이상		15.1	43.4	41.5		84.9			16.7	40.7	42.6		83.3		
학력	초졸이하		16.0	50.0	34.0		84.0			20.8	52.8	26.4		79.2		
	중졸이하		17.3	44.2	38.5		82.7			21.2	46.2	32.7		78.9		
	고졸이하		13.6	38.6	47.7		86.3			26.7	35.6	37.8		73.4		
	대졸이상	3.8	26.9	38.5	30.8	3.8	69.3		3.8	26.9	42.3	26.9	3.8	69.2		
참여기간	1년 미만	2.7	13.5	43.2	40.5	2.7	83.7		2.6	21.1	42.1	34.2	2.6	76.3		
	1-2년 미만		18.9	32.1	49.1		81.2			20.8	37.7	41.5		79.2		
	2-3년 미만		23.4	38.3	38.3		76.6			34.0	36.2	29.8		66.0		
	3년 이상		15.5	57.3	27.2		84.5			19.4	57.3	23.3		80.6		
거주지역	시 지역	0.9	17.5	37.7	43.9	0.9	81.6		0.9	17.4	37.4	44.3	0.9	81.7		
	군 지역		16.8	55.8	27.4		83.2			25.7	59.3	15.0		74.3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19.4	52.8	27.8		80.6			26.0	45.2	28.8		74.0		
	대한노인회 외		16.0	43.6	40.5		84.1			20.9	47.9	31.3		79.2		
참여형태	공익형		19.2	48.4	32.4		80.8			23.6	46.2	30.2		76.4		
	사회서비스형		14.3	40.0	45.7		85.7			20.0	48.6	31.4		80.0		
	시장형			37.5	62.5		100.0			11.8	58.8	29.4		88.2		
전체		0.4	17.3	45.6	36.7	0.4	82.3		0.4	21.8	47.1	30.7	0.4	77.8		

5)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과제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전체적으로 적정보수의 지급이 44.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이 34.6%,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저소득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이 일부 시장형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30만원 전후의 낮은 급여로 제공되고 있어 급여개선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태별로 보면, 공익형 참여노인과 시장형 참여노인의 경우 적정보수의 지급이 각각 51.4%, 35.3%로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은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이 43.8%로 나타나 참여형태에 따라 개선 필요부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형의 경우 적정보수의 지급과 함께 적합일자리의 개발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향후 정책과제 제안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5-31〉 노인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구분		적정보수지급	일자리 수행기관 전문성강화	노인적합 일자리개발	노인대상전문 교육강화	노인에대한 사회적편견 해소	노인근무기관 근로조건개선
성별	남성	47.2	1.1	31.5	7.9	7.9	4.5
	여성	43.8	2.1	35.6	6.8	8.2	3.4
연령	60대	24.5	4.1	46.9	14.3	8.2	2.0
	70대	46.2	1.5	33.1	4.6	10.8	3.8
	80대 이상	56.4		27.3	9.1	1.8	5.5
학력	초졸이하	55.8	1.0	27.9	3.8	7.7	3.8
	중졸이하	37.7	1.9	39.6	9.4	7.5	3.8
	고졸이하	42.2		35.6	15.6	2.2	4.4
	대졸이상	21.7	8.7	43.5	4.3	17.4	4.3
참여 기간	1년 미만	22.5	2.5	42.5	10.0	17.5	5.0
	1-2년 미만	42.0	4.0	30.0	10.0	12.0	2.0
	2-3년 미만	50.0		34.8	2.2	4.3	8.7
	3년 이상	52.5	1.0	32.7	7.9	4.0	2.0
거주 지역	시 지역	39.1	2.7	36.4	6.4	9.1	6.4
	군 지역	50.4	0.9	34.5	8.0	5.3	0.9
수행 기관	대한노인회	39.1		44.9	8.7	4.3	2.9
	대한노인회 외	47.8	1.3	30.2	7.5	9.4	3.8
참여 형태	공익형	51.4	0.6	33.9	4.0	5.6	4.5
	사회서비스형	15.6	6.3	43.8	21.9	12.5	
	시장형	35.3		23.5	17.6	23.5	
	전체	44.0	1.7	34.6	7.7	8.1	3.8

6

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사

-
1. 노인일자리 선발과정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지원정책

제6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사

1. 노인일자리 선발과정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노인일 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혹은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와 함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기관의 분포를 보면, 총 104개의 수행기관 중에서 노인복지관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15개 기관, 시니어클럽 11개 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총 10개 기관이었다. 대체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기관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등의 주요 복지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조사대상 기관도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표 6-1〉 기관별 응답 분포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기타	합계
빈도	11	14	15	21	9	10	24	104
비율(%)	10.6%	13.5%	14.4%	20.2%	8.7%	9.6%	23.1%	100%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공익형의 경우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역량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참여자 선발 시 중요 기준

구분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인정액	32	30.8	1	2.5	4	7
세대주 형태	1	1.0	2	5	4	7
생애경력	2	1.9	0	0	0	0
역량	5	4.8	21	52.5	33	59
노인일자리사업참여경력	4	3.8	6	15	3	6
건강상태	60	57.7	10	25	12	2
전체	104	100	40	100	56	100

〈표 6-3〉 사업유형별 적정연령

구분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4.8	72	54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8	22	42
만 70세 이상-75세 미만	45.2	4	4
만 75세 이상-80세 이상	12.5	0	0
만 80세 이상	0.0	0	0
기타	6.7	2	0
전체(비율%)	100	100	100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정연령으로는 공익형의 경우 70세 이상 75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30.8% 등의 순이었다. 시장형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보다는 60세에서 65세 미만의 비교적 초로기 노인을 더욱 적정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사회서비스형도 시장형과 마찬가지로 60세에서 65세 미만의 비교적 초로기 노인을 더욱 적정한 연령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수행기관 욕구조사 결과는 노인의 연령대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참여유형의 선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익형의 경우 참여자의 관리와 교육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그리고 행정 및 전산업무의 수행 등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시장형의 경우 예산부족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 및 전산업무 등으로 포함한 업무수행으로 과다한 업무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4〉 사업별 운영 관련 어려움

구분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8.3	5	5
참여자 관리 및 교육	36.6	8	8
수혜자, 수요처 발굴 및 관리	22	15	15
신규 사업 개발	4.8	18	18
지역사회와의 협력	4.8	5	5
예산부족(인력 및 사업비)	2.9	26	26
행정 및 전산 업무(인사, 노무, 회계 포함)	10.6	23	23
전체	100	100	100

〈표 6-5〉 지자체, 타 수행기관의 협조 필요 영역

구분	지자체		타 수행기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업에 대한 지역 내 홍보	15	14.4	2	1.9
지역 내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실시	22	21.2	5	4.8
초기사업정착과정지도 및 안내	14	13.5	5	4.8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4	3.8	1	1.0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4	3.8	1	1.0
사업단생산품의 직접구매	5	4.8	6	5.8
지역 내 사업운영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14	13.5	55	52.9
수요처(수혜자) 확보를 위한지원	17	16.3	6	5.8
없음&무응답	9	8.7	23	22.1
전체	104	100	104	100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내 전체 노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요자 및 수요처 확보, 지역내 사업운영기관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지자체 이외의 타수행기관에 대한 지원필요 분야에서는 지역내 타 사업운영기관간의 협력체계 활성화가 5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지원, 지역내 통합교육과 초기사업 정착을 위한 지도 및 안내 등도 5% 내외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단의 업무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시장형 사업단이 홍보와 판로확대 등의 사업에 많은 업무를 투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도 참여노인의 관리 25.7%, 사업단 운영 및 회계업무 20.0% 정도의 업무가 투입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시장형 사업단의 매출확대를 위해 대다수 업무가 홍보와 판로확대 등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6〉 시장형 사업단 업무 비중

(단위: 개소, %)

주요 업무	빈도	비율(%)
홍보 및 판로확대 등	19	54.3
참여노인관리	9	25.7
사업단운영(회계, 행정업무 등)	7	20.0
합계	35	100.0

〈표 6-7〉 시장형 사업의 애로사항(중복응답)

애로 사항	응답		케이스 %
	N	%	
초기투자비용 및 사업비 지원부족	19	28.4%	55.9%
전문컨설팅 기회부족	8	11.9%	23.5%
참여자노동능력 및 전문성부족	14	20.9%	41.2%
실무자업무과중	5	7.5%	14.7%
실무자역량부족(전문지식부족)	2	3.0%	5.9%
사업자등록, 세제 및 법규문제	6	9.0%	17.6%
판로개척의 어려움	13	19.4%	38.2%
합계	67	100.0%	197.1%

시장형 사업단의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비용 및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여자의 노동능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0.9% 그리고 판로개척의 어려움 19.4%, 전문 컨설팅 기회 부족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시장형 사업단이 초기 투자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노인 참여자의 역량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시장형 사업단이 다양한 행정업무 이외에도 판로개척 등의 업무에 집중됨으로써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따라서 시장형 사업단의 운영에 있어 인력의 지원 그리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근로의지의 문제에 더하여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은 향후 선발과정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경우 노인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참여노인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의견에는 평균 4.29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업무시간 연장으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의견은 3.46점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은 3.83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기여하는 수준

항 목	빈도	합계	평균	표준편차
참여노인의 소득증대	52	223	4.29	.723
업무시간 연장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52	180	3.46	.874
지역사회 사회공헌	52	199	3.83	.857

〈표 6-9〉 사회서비스형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애로 사항	빈도	비율(%)
참여자(전문성부족)	11	20.8
수요처 부족	11	20.8
참여자관리방법(인사, 노무, 회계등)	16	30.2
전문화된 매뉴얼 부재	13	24.5
없음	1	1.9
기타	1	1.9
전체	53	100.0

한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어려운 점으로는 참여자의 관리방법의 어려움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화된 매뉴얼의 부재 24.5%, 참여자의 전문성부족과 수요처의 부족이 각각 20.5% 등의 순이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일정정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장형 일자리와 유사하게 참여노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수요처 부족과 참여자관리방법 등의 업무과다의 문제는 여전히 인력의 보강 혹은 인력의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대안으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사업유형별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익형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높았고,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필요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참여자를 위한 전문교육의 제공 그리고 사업내용의 질적향상과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형은 사업유형의 중복성문제, 그리고 시장형을 경제적 지원의 부족문제, 사회서비스형은 참여노인의 전문성 문제가 가장 큰 개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표 6-10〉 사업 유형 별 개선 및 지원사항

구분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참여자 자격 기준 완화	14	13.9	1	2.9	8	15.1
참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제공	13	12.9	3	8.8	12	22.6
아이템의 질적 향상 및 다양한 아이템 개발	16	15.8	2	5.9	8	15.1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해결	21	20.8	2	5.9	7	13.2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추가지원	13	12.9	4	11.8	4	7.5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15	14.9	2	5.9	9	17
사업초기 필요비용 확대지원	2	2.0	13	38.2	2	3.8
사업운영 컨설팅 지원 강화	4	4.0	7	20.6	3	5.7
없음&모름	3	3.0	0	0	0	0
전체	101	100	34	100	53	100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지원정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원하는 정책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신규일자리 사업 개발 지원 그리고 신규 전담직원의 행정 교육, 사업유형별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의 제공 등이 가장 높았다.

〈표 6-11〉 수행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조사(전체항목)

구분	지원내용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사업 운영 및 컨설팅	인사노무 및 세무회계컨설팅	1	9	6.33
	홍보·마케팅(온라인홍보, 판매전략 컨설팅 등)	1	9	6.01
	노인생산물전문분야컨설팅	1	9	5.74
	신규일자리사업 및 아이템 개발 지원	2	9	7.16
	(신규사업) 초기세팅 컨설팅	1	9	6.78
노인생산물 홍보 및 운영 지원	노인생산물판매부스지원 및 전시	1	9	5.74
	노인생산물 공동 카다로그 제작지원	1	9	5.60
	노인생산물홍보시안 및 영상제작지원	1	9	5.95
전문 교육 및 성과향상 지원	신규전담인력행정교육(회계, 전산교육 등)	1	9	7.40
	사업유형별 전문교육지원(실무자)	1	9	7.57
	참여노인직무역량향상 교육(참여자)	1	9	6.67
	참여노인 소양교육 강사지원(참여자)	1	9	6.90
	평가대비교육(년도별 평가준비)	1	9	6.71
	평가저하시군현장컨설팅 및 교육	1	9	6.11
	우수운영기관노하우 전수교육	1	9	6.79
	민·관순회 간담회(담당공무원 및 실무자)	1	9	6.20
네트워크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실무자협의체 구성	1	9	6.57
	우수시·도 벤치마킹지원	1	9	6.49
	수행기관워크숍 및 노인일자리포럼	1	9	6.59
	전라북도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뉴스레터제작	1	9	5.81

다음으로 사업운영 및 컨설팅에 대한 욕구에서는 사업수행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규사업 개발지원, 초기사업 컨설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6-12〉 사업운영 및 컨설팅 지원 욕구

기관유형	인사노무 회계 컨설팅	홍보 마케팅	노인생산물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지원	초기세팅 컨설팅
지자체	4.33	4.67	4.78	6.22	5.11
시니어클럽	8.00	7.57	7.29	8.21	8.36
대한노인회	7.07	6.43	5.73	7.33	6.93
노인복지관	5.40	5.50	5.59	6.90	6.25
종합사회복지관	7.78	6.56	6.00	7.67	7.50
전담기관	5.56	6.78	5.44	6.00	6.44
노인복지센터	6.17	5.22	5.32	7.26	6.70
최대 값	9	9	9	9	9
합계	6.33	6.01	5.74	7.16	6.78

〈표 6-13〉 노인생산물 홍보 및 운영 지원 욕구

기관유형	노인생산물판매부스 지원 및 전시	노인생산물 공동 카탈로그 제작지원	노인 생산물 홍보시안 및 영상제작 지원
지자체	5.44	5.44	5.56
시니어클럽	6.86	6.50	7.21
대한노인회	5.38	5.43	6.08
노인복지관	5.47	5.35	5.71
종합사회복지관	5.83	6.00	6.00
노인일자리전담기관	6.12	6.00	6.50
노인복지센터	5.35	5.10	5.15
최대 값	9	9	9
합계	5.74	5.60	5.95

노인 생산물 홍보 및 운영의 지원에서는 대체로 노인생산물에 대한 홍보시안 및 영상 제작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수행기관별로 보면,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홍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았고, 공동카탈로그 제작지원의 경우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생산물 판매부스 지원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교육 및 성과향상 지원에서는 실무자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규전담인력 행정교육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노인일자리의 수행기관별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원이 상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14〉 전문교육 및 성과향상 지원

기관유형	신규전담인 력행정교육	실무자 전문교육	참여노인직 무역량향상 교육	참여노인 소양교육 강사지원	평가대비 교육	평가저하기 관 컨설팅	우수 운영기관 전수교육
지자체	6.44	6.33	6.00	6.56	6.00	5.67	6.22
시니어클럽	7.57	8.21	7.21	7.07	6.64	5.93	6.14
대한노인회	8.14	8.36	7.07	7.21	6.40	5.73	7.27
노인복지관	7.53	7.10	6.20	6.50	6.26	6.11	6.70
종합사회복지관	7.89	8.33	6.89	7.22	7.44	7.00	7.33
전담기관	7.22	7.56	6.33	6.56	6.33	5.56	6.22
노인복지센터	7.00	7.30	6.83	7.09	7.48	6.52	7.17
최대 값	9	9	9	9	9	9	9
합계	7.40	7.57	6.67	6.90	6.71	6.11	6.79

7

장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 분석

제7장.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 분석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의 원자료(2019년)를 활용하여 시도별 노인일 자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17개 시도 전체에서 약 3천여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중 여성이 61.7%, 연령별로는 70~74세가 30.5%, 학력별로는 초졸학력이 33.0%로 많았다.

〈표 7-1〉 지역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응답현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학력				
		남성	여성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서울	371 (100.0)	118 (31.8)	253 (68.2)	8 (2.2)	42 (11.3)	125 (33.7)	124 (33.4)	72 (19.4)	15 (4.0)	85 (22.9)	86 (23.2)	130 (35.0)	55 (14.8)
부산	222 (100.0)	88 (39.6)	134 (60.4)	4 (1.8)	42 (18.9)	76 (34.2)	69 (31.1)	31 (14.0)	3 (1.4)	65 (29.3)	84 (37.8)	57 (25.7)	13 (5.9)
대구	144 (100.0)	42 (29.2)	102 (70.8)	8 (5.6)	28 (19.4)	44 (30.6)	42 (29.2)	22 (15.3)	6 (4.2)	40 (27.8)	44 (30.6)	42 (29.2)	12 (8.3)
인천	188 (100.0)	64 (34.0)	124 (66.0)	9 (4.8)	41 (21.8)	62 (33.0)	56 (29.8)	20 (10.6)	8 (4.3)	48 (25.5)	47 (25.0)	58 (30.9)	27 (14.4)
광주	127 (100.0)	51 (40.2)	76 (59.8)	4 (3.1)	25 (19.7)	49 (38.6)	35 (27.6)	14 (11.0)	1 (0.8)	59 (46.5)	45 (35.4)	21 (16.5)	1 (0.8)
대전	85 (100.0)	45 (52.9)	40 (47.1)	9 (10.6)	13 (15.3)	27 (31.8)	23 (27.1)	13 (15.3)	1 (1.2)	20 (23.5)	20 (23.5)	31 (36.5)	13 (15.3)
울산	64 (100.0)	26 (40.6)	38 (59.4)	9 (14.1)	16 (25.0)	14 (21.9)	12 (18.8)	13 (20.3)	5 (7.8)	21 (32.8)	16 (25.0)	20 (31.3)	2 (3.1)
경기	453 (100.0)	163 (36.0)	290 (64.0)	12 (2.6)	64 (14.1)	143 (31.6)	132 (29.1)	102 (22.5)	19 (4.2)	107 (23.6)	110 (24.3)	141 (31.1)	76 (16.8)
강원	227 (100.0)	116 (51.1)	111 (48.9)	6 (2.6)	34 (15.0)	71 (31.3)	74 (32.6)	42 (18.5)	10 (4.4)	51 (22.5)	74 (32.6)	72 (31.7)	20 (8.8)
충북	132 (100.0)	67 (50.8)	65 (49.2)	8 (6.1)	21 (15.9)	42 (31.8)	34 (25.8)	27 (20.5)	6 (4.5)	45 (34.1)	37 (28.0)	27 (20.5)	17 (12.9)
충남	152 (100.0)	56 (36.8)	96 (63.2)	7 (4.6)	24 (15.8)	44 (28.9)	42 (27.6)	35 (23.0)	17 (11.2)	60 (39.5)	33 (21.7)	30 (19.7)	12 (7.9)
전북	210 (100.0)	86 (41.0)	124 (59.0)	7 (3.3)	47 (22.4)	60 (28.6)	57 (27.1)	39 (18.6)	6 (2.9)	107 (51.0)	88 (41.9)	9 (4.3)	0 (0.0)
전남	214 (100.0)	68 (31.8)	146 (68.2)	3 (1.4)	28 (13.1)	50 (23.4)	71 (33.2)	62 (29.0)	23 (10.7)	122 (57.0)	60 (28.0)	9 (4.2)	0 (0.0)
경북	248 (100.0)	112 (45.2)	136 (54.8)	27 (10.9)	57 (23.0)	56 (22.6)	76 (30.6)	32 (12.9)	12 (4.8)	92 (37.1)	64 (25.8)	70 (28.2)	10 (4.0)
경남	178 (100.0)	53 (29.8)	125 (70.2)	13 (7.3)	41 (23.0)	64 (36.0)	39 (21.9)	21 (11.8)	12 (6.7)	82 (46.1)	40 (22.5)	39 (21.9)	5 (2.8)
제주	71 (100.0)	27 (38.0)	44 (62.0)	4 (5.6)	18 (25.4)	14 (19.7)	23 (32.4)	12 (16.9)	3 (4.2)	13 (18.3)	15 (21.1)	31 (43.7)	9 (12.7)
전체	3,086 (100.0)	1,182 (38.3)	1,904 (61.7)	138 (4.5)	541 (17.5)	941 (30.5)	909 (29.5)	557 (18.0)	147 (4.8)	1,017 (33.0)	863 (28.0)	787 (25.5)	272 (8.8)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시니어클럽이 25.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복지관(23.6%), 대한노인회(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참여사업의 유형으로는 공익활동형이 62.6%, 시장형 18.3%, 사회서비스형 13.2%, 인력 파견형 6.0% 등으로 나타나 공익형과 시장형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수요조사와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대부분은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7-2〉 지역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응답현황

구분	수행기관유형								참여사업유형			
	지자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지역문화원	사회복지관	기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서울	27 (7.3)	89 (24.0)	36 (9.7)	39 (10.5)	22 (5.9)	0 (0.0)	90 (24.3)	68 (18.3)	257 (69.3)	39 (10.5)	71 (19.1)	4 (1.1)
부산	0 (0.0)	80 (36.0)	0 (0.0)	24 (10.8)	58 (26.1)	0 (0.0)	60 (27.0)	0 (0.0)	127 (57.2)	30 (13.5)	62 (27.9)	3 (1.4)
대구	22 (15.3)	21 (14.6)	0 (0.0)	0 (0.0)	101 (70.1)	0 (0.0)	0 (0.0)	0 (0.0)	82 (56.9)	25 (17.4)	30 (20.8)	7 (4.9)
인천	21 (11.2)	36 (19.1)	9 (4.8)	0 (0.0)	13 (6.9)	0 (0.0)	4 (2.1)	105 (55.9)	99 (52.7)	28 (14.9)	55 (29.3)	6 (3.2)
광주	0 (0.0)	26 (20.5)	25 (19.7)	12 (9.4)	50 (39.4)	0 (0.0)	11 (8.7)	3 (2.4)	66 (52.0)	15 (11.8)	34 (26.8)	12 (9.4)
대전	3 (3.5)	4 (4.7)	8 (9.4)	18 (21.2)	24 (28.2)	7 (8.2)	9 (10.6)	12 (14.1)	51 (60.0)	10 (11.8)	16 (18.8)	8 (9.4)
울산	10 (15.6)	24 (37.5)	0 (0.0)	0 (0.0)	30 (46.9)	0 (0.0)	0 (0.0)	0 (0.0)	32 (50.0)	14 (21.9)	12 (18.8)	6 (9.4)
경기	31 (6.8)	189 (41.7)	7 (1.5)	82 (18.1)	57 (12.6)	0 (0.0)	33 (7.3)	54 (11.9)	275 (60.7)	86 (19.0)	83 (18.3)	9 (2.0)
강원	6 (2.6)	51 (22.5)	23 (10.1)	43 (18.9)	76 (33.5)	7 (3.1)	5 (2.2)	16 (7.0)	171 (75.3)	16 (7.0)	28 (12.3)	12 (5.3)
충북	6 (4.5)	40 (30.3)	0 (0.0)	45 (34.1)	37 (28.0)	0 (0.0)	0 (0.0)	4 (3.0)	91 (68.9)	13 (9.8)	15 (11.4)	13 (9.8)
충남	20 (13.2)	43 (28.3)	10 (6.6)	28 (18.4)	42 (27.6)	4 (2.6)	5 (3.3)	0 (0.0)	99 (65.1)	24 (15.8)	25 (16.4)	4 (2.6)
전북	15 (7.1)	36 (17.1)	39 (18.6)	38 (18.1)	47 (22.4)	3 (1.4)	23 (11.0)	9 (4.3)	139 (66.2)	23 (11.0)	33 (15.7)	15 (7.1)
전남	34 (15.9)	41 (19.2)	6 (2.8)	49 (22.9)	45 (21.0)	6 (2.8)	18 (8.4)	15 (7.0)	145 (67.8)	25 (11.7)	24 (11.2)	20 (9.3)
경북	22 (8.9)	10 (4.0)	14 (5.6)	39 (15.7)	98 (39.5)	0 (0.0)	8 (3.2)	57 (23.0)	148 (59.7)	26 (10.5)	35 (14.1)	39 (15.7)
경남	0 (0.0)	26 (14.6)	19 (10.7)	40 (22.5)	53 (29.8)	0 (0.0)	19 (10.7)	21 (11.8)	118 (66.3)	23 (12.9)	24 (13.5)	13 (7.3)
제주	6 (8.5)	13 (18.3)	0 (0.0)	0 (0.0)	24 (33.8)	0 (0.0)	0 (0.0)	28 (39.4)	32 (45.1)	9 (12.7)	17 (23.9)	13 (18.3)
전체	223 (7.2)	729 (23.6)	196 (6.4)	457 (14.8)	777 (25.2)	27 (0.9)	285 (9.2)	392 (12.7)	1,932 (62.6)	406 (13.2)	564 (18.3)	184 (6.0)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별로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공익형인 공공시설봉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44.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서비스형일자리 13.2%, 노노케어 13.1%, 시장형인 제조판매형사업참여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공공시설봉사 참여가 34.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노노케어 26.2%, 사회서비스형 11.0% 등의 순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을 타시도와 비교해보면, 전북은 노노케어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두배 이상 높고, 공공시설 봉사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도 다른 시도 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현황을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봉사의 경우는 강원이 56.4%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북(56.1%), 경남(51.7%) 등으로 높았으며 전북은 34.8%로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나타나 시도 중에선 공공시설봉사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노케어사업의 경우는 전북의 참여율이 26.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전남 21.0%, 서울 18.1% 등의 순으로 노노케어사업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구분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사회 서비스형	공동 작업형	제조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	인력 파견형
서울	18.1	1.9	44.5	4.9	10.5	2.4	9.7	7.0	1.1
부산	13.1	1.4	42.3	0.5	13.5	10.8	7.2	9.9	1.4
대구	7.6	2.1	44.4	2.8	17.4	1.4	3.5	16.0	4.9
인천	1.6	5.9	44.1	1.1	14.9	5.9	13.8	9.6	3.2
광주	7.1		40.9	3.9	11.8	1.6	4.7	20.5	9.4
대전	11.8	1.2	38.8	8.2	11.8	4.7	5.9	8.2	9.4
울산	7.8		40.6	1.6	21.9	1.6	17.2		9.4
경기	13.2	1.5	43.5	2.4	19.0	2.4	9.1	6.8	2.0
강원	11.5	2.2	56.4	5.3	7.0	1.8	8.8	1.8	5.3
충북	9.8	1.5	56.1	1.5	9.8	3.8	5.3	2.3	9.8
충남	15.8	0.7	44.1	4.6	15.8	2.6	11.8	2.0	2.6
전북	26.2	2.9	34.8	2.4	11.0	2.4	10.5	2.9	7.1
전남	21.0	0.5	39.7	6.5	11.7	0.9	9.3	0.9	9.3
경북	9.3	0.4	47.6	2.4	10.5	4.8	9.3		15.7
경남	9.6	1.1	51.7	3.9	12.9	2.8	8.4	2.2	7.3
제주	8.5	2.8	31.0	2.8	12.7			23.9	18.3
전체	13.1	1.7	44.5	3.4	13.2	3.3	8.8	6.2	6.0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한 이유로 1순위는 생계비의 마련을 위해서가 전국적으로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의 경우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35.3%로 높게 나타나 생계비의 마련과 용돈의 마련을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또한 생계비마련과 용돈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순위인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인 경우 77.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인 용돈마련의 경우 또한 40.0%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남(52.3%), 대구(50.4%), 울산(44.9%)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이유에 대한 분석결과를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은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고, 용돈마련은 다소 낮게 나타나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다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노인일자리 지원 이유 1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사회 참여 관계 형성	건강 유지	자아 실현 자기 발전	여가 시간 활용	일을 통한 즐거움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사회 참여 관계 형성	건강 유지	자아 실현 자기 발전	여가 시간 활용	일을 통한 즐거움
서울	48.8	18.6	8.1	8.4	3.5	4.3	8.4	5.8	42.3	10.7	17.0	4.9	8.2	11.0
부산	64.9	16.2	4.5	4.5	0.9	1.8	7.2	3.4	22.9	10.9	35.4	5.7	5.7	16.0
대구	70.8	10.4	6.3	2.8	1.4	3.5	4.9	5.9	50.4	10.4	14.1	3.0	4.4	11.9
인천	46.8	21.8	7.4	7.4	3.2	5.9	7.4	7.4	38.3	13.1	18.9	5.7	8.6	8.0
광주	22.8	27.6	8.7	18.9	5.5	5.5	11.0	18.9	19.7	14.2	26.0	6.3	6.3	8.7
대전	42.4	23.5	8.2	15.3	1.2	2.4	7.1	3.8	24.4	24.4	16.7	6.4	7.7	16.7
울산	71.9	10.9	6.3		1.6		9.4	2.0	44.9	10.2	26.5	4.1	2.0	10.2
경기	43.9	18.1	7.9	14.3	3.3	3.1	9.3	6.0	27.8	9.6	29.4	5.7	11.2	10.3
강원	51.1	21.1	5.3	10.6	1.8	3.1	7.0	4.1	24.0	12.4	34.6	6.0	6.5	12.4
충북	44.7	23.5	13.6	10.6	0.8	2.3	4.5	3.8	35.4	11.5	19.2	6.2	8.5	15.4
충남	34.2	33.6	10.5	9.9	3.3	1.3	7.2	12.1	28.2	10.1	21.5	10.1	10.1	8.1
전북	77.6	16.2	2.4	1.9		1.4	0.5	7.6	40.0	10.5	24.8	1.4	10.0	5.7
전남	71.0	6.1	4.2	9.3	5.1	0.9	3.3	9.8	52.3	20.1	7.5	5.1	1.9	3.3
경북	49.6	31.0	4.4	6.0	1.2	4.0	3.6	7.3	40.6	12.3	19.6	7.8	5.0	7.3
경남	63.5	18.5	2.8	2.8	2.2	3.4	6.7	5.8	37.2	12.2	23.1	2.6	10.3	9.0
제주	39.4	26.8	5.6	11.3	5.6	4.2	7.0	5.7	37.1	11.4	18.6	2.9	12.9	11.4
전체	52.9	19.8	6.5	8.6	2.6	3.1	6.6	6.9	35.3	12.2	22.6	5.3	7.8	9.9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의 근무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근무시간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7시간~10시간 이하인 경우가 6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1시간~20시간 이하 20.0%, 6시간 이하 15.4%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무활동의 경우는 정기적인 활동이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정기적 활동의 주당 일 수는 3일~4일 근무가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근무시간이 7시간~10시간 이하인 경우가 82.9%로 가장 많았고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근무활동(100%)과 활동 주당 일 수 또한 3일~4일이 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의 노인일자리 근무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무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참여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형태에서는 정기적인 근무활동에 7시간에서 100시간의 근무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 근무일수는 3일에서 4일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국 평균 노인일자리 근무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북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의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는 전국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7-5〉 참여중인 노인일자리 근무 현황

구분	근무시간				근무활동		정기적 활동 주당 일 수		
	6시간 이하	7~10시간 이하	11~20시간 이하	21시간 이상	정기적	비정기적	1~2일	3~4일	4일 이상
서울	22.4	55.5	19.9	2.2	96.2	3.8	21.8	56.9	21.3
부산	9.9	73.4	16.2	0.5	89.2	10.8	33.3	43.4	23.2
대구	7.6	62.5	25.0	4.9	93.1	6.9	2.2	76.1	21.6
인천	22.9	49.5	23.9	3.7	99.5	0.5	21.4	60.4	18.2
광주	28.3	52.0	17.3	2.4	97.6	2.4	22.6	61.3	16.1
대전	18.8	48.2	29.4	3.5	97.6	2.4	20.5	50.6	28.9
울산	7.8	53.1	34.4	4.7	93.8	6.3	23.3	46.7	30.0
경기	17.4	58.9	23.0	0.7	94.3	5.7	20.4	55.7	23.9
강원	16.3	67.4	14.1	2.2	97.8	2.2	17.6	73.0	9.5
충북	24.2	49.2	22.0	4.5	87.1	12.9	10.4	65.2	24.3
충남	19.1	57.9	21.1	2.0	94.1	5.9	16.1	62.9	21.0
전북	3.3	82.9	11.9	1.9	100.0		1.4	89.5	9.0
전남	6.1	78.0	14.0	1.9	100.0		5.6	84.6	9.8
경북	12.9	58.9	24.6	3.6	84.7	15.3	15.7	60.0	24.3
경남	6.2	67.4	16.9	9.6	91.0	9.0	22.2	50.6	27.2
제주	28.2	39.4	19.7	12.7	98.6	1.4	17.1	52.9	30.0
전체	15.4	61.6	20.0	3.0	94.5	5.5	17.2	62.7	20.0

참여중인 노인일자리의 근무 현황 중 근무일의 경우는 평일주간근무가 전국적으로 99.4%로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제에 있어서는 교대제 없는 근무형태가 87.6%로 가장 많았다. 한편,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2년이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년 미만(27.3%), 3년~4년(24.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근무일이 평일 주간인 경우가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 이외에도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서 평일주간 근무형태가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대근무형태에 있어서는 전북의 경우 100%로 교대제가 없는 근무형태가 많았으나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2교대와 3교대의 근무형태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간은 전북의 경우 3년~4년이 37.6%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의 지속성이 매우 좋은 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는 대부분 평일 주간 그리고 교대제 없이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나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평일야간 그리고 2교대 등의 근무형태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우리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7-6〉 참여중인 노인일자리 근무 현황

구분	근무일			교대제 현황			일자리참여 지속기간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	교대제 없음	2교대	3교대 이상	1년미만	1~2년	3~4년	5년이상
서울	99.5	0.3	3.2	76.3	15.9	7.8	21.8	24.3	28.3	25.6
부산	98.2	0.9	3.2	81.1	14.4	4.5	27.9	32.0	22.5	17.6
대구	100.0	2.1	0.7	86.1	12.5	1.4	19.4	37.5	27.8	15.3
인천	100.0	1.1	3.2	88.8	6.4	4.8	25.0	26.1	21.3	27.7
광주	100.0	0.0	0.0	98.4	0.8	0.8	37.8	20.5	19.7	22.0
대전	100.0	2.4	3.5	89.4	8.2	2.4	38.8	30.6	12.9	17.6
울산	100.0	3.1	9.4	93.8	6.3		35.9	21.9	20.3	21.9
경기	99.3	1.3	1.8	84.8	10.6	4.6	33.3	25.4	21.4	19.9
강원	99.6	0.4	2.2	92.5	5.3	2.2	27.3	27.3	25.1	20.3
충북	100.0	0.0	1.5	87.9	11.4	0.8	38.6	28.8	18.9	13.6
충남	98.7	2.6	0.7	84.9	14.5	0.7	27.0	38.2	21.1	13.8
전북	100.0	0.0	1.0	100.0			14.8	22.4	37.6	25.2
전남	100.0	0.0	0.0	99.5	0.5		9.8	59.8	26.6	3.7
경북	99.2	0.8	1.6	83.9	13.7	2.4	25.4	31.0	27.0	16.5
경남	99.4	3.9	4.5	84.3	9.0	6.7	37.1	29.8	18.5	14.6
제주	95.8	2.8	4.2	94.4	4.2	1.4	49.3	15.5	19.7	15.5
전체	99.4	1.1	2.2	87.6	9.2	3.2	27.3	29.8	24.1	18.8

노인일자리의 활동을 중단한 경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6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년도(2018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27.1%, 중단경험이 있는 경우는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소득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으로는 전국적으로 소득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45.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소득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는 단기적인 소일거리 참여(16.2%), 노인일자리활동을 유급 자원봉사로 계속 참여(13.5%),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 참여(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일자리활동의 중단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활동 중단시 소득확보를 위한 노력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타 일자리참여와 소득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은 긍정적이다. 전국 평균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율은 3.6%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은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

〈표 7-7〉 활동 중단 시 소득확보를 위한 노력

구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 경험			활동 중단 시 소득확보를 위한 노력						
	있다	없다	전년도 참여 안함	수요처에서 급여를지원 하면서사업 계속참여	정부지자체등 타일자리에 참여	단기적인 소일거리에 참여	기존에 하던일계속 참여	가족친인척등의일도우며소득보충	노인일자리활동유급자원봉사로 계속참여	소득확보를 위한활동 하지않음
서울	2.7	74.7	22.6							100.0
부산	1.8	66.7	31.5							100.0
대구	2.1	79.2	18.8	33.3	33.3	66.7				
인천	1.1	71.3	27.7							100.0
광주	2.4	75.6	22.0		33.3					66.7
대전	4.7	58.8	36.5	25.0	75.0		25.0		50.0	
울산	1.6	57.8	40.6			100				
경기	2.4	63.8	33.8	9.1	18.2	9.1		9.1	9.1	54.5
강원	9.3	65.2	25.6	14.3	9.5	14.3	19	19	23.8	23.8
충북	7.6	55.3	37.1	30.0		20.0	30.0	10.0	20.0	40.0
충남	5.9	65.1	28.9	11.1	11.1		22.2	11.1	22.2	33.3
전북	1.0	84.8	14.3		50.0					50.0
전남		91.1	8.9							
경북	6.0	64.9	29.0	6.7	13.3	46.7		20.0	20.0	6.7
경남	5.6	54.5	39.9	10.0		10.0				80.0
제주	8.5	59.2	32.4			16.7		16.7		66.7
전체	3.6	69.3	27.1	10.8	11.7	16.2	9.0	9.9	13.5	45.0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87.6%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시간은 10시간~15시간 미만(31.0%)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시간~5시간 미만(30.1%), 5시간~10시간 미만(29.9%)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교육을 받은 형태로는 노인일자리참여자만 참석하는 전담교육이 85.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일자리참여자과 기관내의 타사업 참여자가 같이 받는 교육(32.8%), 다른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참여자가 포함된 교육(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34.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그 다음으로 낮은 전남(74.8%)에 비해 40%p더 낮게 나타나 전북의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의 보완점이 매우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경험이 있다는 참여자의 비율이 전북의 경우 34.8%로 비교적 낮았고, 교육시간도 1-5시간 미만으로 가장 적은 교육시간을 보이고 있는 결과는 향후 적절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8〉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경험

구분	교육경험		교육받은 경우 교육 시간				교육형태			
	있음	없음	1-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15시 간 미만	15시간 이상	일자리 참여자 전담교육	일자리 기관내 타사업 참여자 포함교육	다른 수행기관참 여자 포함교육	온라인 교육수강
서울	95.1	4.9	28.9	31.2	22.9	17.0	88.1	31.7	15	0.6
부산	89.6	10.4	27.1	15.6	46.7	10.6	92.5	17.6	7.5	0
대구	94.4	5.6	17.6	47.8	25.7	8.8	75.7	45.6	30.9	0.7
인천	98.4	1.6	22.2	38.9	24.9	14.1	81.6	40.5	7.6	
광주	92.1	7.9	17.9	46.2	29.1	6.8	98.3	44.4	8.5	
대전	90.6	9.4	24.7	22.1	40.3	13.0	80.5	37.7	13.0	1.3
울산	90.6	9.4	65.5	22.4	6.9	5.2	84.5	20.7	3.4	
경기	94.9	5.1	19.5	45.1	28.1	7.2	85.3	30.7	8.4	
강원	89.4	10.6	21.7	29.1	44.3	4.9	86.2	35.0	16.7	0.5
충북	97.7	2.3	32.6	39.5	24.8	3.1	64.3	58.9	20.9	0.8
충남	99.3	0.7	21.2	14.6	56.3	7.9	87.4	41.7	16.6	1.3
전북	34.8	65.2	100.0				90.4	6.8	2.7	
전남	74.8	25.2	55.6	1.3	41.3	1.9	86.9	11.9	1.3	
경북	82.3	17.7	43.1	20.1	24.0	12.7	90.7	47.1	28.9	1
경남	92.7	7.3	15.2	35.8	38.8	10.3	94.5	19.4	5.5	
제주	90.1	9.9	59.4	28.1	12.5		64.1	26.6	10.9	
전체	87.6	12.4	30.1	29.9	31.0	9.0	85.8	32.8	12.8	0.4

한편,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의 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이 74.9%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안전교육(74.7%), 노인일자리의 기본방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교육(66.6%), 신체 및 건강관리 교육(59.8%),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58.4%)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노인일자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교육내용이 94.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일자리에 임하는 자세(89.0%),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83.6%),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및 규칙(82.2%) 등의 순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노인일자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74.9%)과 안전교육(74.7%)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나 전북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기본방향 및 향후전망교육(94.5%)이 가장 많았고 안전교육의 경우는 65.8%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의 확대에 대한 교육내용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시간 및 교육횟수 등의 문제에 더하여 교육내용 있어도 전북은 기본적인 소양교육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내용에 있어도 향후 직무특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9〉 교육내용

구분	노인일자리 기본방향 향후전망	노인일자리 임하는자세	사업운영 규칙	구체적지식 기술교육	신체 건강관리 교육	정신건강 관리교육	안전교육	기타
서울	72.8	77.6	66.6	63.2	65.2	61.2	83.0	
부산	63.8	78.9	39.2	63.8	55.3	70.4	85.4	5.5
대구	55.1	72.8	55.9	59.6	44.9	40.4	52.9	
인천	60.0	79.5	39.5	51.4	67.0	58.4	88.6	
광주	99.1	99.1	93.2	90.6	93.2	90.6	94.9	
대전	66.2	70.1	50.6	59.7	72.7	68.8	72.7	
울산	53.4	82.8	37.9	62.1	41.4	37.9	69.0	
경기	69.5	76.5	53.0	61.9	72.6	68.8	86.0	1.4
강원	65.0	71.4	51.2	44.3	51.7	54.2	75.9	3
충북	71.3	79.8	56.6	63.6	62.8	56.6	86.0	
충남	82.8	73.5	61.6	55.6	66.2	51.0	78.8	0.7
전북	94.5	89.0	82.2	83.6	67.1	65.8	65.8	
전남	51.3	38.1	5.6	3.8	1.3		1.3	
경북	65.7	80.9	75.0	76.0	68.6	61.3	64.2	
경남	47.9	78.8	41.8	57.6	61.8	62.4	79.4	2.4
제주	34.4	31.3	31.3	42.2	18.8	14.1	75.0	
전체	66.6	74.9	53.3	58.4	59.8	57.0	74.7	1.0

*다중응답분석으로 총 합이 100%를 넘음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의 흥미도 향상이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강화(20.0%),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전달강화(12.7%), 교육횟수 또는 교육시간의 조정(10.9%)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교육의 흥미도 향상의 필요성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구(52.7%), 경북(40.9%), 충남(38.3%)에 이어 전북이 37.1%로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천이 28.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북이 2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 정보전달의 필요성은 전북이 25.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노인일자리의 교육개선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강화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전달의 강화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개발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여기에 직무역량을 실천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10〉 교육 개선점

구분	교육의 흥미도향상	노인의차이와 다양성을고려한 맞춤형교육강화	교육횟수 또는 교육시간조정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정보전달	계속 참여자를 위한심화 교육강화	직무에직접적 으로활용할 수 있는 교육강화	계속참여를 장려할수있도록 제도개선	기타
서울	27.0	17.9	13.8	15.1	7.5	5.7	12.9	
부산	34.4	18.8	4.7	9.9	4.7	18.2	9.4	
대구	52.7	17.8	3.1	6.2	3.1	7.0	9.3	0.8
인천	25.1	28.1	2.4	23.4	7.2	6.6	7.2	
광주	31.0	20.7	23.3	10.3	8.6	5.2	0.9	
대전	23.5	21.0	11.1	13.6	7.4	4.9	14.8	3.7
울산	33.9	19.6	5.4	12.5		17.9	10.7	
경기	29.4	18.1	13.6	10.3	6.1	6.9	15.3	0.3
강원	31.9	14.8	7.4	13.9	7.9	4.2	19.9	
충북	22.7	23.5	15.9	13.6	1.5	9.1	13.6	
충남	38.3	22.1	14.1	8.7	6.7	3.4	6.7	
전북	37.1	26.2	8.6	25.7	1.9	0.5		
전남	66.4	12.1	10.3	2.3	7.0	0.9	0.9	
경북	40.9	24.1	5.2	8.6	8.6	3.0	9.5	
경남	18.9	21.4	23.3	13.2	4.4	12.6	6.3	
제주	12.1	18.2	15.2	19.7	9.1	9.1	16.7	
전체	34.0	20.0	10.9	12.7	6.0	6.4	9.8	0.2

노인일자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58.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어려움은 교통 및 이동의 문제점(19.4%)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동료관계의 어려움(6.9%), 수혜자와 수요처와의 관계 어려움(4.9%), 일자리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2.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노인일자리활동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71.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광주(81.1%)와 제주(74.6%), 인천(72.9%) 등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활동 중 어려움점은 교통 및 이동의 문제점이 1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료관계의 어려움이 9.0%로 많았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교통이동의 문제는 경북이 32.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남(28.7%)과 전남(28.5%) 등의 순이었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동료관계의 어려움은 대구(15.3%)와 전남(15.0%), 울산(9.4%)에 이어 4번째(9.0%)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중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농도의 지역특성을 반영아형 이동상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작용할 수 있는 동료와의 관계도 여전히 관련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표 7-11〉 노인일자리 활동 중 어려운 점

구분	교통 이동 문제	동료 관계	수혜자 수요처 관계	소속 기관 관계	수행 능력 부족	주변의 이목	높은 노동 강도	일의 내용 흥미 없음	업무 수행 매뉴얼 부족	없음	기타
서울	14.8	5.1	5.7	0.8	1.3	1.9	3.8	0.5	0.8	62.5	2.7
부산	14.4	4.5	2.7		2.3	1.8	2.3		1.8	69.8	0.5
대구	23.6	15.3	4.2	3.5	1.4	2.1	0.7		0.7	48.6	
인천	11.7	6.4	2.1	1.1	0.5	1.1	3.2		1.1	72.9	
광주	10.2	3.1	0.8		1.6	1.6	0.8		0.8	81.1	
대전	23.5	7.1	18.8	1.2	9.4	2.4	1.2		3.5	32.9	
울산	15.6	9.4	3.1	3.1	3.1	1.6			3.1	60.9	
경기	12.1	4.2	4.9	0.7	2.0	1.1	2.2	0.2	1.3	69.1	2.2
강원	26.9	7.0	7.0	0.9	7.0	3.1	5.7		2.2	40.1	
충북	28.0	8.3	9.1	0.8	2.3	0.8	3.0	1.5	5.3	39.4	1.5
충남	19.7	5.9	2.0	1.3	4.6	3.9	1.3	2.0	6.6	51.3	1.3
전북	16.7	9.0	1.9	0.5						71.9	
전남	28.5	15.0	7.0	0.9	5.1				0.5	43.0	
경북	32.3	6.9	5.6		4.8	2.8	1.6	0.8	0.8	44.4	
경남	28.7	4.5	4.5	0.6	2.2	3.4	4.5	0.6	1.7	48.9	0.6
제주	5.6	4.2	2.8	1.4	4.2	2.8			2.8	74.6	1.4
전체	19.4	6.9	4.9	0.8	2.9	1.8	2.2	0.4	1.7	58.0	0.9

노인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88.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인 내용별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행기관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88.8%, 수행기관 실무자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86.5%, 근로관련정보제공 만족도 86.3%,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85.3%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99.5%로 17개 시도중에서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의 세부내용별에 따른 만족도 또한 90%를 상회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좋은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로환경의 쾌적성(82.8%)부분과 근로의 안전성(72.8%)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2〉 노인일자리 만족도

구분	활동비	급여공평성	근로난이도	근로안전성	근로시간	근로내용	근로환경안전성	근로환경편의성	근로환경쾌적성	근로장소이동편의성	동로관계	교육내용흥미도	교육시간적절성	교육의직무도움	참여절차간편성	수행기관실무자전문성	수행기관실무자와관계	수행기관요구사항반영정도	근로관련정보제공	전반적만족도
서울	46.9	57.7	73.1	79.0	74.9	79.2	78.9	76.9	75.8	76.6	86.8	73.3	71.6	78.8	81.9	90.8	92.8	87.8	88.4	88.9
부산	56.3	70.7	76.6	81.1	76.6	78.4	75.3	74.4	78.4	77.9	81.1	72.4	70.4	71.9	84.2	84.7	86.9	84.3	85.1	86.5
대구	57.7	66.7	79.2	82.7	77.1	84.7	83.4	82.7	79.8	82.6	85.4	78.4	79.1	81.3	82.0	83.3	90.3	84.0	83.3	86.8
인천	28.2	48.4	75.0	75.6	73.9	75.0	74.5	69.7	66.0	72.9	83.5	61.0	69.2	69.8	81.9	89.3	88.8	86.7	88.8	86.7
광주	65.3	81.8	89.0	90.6	90.6	90.6	90.6	91.3	92.1	91.3	91.3	89.3	89.4	89.4	92.2	95.2	95.3	96.1	92.1	96.8
대전	43.5	55.3	51.8	70.6	75.3	70.5	78.8	75.3	76.5	70.6	81.1	72.6	75.4	79.5	75.3	83.5	85.9	72.9	78.8	84.7
울산	45.3	78.2	76.6	81.2	67.2	79.7	84.4	84.4	89.1	84.4	82.9	65.4	63.6	69.1	84.4	93.7	93.8	95.4	90.6	93.7
경기	35.5	43.4	72.0	79.9	77.2	79.2	85.0	82.3	79.7	74.9	88.1	77.1	75.3	80.2	80.6	89.4	93.0	87.2	89.1	89.2
강원	55.1	57.2	61.6	67.4	70.4	72.2	72.7	68.3	64.8	61.3	76.7	70.4	66.3	75.1	67.9	76.7	81.5	77.1	74.9	81.1
충북	44.7	44.7	69.7	81.8	74.2	82.6	78.8	82.6	76.5	73.5	81.8	72.7	75.2	74.3	72.0	84.1	90.9	82.6	86.4	87.9
충남	57.2	59.2	66.5	72.4	76.3	76.9	78.3	75.0	72.4	69.0	81.0	66.7	67.4	70.1	67.7	83.5	84.2	78.3	79.0	82.9
전북	95.7	97.2	96.7	72.8	91.0	97.2	94.3	90.0	82.8	91.4	90.0	95.9	93.1	97.3	90.9	90.9	90.9	91.9	97.2	99.5
전남	73.8	81.4	80.9	72.4	76.1	76.2	82.7	79.4	79.0	78.0	76.6	85.0	83.0	81.1	79.4	83.7	86.0	84.6	87.4	89.7
경북	63.3	65.7	69.7	70.5	75.0	77.0	75.4	72.6	73.8	73.8	78.6	75.3	77.1	76.5	70.5	78.6	81.9	84.7	81.9	83.5
경남	61.8	71.4	74.7	79.8	73.0	78.7	75.8	80.9	72.4	74.2	80.9	77.2	74.6	74.6	80.3	90.4	92.1	83.7	87.1	91.5
제주	52.1	55.0	67.6	76.0	74.7	76.1	76.1	71.9	69.0	66.2	71.8	66.0	66.1	64.1	77.5	84.5	81.7	83.1	84.5	83.1
전체	54.4	62.9	74.3	76.9	76.7	79.7	80.4	78.4	76.4	75.9	83.2	74.7	74.3	77.2	79.4	86.5	88.8	85.3	86.3	88.3

최근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수급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 수급을 받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25.7%, 의료급여는 31.1%, 주거급여 12.8%, 교육급여 1.4%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최근 3년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6%로 나타났고 이는 대전(11.8%)과 제주(11.3%), 대구(8.3%) 등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가 1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계급여 12.5%, 주거급여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를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울산이 66.7%로 생계급여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전과 충북이 각각 60%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수급률은 전북을 비롯해서 전남, 광주 등의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주거급여는 전남(100%)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여부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13〉 최근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여부

구분	신청경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있음	없음	받음	받지못함	받음	받지못함	받음	받지못함	받음	받지못함
서울	4.3	95.7	31.3	68.8	12.5	87.5	31.3	68.8		100.0
부산	5.0	95.0		100.0	27.3	72.7	18.2	81.8		100.0
대구	8.3	91.7	25.0	75.0	16.7	83.3		100.0	8.3	91.7
인천	1.1	98.9		100.0		100.0		100.0		100.0
광주	0.8	99.2		100.0	100.0			100.0		100.0
대전	11.8	88.2	60.0	40.0	30.0	70.0	10.0	90.0		100.0
울산	4.7	95.3	66.7	33.3	33.3	66.7	33.3	66.7		100.0
경기	4.9	95.1	18.2	81.8	18.2	81.8	4.5	95.5		100.0
강원	5.3	94.7	50.0	50.0	25.0	75.0		100.0		100.0
충북	3.8	96.2	60.0	40.0	20.0	80.0	20.0	80.0	20.0	80.0
충남	3.3	96.7	40.0	60.0		100.0		100.0		100.0
전북	7.6	92.4	12.5	87.5	100.0		6.3	93.8		100.0
전남	2.3	97.7		100.0	100.0		100.0			100.0
경북	6.5	93.5	18.8	81.3	18.8	81.3	6.3	93.8		100.0
경남	2.2	97.8	25.0	75.0	25.0	75.0	25.0	75.0		100.0
제주	11.3	88.7	12.5	87.5	12.5	87.5		100.0		100.0
전체	4.8	95.2	25.7	74.3	31.1	68.9	12.8	87.2	1.4	98.6

지난 1년간 가구의 연 소득의 경우 가구 총 소득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1,467.6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근로소득이 828.5만원, 사업소득 751만원, 금융 및 부동산 소득 558.4만원, 사회보험소득 480.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가구 총 소득액은 평균 1,05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15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전라북도보다 평균 소득액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1,048.3만원)과 전남(972.1만원) 뿐이었다. 전라북도의 노인의 낮은 평균소득수준은 전북 노인의 높은 절대빈곤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라북도의 빈곤율은 5.0%대로 전국 평균보다도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특히 노인의 높은 빈곤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빈곤인구 중 노인빈곤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에 이른다.

한편, 전라북도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보험의 소득액이 평균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 소득액에 이어 근로소득금액이 평균 474.4만원으로 많았고, 이어서 사회보험소득 평균 367.5만원, 기타 정부소득 평균 343.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4〉 지난 1년간 가구 연소득

(평균, 만원)

구분	총 소득액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부동산	민간 보험	사적·전소득	사회 보험	기타정부 보조금	기타수입
서울	1,705.7	959.6	1,152.9	958.9	472.3	286.2	524.1	346.3	155.0
부산	1,083.2	663.1	300.0	495.0	700.0	315.8	407.1	346.4	380.0
대구	1,503.4	888.6	480.0	214.3	195.0	248.6	296.3	352.4	46.0
인천	2,123.1	1,324.9	360.0	674.4		411.1	536.4	373.2	157.5
광주	1,551.7	753.7		400.0		229.8	494.5	351.6	670.0
대전	1,048.3	602.4	300.0	240.0		226.7	403.8	287.4	
울산	1,123.9	634.6	1,450.0		500.0	366.7	560.7	350.0	
경기	1,858.2	1,112.4	1,183.3	911.8	330.0	446.6	556.8	361.8	278.5
강원	1,417.5	808.4	1,015.4	308.3	400.0	211.9	543.7	352.0	106.7
충북	1,423.6	721.2	1,037.5	571.4	400.0	223.1	476.4	293.8	100.8
충남	1,098.5	475.8	470.0	326.7	1,400.0	213.6	489.1	373.9	366.0
전북	1,052.6	474.4	200.0	193.1	1,800.0	156.0	367.5	343.4	177.6
전남	972.1	400.2	440.0	225.3	133.3	190.2	496.3	349.6	
경북	1,488.8	894.1	491.9	219.2	170.0	210.7	255.4	397.3	
경남	1,416.2	926.8	2,065.0	660.0	340.0	280.0	760.4	343.0	305.0
제주	1,594.0	874.7		1,150.0	841.8	257.0	614.1	279.9	242.0
전체	1,467.6	828.5	751.0	558.4	475.4	256.1	480.1	351.8	233.9

현재의 가구 재정상태에 대한 수준으로는 전국적으로 보통이다가 6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려운 수준이다가 26.6%, 넉넉한 수준이다 6.7%,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5.1%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매우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현재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75.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울산 7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우 어렵다와 매우 넉넉하다의 응답이 없이 어려운편이다와 넉넉한편이다와 보통에 대해서만 응답결과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전라북도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주관적 재정상태는 전반적으로 중위권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상태가 매우 넉넉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광주가 2.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천(1.6%)과 대전(1.2%)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11.7%)와 서울(7.5%), 대전(7.1%)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보다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고,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수준은 절대적 기준치인 소득에 대한 조사가 아닌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재정상태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인별 상대적 인식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표 7-15〉 현재 재정상태 수준

구분	매우 어려움 (a)	어려움 (b)	보통 (c)	넉넉함 (d)	매우 넉넉함 (e)	어려움 (a+b)	넉넉함 (d+e)
서울	7.5	31.0	56.3	4.6	0.5	38.5	5.1
부산	3.2	20.7	73.9	1.8	0.5	23.9	2.3
대구	0.7	23.6	72.9	2.8		24.3	2.8
인천	4.8	26.6	56.9	10.1	1.6	31.4	11.7
광주	2.4	15.7	65.4	14.2	2.4	18.1	16.6
대전	7.1	31.8	57.6	2.4	1.2	38.9	3.6
울산	4.7	15.6	76.6	3.1		20.3	3.1
경기	11.7	37.7	45.9	4.2	0.4	49.4	4.6
강원	6.6	30.8	56.8	5.3	0.4	37.4	5.7
충북	6.1	33.3	53.8	6.8		39.4	6.8
충남	4.6	25.0	57.2	13.2		29.6	13.2
전북		13.3	75.7	11.0		13.3	11.0
전남	0.5	27.6	54.7	17.3		28.1	17.3
경북	3.6	23.4	70.6	2.4		27.0	2.4
경남	3.9	15.7	75.3	5.1		19.6	5.1
제주	1.4	31.0	60.6	7.0		32.4	7.0
전체	5.1	26.6	61.2	6.7	0.4	31.7	7.1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신청 전과 신청 후의 경제상태를 비교해보면 노인일자리 신청 전의 경제상태는 나쁜 경우가 전체적으로 24.7%, 좋은 경우는 16.7%로 나타났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태는 나쁜 경우가 10.1%, 좋은 경우가 31.9%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참여이후의 경제상태가 좋아진 경우가 약 2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참여노인의 경제적 안정에 일정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최초로 신청하기전의 경제상태는 나쁜 경우가 40.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이후의 경제상태는 나쁜 경우가 3.3%로 매우 낮아졌고 좋은 경우는 32.9%로 나타나 노인일자리로 인해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일자리 신청 전과 참여 후의 경제상태의 나쁜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라북도 가 신청 전 40.9%에서 신청 후 3.3%로 약 37.6%p가 감소하였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표 7-16〉 사업신청 전과 후의 경제상태 비교

구분	노인일자리 최초 신청 전							노인일자리 참여 현재						
	매우 나쁨 (a)	나쁨 (b)	보통 (c)	좋음 (d)	매우 좋음 (e)	나쁨 (a+b)	좋음 (d+e)	매우 나쁨 (a)	나쁨 (b)	보통 (c)	좋음 (d)	매우 좋음 (e)	나쁨 (a+b)	좋음 (d+e)
서울	9.7	20.5	54.7	13.5	1.6	30.2	15.1	3.2	11.6	47.7	33.4	4.0	14.8	37.4
부산	4.1	12.2	79.7	1.4	2.7	16.3	4.1	0.9	7.2	86.0	2.7	3.2	8.1	5.9
대구	2.1	16.0	52.1	27.8	2.1	18.1	29.9		8.3	52.1	29.2	10.4	8.3	39.6
인천	3.2	19.7	52.7	21.3	3.2	22.9	24.5		6.9	59.0	30.9	3.2	6.9	34.1
광주		3.1	32.3	56.7	7.9	3.1	64.6		0.8	15.7	63.0	20.5	0.8	83.5
대전	9.4	22.4	57.6	8.2	2.4	31.8	10.6	3.5	5.9	65.9	16.5	8.2	9.4	24.7
울산		7.8	79.7	12.5		7.8	12.5		4.7	79.7	14.1	1.6	4.7	15.7
경기	6.2	37.1	47.0	8.4	1.3	43.3	9.7	3.3	21.2	53.9	19.6	2.0	24.5	21.6
강원	4.8	23.8	60.4	10.6	0.4	28.6	11.0	0.4	11.0	54.6	30.0	4.0	11.4	34.0
충북	4.5	15.9	64.4	15.2		20.4	15.2	1.5	9.1	61.4	26.5	1.5	10.6	28.0
충남	1.3	14.5	66.4	14.5	3.3	15.8	17.8	0.7	3.3	53.3	39.5	3.3	4.0	42.8
전북	1.4	39.5	34.3	21.0	3.8	40.9	24.8		3.3	63.8	22.4	10.5	3.3	32.9
전남		15.9	63.1	21.0		15.9	21.0		4.2	60.7	34.6	0.5	4.2	35.1
경북	1.2	12.9	70.6	14.1	1.2	14.1	15.3		5.2	52.4	39.9	2.4	5.2	42.3
경남	1.1	11.2	83.1	3.9	0.6	12.3	4.5	0.6	2.8	75.3	18.5	2.8	3.4	21.3
제주	2.8	22.5	66.2	4.2	4.2	25.3	8.4		12.7	73.2	11.3	2.8	12.7	14.1
전체	3.9	20.8	58.6	14.8	1.9	24.7	16.7	1.2	8.9	58.0	27.4	4.5	10.1	31.9

일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고령자여도 능력이 되면 일을 해야한다라는 인식도가 82.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은 따분함과 무기력함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82.3%, 행복과 보람을 준다 81.0% 등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일을 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다소 낮은 분야로는 집에서 먼 곳에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인식도가 34.0%,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해도 일을 하겠다는 인식도는 45.0%로 낮게 나타나 일과 관련된 인식도 중 이동의 편의성과 근무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는 일에 대한 인식도 중 임금수준과 이동의 편의성 부분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전북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경험이 없는 일 그리고 원치 않은 일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있는 욕구가 매우 높았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용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7-17〉 일에 대한 인식도

구분	경험이 없는 일도 하겠다		원하지 않는 업무도 하겠다		임금수준 낮아도 일을 하겠다		집에서 먼 곳이라도 일을 하겠다		시간외 근무를 요구해도 하겠다		일은 행복과 보람을 준다		일은 따분함, 무기력 등에 도움이 된다		고령자도 능력이 되면 일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서울	17.6	63.1	21.3	62.8	32.9	43.9	49.3	25.3	33.4	44.4	2.1	83.3	2.7	84.9	3.0	86.3
부산	3.7	88.8	4.1	87.4	6.8	77.5	16.7	12.7	11.8	16.7	0.9	93.2	1.4	91.9	0.5	93.7
대구	25.1	47.9	23.0	47.9	27.1	37.5	45.2	21.5	31.2	29.8	12.5	68.7	9.7	71.5	9.0	73.6
인천	6.4	82.4	9.6	70.8	13.8	60.1	39.4	33.5	18.1	55.3		89.9	0.5	89.4		84.1
광주	1.6	94.4	3.2	88.2	3.2	82.6	11.8	70.9	4.0	90.6		96.1		96.8	0.8	97.7
대전	8.3	58.8	8.3	58.8	16.5	51.8	32.9	40.0	24.7	47.1		75.3		78.8	2.4	81.2
울산	1.6	85.9	1.6	84.3	3.1	70.3	14.1	3.1	12.6	4.7		87.5	3.1	87.5	1.6	90.6
경기	11.7	74.2	15.7	71.0	19.0	59.8	35.8	42.6	20.8	56.1	0.8	90.8	2.7	90.8	0.8	91.7
강원	14.1	56.9	16.8	53.7	24.7	42.7	39.2	35.2	34.4	36.6	1.8	76.6	3.6	78.4	3.9	76.7
충북	6.8	71.3	7.6	66.7	17.4	47.7	33.3	28.8	21.2	46.2		85.6	2.3	79.5	1.5	84.1
충남	15.8	51.3	19.0	46.8	32.2	28.9	46.7	22.4	40.1	29.6	1.3	64.5	2.0	69.1	4.0	60.5
전북		98.1		87.6		73.3	4.8	51.4	1.0	86.1		89.1		94.7		100.0
전남	15.4	33.2	13.1	44.8	7.5	54.7	11.2	43.4	12.1	38.3	7.5	41.1	5.6	40.6	4.7	39.7
경북	18.5	54.4	17.3	56.9	22.9	55.3	25.4	48.0	19.8	50.4	3.6	73.0	3.6	78.6	2.4	79.9
경남	8.4	82.0	11.8	75.8	13.5	63.5	26.4	10.6	19.1	15.2	1.2	89.3	0.6	89.9		92.2
제주	8.4	71.8	18.3	42.3	31.0	35.3	25.3	30.9	26.7	33.8		85.9		90.2		88.7
전체	11.3	68.9	13.1	65.9	18.0	55.6	30.4	34.0	21.2	45.0	2.1	81.0	2.5	82.3	2.1	82.8

노인일자리 이외에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한 경험으로는 전체적으로 31.4%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68.6%는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한 방법으로는 대한노인회 또는 노인복지관 등의 취업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50.4%로 가장 많았고, 지인에게 문의하거나 부탁을 하는 방법 36.3%,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 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외에 구직을 위한 노력으로는 28.6%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방법으로는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취업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95.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지인에게 일자리에 대한 문의 또는 부탁 75.0%,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방법이 13.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이외로 구직을 위한 노력에서는 전북은 전국 평균 보다는 구직을 위한 노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이외에 민간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직활동의 방법도 대부분이 대한노인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만 노력하고 있어 구인방법의 다변화와 다양화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18〉 노인일자리 외 구직을 위한 노력

구분	구직노력경험		구직을 위한 노력 방법						
	있음	없음	지역 고용센터방문 /상담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등의 취업정보	생활정보지 광고보고 문의/상담	자영업 창업상담	지인에게 문의/부탁	온라인 구직사이트 활용	기타
서울	25.3	74.7	31.9	42.6	13.8	2.1	33.0	4.3	8.5
부산	18.5	81.5	51.2	58.5	19.5	0.0	17.1	0.0	0.0
대구	22.2	77.8	12.5	21.9	15.6	3.1	53.1	3.1	0.0
인천	29.8	70.2	25.0	33.9	8.9	0.0	23.2	5.4	8.9
광주	33.9	66.1	65.1	51.2	4.7	0.0	60.5	0.0	0.0
대전	54.1	45.9	28.3	37.0	19.6	6.5	37.0	4.3	0.0
울산	26.6	73.4	17.6	70.6	29.4	5.9	35.3	17.6	0.0
경기	31.3	68.7	44.4	43.7	16.2	2.1	28.9	4.2	4.9
강원	42.3	57.7	16.7	52.1	22.9	0.0	32.3	3.1	0.0
충북	48.5	51.5	25.0	56.3	7.8	1.6	26.6	4.7	0.0
충남	36.2	63.8	20.0	50.9	7.3	0.0	36.4	0.0	7.3
전북	28.6	71.4	13.3	95.0	10.0	5.0	75.0	0.0	0.0
전남	15.0	85.0	28.1	53.1	6.3	0.0	12.5	0.0	0.0
경북	42.3	57.7	37.5	44.2	13.5	0.0	41.3	1.9	1.0
경남	28.1	71.9	44.0	64.0	32.0	2.0	34.0	10.0	0.0
제주	50.7	49.3	66.7	52.8	5.6	0.0	44.4	5.6	0.0
전체	31.4	68.6	33.2	50.4	14.6	1.5	36.3	3.5	2.6

8

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유형 분석

Jeonbuk Institute

-
1. 공익활동사업의 유형분석
 2.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유형분석
 3. 시장형 사업의 유형분석

제8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유형 분석

1. 공익활동사업의 유형분석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원자료(2019년)를 토대로 시도별 사업현황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중 노노케어사업은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전라북도는 총 125개 사업단이 노노케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안부확인, 정서지원, 생활안전실태점검 등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도시락배달, 외부활동과 외출동행, 지역사회소식과 복지 및 의료정보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노케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을 보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를 지원해주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 경기, 충북 등이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지역으로는 대전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으로 나타났다.

〈표 8-1〉 노노케어

시도	개수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안전 실태 점검	건강 치매 관리 지원	도시락 배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외부 활동 외출 동행	지역 사회 소식 제공	복지 의료 정보 제공	행정 서비스 지원
서울	251	○	○	○	○	○	○	○			
부산	110	○	○	○		○		○	○	○	
대구	28	○	○	○			○		○	○	
인천	17	○	○	○	○			○			
광주	8	○	○	○	○						
대전	17	○	○	○		○		○	○	○	○
울산	12	○	○	○		○		○	○	○	○
세종	11	○	○	○		○					
경기	225	○	○	○	○	○	○	○	○	○	○
강원	81	○	○	○	○	○		○	○	○	○
충북	62	○	○	○	○	○	○		○	○	
충남	74	○	○	○	○	○		○	○	○	
전북	125	○	○	○	○	○		○	○	○	○
전남	89	○	○	○		○		○	○	○	○
경북	87	○	○	○	○			○	○	○	
경남	113	○	○	○		○		○	○	○	
제주	5	○	○	○				○	○	○	
미분류	132	○	○	○	○	○	○	○	○	○	

다음으로 장애인봉사 사업은 17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10개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었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안부확인과 생활상태점검, 가사서비스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의 장애인 봉사사업의 내용은 안부확인과 생활상태점검, 가사서비스지원, 도시락배달 등 노노케어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의 지원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농업기술과 농업지식 전달과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를 관리하는 서비스 등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사업내용으로 분류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다문화가정 봉사사업은 17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었으며 전북도 10개 시도에 포함되어 다문화가정 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장애인봉사사업으로 농업기술 지식 전달사업, 재활용쓰레기 관리사업 등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전라남도에서는 생활복지시설 정보제공, 경북은 시설장애인 돌봄보호지원, 그리고 일부지역은 물품지원 등의 사업을 공익형 장애인봉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표 8-2〉 장애인봉사

시도	개수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상태 점검	세탁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일상 생활 지원 외출 동행	생활 복지 정보 제공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장애 아동 교육 활동 보조	도시락 배달	농업 기술 지식 전달	재활용 생활 쓰레기 관리	시설 장애인 돌봄 보호 지원	물품 지원
서울	10	○	○	○	○	○	○	○						
부산	10	○	○	○	○					○				
대구														
인천	2					○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5	○	○			○		○		○	○	○	○	
강원	2	○	○	○	○									
충북	2	○				○							○	
충남														
전북	5	○	○		○					○				
전남	3	○	○				○							
경북	2							○	○				○	
경남	4	○	○						○				○	
제주														
미분류	4					○							○	○

다문화가정 봉사사업은 이주여성에 대한 정서지원과 가정의 아동돌봄 및 육아지원, 언어발달 및 한글교육, 한국정서교육 등 다문화 이주여성 등의 한국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정서지원과 언어발달 및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등의 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봉사사업은 주로 서울, 부산, 경기 그리고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유형이 많았다.

전북의 경우 5개의 다문화가정 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중 타시도와 비교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하는 다문화 인식개선활동과 새터민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전북만의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지역별로 특징을 보면, 부산은 소득창출지원과 외출동행도 추진하고 있고, 인천은 지역 다문화정보제공을 특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남은 한국문화교육 등 타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문화교육지원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중에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지원사업은 공익활동형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8-3〉 다문화가정 봉사

시도	개수	정서 지원	아동 돌봄	육아 지원	언어 발달 한글 교육	한국 문화 교육	한국 음식 교육	시설 배치 교육 보조	지역 다문화 정보 제공	문화 교류 지원	소득 창출 지원	외출 동행	인식 개선 활동	새터민 가정 지원
서울	5	○	○		○	○								
부산	5	○	○	○	○	○	○				○	○		
대구														
인천	2	○		○					○					
광주														
대전	1	○				○								
울산														
세종														
경기	5	○	○		○	○		○						
강원														
충북	3		○		○	○								
충남	2	○												
전북	5	○			○	○							○	○
전남	4	○	○	○		○	○	○						
경북														
경남	1				○	○	○		○	○				
제주														
미분류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봉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인천, 울산, 경기, 충북 등 7개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었으며 전북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부모가정 봉사사업의 내용은 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대상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등하교동행, 교통안전지도, 가정방문을 통한 보육돌봄과 생활상태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 특징적인 사업의 내용으로는 충북의 경우 아동의 권리인식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울산은 일상생활보조서비스, 경기도는 방문서비스를 통한 생활상태점검, 인천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충남도에서는 아동권리 인식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 아동권리인식 사업은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기회의 제공 그리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충북의 제천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방문보육과 함께 안부확인 그리고 생활상태의 점검 등의 공익형 사업을 수행중에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북은 한부모가정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다.

〈표 8-4〉 한부모가정 봉사

시도	개수	아동돌봄	정서지원	등하교 지원	교통안전 지도	방문보육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일상생활 보조	아동권리 인식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2	○		○	○	○				
광주										
대전										
울산	2	○	○	○					○	
세종										
경기	3	○		○		○	○	○		
강원										
충북	1		○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경남	1	○	○							
제주										
미분류										

청소년선도 봉사 사업의 경우는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는 우범지역과 학교 주변, 주거단지 순찰, 유해환경 정비 및 관리 등이다.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주거단지 등의 순찰활동과 유해환경정비 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전북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 차별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등교길 동행과 농번기철에 비행청소년으로 인한 빈집털이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등교길 동행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시 각종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금연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전북과 경남은 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대체로 공익활동형으로 청소년 선도봉사는 우범지역순찰, 학교주변순찰, 유해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 금연홍보 그리고 교통안전지도, 학대예방 홍보 등의 사업을 지역사업으로 특화하여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청소년선도 봉사

시도	개수	우범지역 순찰	학교주변 순찰	주거단지 순찰	교통안전 지도	안전귀가 지원	유해환경 정비관리	금연홍보	학대예방 홍보	등교길 동행	농번기철 빈집보호
서울	4						○	○			
부산	4	○	○				○				
대구	6	○	○	○		○	○				
인천	7	○	○		○		○				
광주	2	○									
대전	2										
울산	2	○	○	○							
세종											
경기	10	○	○		○	○	○	○			
강원	5	○				○	○				
충북	5	○	○		○						
충남	6	○	○								
전북	6	○	○		○		○		○	○	○
전남	3	○	○				○				
경북	3	○	○	○		○					
경남	6	○		○			○		○		
제주	3	○	○								
미분류	11	○	○	○		○	○				

또다른 공익활동사업의 한 유형인 생활시설이용자 지원사업은 17개 시도 중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부산이 3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사업의 일반현황을 보면, 대체로 도시락배달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지원, 시설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0개의 생활시설이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내용은 이용자 대상 급식도우미지원, 시설의 환경개선, 말벗도우미등 정서지원, 시설프로그램의 보조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생활시설이용자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자살성향노인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부산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미혼모 시설의 영아를 돌보는 사업 등을 공익활동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는 위생방역사업을 특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노인들이 방역기동대를 구성하여 독거노인 등의 가구와 공원 및 공공시설의 방역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8-6〉 생활시설이용자 지원

시도	개수	도시락 배달	급식 지원	일상 생활 사회 활동 지원	건강 관리	시설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정서 지원	시설 프로 그램 보조	자살 성향 노인 발굴	고독사 예방 관리	위생 방역	미혼모 시설 영아 돌봄	아동 시설 보육 지원
서울	11		○	○			○	○						○
부산	30	○	○	○		○	○	○	○		○		○	
대구														
인천	7	○	○		○			○						○
광주														
대전	4		○	○				○	○			○		
울산	2					○		○						
세종	1				○									
경기	14		○	○	○	○		○	○	○				
강원	5	○	○	○										
충북	4						○	○						
충남	1													
전북	10		○			○		○	○					
전남	8			○					○					
경북	1													
경남	5		○			○		○	○					
제주	1						○							
미분류	17	○				○	○	○	○			○		

학교급식지원봉사 사업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전북은 3개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다수 지자체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봉사는 배식도우미, 급식소의 환경정리, 식사예절지도 등의 내용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이외에 경기도에서는 영양식단점검을 수행하고 있고, 전북과 경남은 위생점검지원, 충남과 경북은 조리보조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영양식단 점검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배식활동 뿐만 아니라 편식제도 활동, 배식지원, 아동 영양식단 점검활동, 그리고 급식실 및 급수대 환경정비, 전반납기지 않기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CCTV 상시관제사업은 학교주변의 CCTV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보고 및 조치를 요청하는 사업이며 이와 더불어 서울은 외부출입자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충남과 경북, 경남은 학교주변순찰, 경북에서는 환경미화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지원봉사사업은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52개 사업)와 서울(47개 사업)이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표 8-7〉 학교급식지원봉사 및 CCTV 상시관제

시도	학교급식지원봉사							CCTV 상시관제				
	개수	배식 도우미	급식소환 경 정리	식사 예절 지도	영양 식단 점검	위생 점검	조리 보조	개수	CCTV 모니 터링	외부 출입자 관리	학교 주변 순찰	환경 미화
서울	67	○	○	○				1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2	○	○									
대전	3	○	○	○								
울산												
세종	1	○	○	○								
경기	35	○	○	○	○			3	○			
강원	9	○	○	○								
충북	13	○	○	○								
충남	12	○	○	○			○	2	○		○	
전북	3	○	○	○		○						
전남	13	○	○	○				5	○			
경북	5	○	○	○			○	1	○		○	○
경남	15	○	○	○		○		1	○		○	
제주	1	○										
미분류	8	○	○	○								

스쿨존 교통지원봉사사업은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와 불법주정차 관리, 교통안전캠페인, 학교주변순찰 등의 내용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학교 외부 출입자 관리를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와 불법주정차 관리 사업을 공익형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북은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지도, 학교주변순찰 및 스쿨존 환경정화, 불법주정차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관리 및 유지가 되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 발굴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사업은 사고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울과 부산은 학교 외부출입자 관리를 통해 교통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안전 관리내용까지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외부출입자 관리는 노인을 대상으로 아동지킴이를 구성하여 등하교 교통지도 및 초등학교 내 교통 및 안전지도, 학교 외부 출입자 서명 및 외부출입자관리, 학교주변 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8-8〉 스쿨존교통지원봉사

시도	개수	교통안전 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스쿨존 환경정화	학교외부 출입자관리	불법주정차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서울	47	○	○	○	○	○	○	
부산	1	○						
대구	8	○		○				
인천	3	○		○				
광주	4	○	○					
대전	7	○	○	○			○	
울산	1	○						
세종	1	○		○	○			
경기	52	○	○	○	○	○		
강원	8	○	○	○				
충북	13	○	○	○	○		○	
충남	15	○		○	○		○	
전북	12	○		○	○		○	○
전남	12	○	○					
경북	11	○	○	○	○		○	
경남	23	○	○	○	○			
제주	1	○	○				○	
미분류	10	○						

보육시설 봉사사업은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보육과 프로그램진행등의 보조역할지원과 식사 및 간식 도우미지원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전북의 경우는 2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안전보호관리와 시설의 환경 및 위생관리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육시설 봉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시설물 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봉사 또한 보육시설 봉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하지만 지역아동센터봉사에서는 생활예절교육, 학습관련지도, 귀가안전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의 환경개선과 급식지원, 학습지도, 귀가지원 등의 내용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봉사의 추진사업 중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으로는 경기도와 충북에서 시행하는 생활예절교육과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및 영양확인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안전영양확인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로 간식조리, 급식배식, 뒷정리 활동 등을 통해 청결한 공간유지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표 8-9〉 보육시설 봉사

시도	보육시설 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개수	업무 보조	식사 간식 지도	안전 보호 관리	환경 위생 관리	시설물 관리	교육 활동 지원	개수	시설 환경 개선	급식 지원	생활 예절 교육	학습 지도	귀가 지원	안전 영양 확인
서울	37	○	○	○	○		○	16	○	○			○	○
부산	37	○	○	○	○		○	10	○	○		○	○	
대구	5	○	○	○	○		○	1		○		○		
인천	9	○	○	○	○			4	○	○		○		○
광주	1	○	○				○							
대전	12	○	○	○	○		○	2		○				○
울산	6	○	○				○							
세종	2	○	○		○			1	○	○				
경기	73	○	○	○	○	○	○	35	○	○	○	○	○	
강원	13	○	○	○	○	○	○	8	○	○		○	○	
충북	25	○	○		○			5	○	○	○	○	○	
충남	19	○	○	○	○	○	○	9	○	○		○		
전북	24	○	○	○	○		○	23	○	○		○	○	
전남	14	○	○	○	○	○	○	11	○	○		○	○	
경북	13	○	○	○	○		○	10	○	○		○	○	
경남	18	○	○		○		○	8	○	○		○	○	
제주	2	○	○		○		○	1						
미분류	22	○	○		○		○	16	○	○		○	○	

도서관봉사 사업은 도서관의 도서관리 및 정리, 도서대여, 도서관 환경정리 등의 내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은 20개의 도서관 봉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추진사업 이외에 도서관의 프로그램지원, 독서지도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북의 경우는 도서관 주변을 순찰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보호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도서관 봉사활동으로는 노인이 사서도우미로서 초등학교와 작은도서관에 파견되어 사서업무의 보조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시설 봉사는 문화재의 안내 및 홍보, 주변의 환경정비,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 14개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전라북도에서는 문화재시설봉사사업으로 16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문화재 안내 및 홍보,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및 보호, 문화재 관람 편의제공 등의 내용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8-10〉 도서관 봉사

시도	도서관 봉사							문화재시설 봉사					
	개수	도서 관리 정리	도서 대여	시설 환경 관리	프로 그램 지원	독서 지도	주변 순찰	개수	안내 홍보	환경 정비	문화재 관리 보호	순찰 지원	관람 편의 제공
서울	28	○	○	○	○			3		○	○		○
부산	20	○	○	○	○			15		○	○		○
대구	2	○				○		1					
인천	5	○	○	○		○		1		○	○		○
광주	1	○		○									
대전	2	○		○									
울산	2			○	○	○		3			○		○
세종	1	○	○										
경기	41	○	○	○	○	○		22	○	○	○	○	○
강원	14	○	○	○				15	○	○	○	○	
충북	10	○	○	○		○		8	○	○	○		○
충남	13	○	○	○				10	○	○	○		○
전북	20	○	○	○	○	○		16	○	○	○		○
전남	13	○	○	○				25		○	○		○
경북	12	○	○	○			○	24		○	○		
경남	7	○	○	○				15	○	○	○		○
제주	3	○	○	○		○		2		○	○		○
미분류	24	○	○	○		○		11	○	○	○		○

공원 및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사업은 주변의 환경정화, 근린공원 및 정류장 관리, 놀이터 관리 등 주로 시설과 공원의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140여개 이상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부산(103개 사업)과 경남(113개 사업)이 1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공원 및 놀이터의 공공시설봉사활동은 주변의 환경정화, 공원관리, 정류장 관리 그리고 주변환경의 청결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원의 자전거도로나 공공자전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은 공원 및 놀이터 공공시설봉사사업으로 공원과 놀이터 이외에도 주차장의 관리, 시설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주와 경기, 강원은 자전거도로관리, 서울과 부산, 경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찰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관련된 내용은 추진하고 있지 않아 향후 공공시설봉사사업의 내용으로 검토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표 8-11〉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시도	개수	환경 정화	근린 공원 관리	정류장 관리	청결 활동	놀이터 관리	순찰 활동	민원 안내	주차장 관리	자전거 도로 관리	공공 자전거 관리	화장실 관리
서울	145	○	○	○	○	○	○	○	○		○	○
부산	103	○	○	○	○		○					○
대구	47	○	○	○	○	○						○
인천	43	○	○	○	○				○		○	
광주	23	○	○	○	○	○			○	○		
대전	22	○	○	○	○							
울산	6	○	○			○			○			
세종	5	○	○	○								
경기	140	○	○	○	○	○	○			○		○
강원	99	○	○	○	○	○	○	○		○		○
충북	37	○	○			○						
충남	47	○	○	○	○	○					○	
전북	92	○	○	○	○	○		○	○			
전남	60	○	○	○	○			○				
경북	97	○	○	○	○	○	○					○
경남	113	○	○	○	○	○	○					○
제주	9	○	○	○	○			○				
미분류	100	○	○	○	○	○		○				○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사업은 보건소, 복지기관,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도우미 지원, 시설의 환경정비, 업무보조지원, 시설이용자의 돌봄 및 정서지원 등의 내용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193개 사업)과 경기(184개 사업)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의 공익형 활동으로 공공의료와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는 대부분 시설급식지원과 시설환경정비, 시설업무지원, 이용자 돌봄지원, 그리고 주차시설 관리 등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75개의 사업단이 공공의료와 복지시설 봉사와 관련된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관련 공익활동사업으로 서울과 경기, 경남 등과 함께 교통정리지원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전북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는 말벗도우미등 정서지원서비스(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 경로당에 방문하여 영화를 상영해주는 여가생활지원서비스(경남), 치매예방, 금연, 복지관 등의 홍보 및 캠페인(부산, 인천, 제주), 시설주변의 순찰(대전)과 주차장관리(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8-12〉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시도	개수	시설 급식 지원	시설 환경 정비	시설 업무 지원	이용자 돌봄 지원	정서 지원	여가 생활 지원	홍보 캠페인	주변 순찰	주차 시설 관리	교통 정리 지원
서울	193	○	○	○	○	○				○	○
부산	100	○	○	○	○	○		○		○	
대구	16		○	○	○					○	
인천	32	○	○	○	○	○		○			
광주	15	○	○	○	○	○					
대전	7		○	○	○				○		
울산	10	○	○	○							
세종	8	○	○	○							
경기	184	○	○	○	○					○	○
강원	68	○	○			○				○	
충북	68	○	○	○						○	
충남	80	○	○	○							
전북	75	○	○	○	○						○
전남	100	○	○	○	○	○					
경북	54	○	○	○		○					
경남	94	○	○	○	○	○	○			○	○
제주	5		○		○			○			
미분류	110	○	○	○	○	○				○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사업은 주거 및 생태환경정화, 거리환경개선, 청결유지,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내용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135개 사업)와 강원(133개 사업)이었고, 이어서 서울(97개 사업)과 전북(83개 사업)이 8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는 주로 주거생태 환경정화, 거리환경 개선, 청결유지, 불법광고물 제거, 방역소독 등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을 주로 주거생태환경 정화나 거리환경개선, 청결유지, 불법광고물 제거 등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 경기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금연 및 금주 캠페인을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유형으로는 인천과 강원도의 치안유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전남에서 추진하는 산림보호, 서울, 세종,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방역 및 소독관련 사업 등이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소독과 방역이 중요시됨에 따라 전북에서도 방역소독과 관련한 내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8-13〉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시도	개수	주거생태 환경정화	거리환경 개선	청결유지	불법광고물 제거	치안유지	산림보호	방역소독	금연금주 캠페인	환경개선 캠페인
서울	97	○	○	○	○		○	○	○	
부산	65	○	○	○	○					○
대구	13	○	○	○	○					
인천	36	○	○	○	○	○	○			
광주	39	○	○	○						
대전	13	○	○	○						
울산	6	○		○	○					
세종	6	○	○					○		
경기	135	○	○	○	○		○	○	○	
강원	133	○	○	○		○	○	○		
충북	43	○	○	○	○			○		○
충남	51	○	○	○	○					
전북	83	○	○	○	○				○	
전남	58	○	○	○			○			
경북	56	○	○	○	○					
경남	21	○	○	○	○			○		○
제주	10	○	○							
미분류	60	○	○	○	○			○		

주정차질서 계도 봉사 사업은 교통혼잡지역, 대중교통 터미널,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등에서 주정차관리와 교통안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17개 사업)과 인천(11개 사업), 전북, 경남, 강원 등(7개 사업)의 순으로 관련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주정차 질서계도 봉사는 교통혼잡지역과 공영주차장,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교통이 혼잡한 대형마트와 병원, 그리고 대중교통터미널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7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지역과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서 주정차질서계도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지만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장소로는 대중교통 터미널, 공원, 대형마트 및 병원, 공동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질서와 관련한 캠페인 사업도 전북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14〉 주정차질서계도봉사

시도	개수	교통 혼잡 지역	대중 교통 터미널	공영 주차장	공원	공공 시설	복지 시설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병원	공동 생활 시설	주정차 질서 캠페인
서울	5	○		○		○			○		
부산	3	○	○								
대구											
인천	11	○		○		○				○	
광주	4										
대전	2	○		○		○			○		
울산											
세종											
경기	39	○		○		○			○	○	○
강원	3	○	○		○	○					
충북	7	○									
충남	4	○				○					
전북	7	○		○		○	○	○			
전남	17	○	○	○				○			
경북	2	○		○							
경남	7	○		○		○	○		○		
제주											
미분류	8	○								○	○

어린이 안심 등하교 자원봉사 사업은 초등학생의 등하교길의 동행지원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대전,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안심 등하교 자원봉사사업은 대체로 등하교 지원과 함께 환경정비, 안전모니터링 그리고 순찰지원 등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내 돌봄지원이나 외부인 출입통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도 수행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3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등하교 동행지원활동과 더불어 학교의 외부인 출입통제 지원까지 하고 있었고 이는 전북지역에서만 제공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타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는 순찰지원활동, 환경정비활동, 안전관련 모니터링,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등이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캠페인 활동도 전북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으로 구성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어린 동생이 있어 부모의 등하교 지도가 어려운 장애아동의 통학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등하교과정에서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8-15〉 어린이 안심 등하교 자원봉사

시도	개수	등하교지원	순찰지원	환경정비	안전 모니터링	가정내 돌봄지원	외부인 출입통제	교통안전 캠페인
서울	10	○	○		○	○		
부산	5	○		○	○			
대구	2	○						
인천	3	○						
광주								
대전								
울산	1	○						
세종								
경기	7	○	○	○	○			○
강원	2	○	○	○				
충북	1	○						
충남	1	○			○			
전북	3	○					○	
전남	4	○		○	○			
경북	1			○				
경남	3	○						
제주								
미분류	10	○	○	○	○			

기타 분류가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과 생활점검지원,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업무지원과 이용안내, 시설 및 거리의 환경정비, 교통안전지도, 금연관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업유형을 보면, 곤충사육사업, 치매건강관리, 관광업무지원, 도시락 급식지원, 우범지역 안전관리 지역축제지원, 동물보호 홍보, 기자단 활동, 폐현수막 활용 등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38개의 기타 공공시설봉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방문돌봄 및 생활점검, 시설업무 지원 및 이용안내지원, 환경정비, 교통안전정리, 금연관리캠페인과 더불어 우범지역의 안전관리와 도시락 배달 및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시도에서 추진중이나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 중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등의 불법카메라점검과 인천, 광주 등의 농장 및 텃밭관리사업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표 8-16〉 기타 미분류 공공시설봉사

시도	개수	방문돌봄 생활 점검	시설 업무 이용 안내 지원	시설 학교 거리 환경 정비	교통 안전 정리 지원	금연 관리 캠페인	버스 정류 장관 리	우범 지역 안전 관리	관광 업무 지원	불법 카메 라점 검	도시 락 급식 지원	곤충 사육 사업	농장 텃밭 관리	자전 거보 관소 관리	치매 건강 관리	지역 축제 지원	길고 양이 급식 소관 리	동물 보호 홍보	소방 대원 활동	기자 단활 동	폐현 수막 재활 용
서울	50		○	○	○			○		○		○		○	○	○	○				
부산	57	○	○	○	○	○		○	○	○								○	○	○	
대구	8			○	○																
인천	18	○	○	○					○	○			○	○						○	
광주	14	○	○		○								○								
대전	9			○		○		○		○				○							○
울산	12		○	○				○													
세종	3					○	○														
경기	69	○	○	○	○	○	○	○		○	○	○	○		○					○	
강원	21	○	○	○		○	○	○	○	○	○					○					
충북	11		○	○	○	○	○								○						
충남	14	○	○	○			○														
전북	38	○	○	○	○	○		○			○										
전남	52	○	○	○	○		○			○					○						
경북	33	○	○	○	○	○	○		○		○		○								
경남	19	○	○	○	○			○	○												
제주	4	○			○		○														
미분류	41		○	○	○	○		○		○	○		○		○						

다음으로 공익활동 중에서 경륜전수활동의 유형을 보면, 건강체조 및 취미생활지도사업은 체육과 각종 취미와 관련한 노인의 경륜을 전수하는 활동으로 생활체육지도, 한글, 한자 등의 문해교육,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등과 관련한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역에서는 건강관리, 가정방문 취미여가지원, 음식관련 교육, 인권인식교육, 이미용서비스, 화훼재배 등의 사업을 건강체조 및 취미생활분야의 경륜전수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23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와 문해교육, 정보화교육, 건강관리 등과 더불어 생활정보제공과 이미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전북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레크레이션활동, 가정방문을 통한 여가지원, 음식과 관련한 교육활동, 인권인식교육, 화훼재배활동 등이다. 시장형이 아닌 공익형으로 수행되는 화훼재배활동은 주로 관광지 주변 및 도로의 화훼식재를 통한 쾌적한 지역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업유형이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복지관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8-17〉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시도	개수	생활 체육 지도	문해 교육	정보화 교육	레크 레이션	건강 관리	가정방문 취미여가 지원	음식 관련 교육	인권 인식 교육	생활 정보 제공	이미용서 비스	화훼 재배
서울	27	○	○	○			○	○	○			
부산	16	○		○	○							
대구	4		○		○							
인천	12			○			○			○	○	
광주	2	○			○							
대전	2				○							
울산												
세종	2	○										
경기	31	○	○	○	○	○				○		
강원	5	○	○	○		○						
충북	2		○		○							
충남	21	○	○	○					○			
전북	23	○	○	○		○				○	○	
전남	34	○	○									○
경북	5	○	○		○			○				
경남	13	○	○	○	○							
제주	1	○										
미분류	13	○		○	○							

문화공연활동은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형극과 연극, 연주회, 전통예술공연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공연활동 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인형극이나 연극, 연주 그리고 전통예술과 가요합창 등의 유형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경륜전수활동으로 문화공연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과 경북 그리고 경기도와 전북 등이 경륜전수활동으로 문화공연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9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각종 문화공연활동과 아동폭력예방과 노인인권을 위한 인형극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공연활동 중 인형극활동만 확인이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연극과 댄스공연, 악기연주회 등과 같은 활동도 포함이 되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서울에서 추진하는 영화상영과 전남에서 추진하는 전시활동의 경우는 타 시도 어느지역에서도 하고있지 않은 특별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표 8-18〉 문화공연 활동

시도	개수	인형극	연극	댄스	체조 무용	연주	전통 예술	마술	풍선 아트	가요 합창	영화 상영	전시
서울	4	○									○	
부산	4	○	○		○	○	○					
대구	3					○						
인천	6		○									
광주	2			○		○						
대전	3					○				○		
울산	1					○	○		○	○		
세종	1							○				
경기	9	○		○	○	○	○	○	○			
강원	2	○	○									
충북												
충남	8						○					
전북	9	○										
전남	13		○		○	○	○			○		○
경북	5	○					○					
경남	3	○						○				
제주												
미분류	6					○	○			○		

다음으로 경륜 전수활동으로 체험활동 지원사업 자연과 생태환경, 텃밭 등의 체험활동지원과 관광지 안내활동, 문화재의 관리와 해설사 활동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시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관광지 안내와 문화재 관리해설, 생태체험과 문화체험 그리고 텃밭체험 등의 유형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경륜전수활동으로 체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과 충남, 전남 등에서 경륜전수활동으로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전수활동으로 체험활동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 충남과 전남에서 많은 사업단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5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지 안내활동과 문화재 관리 및 해설사 활동, 문화체험활동 등의 내용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는 환경정비활동, 짚공예와 목공예활동, 자연생태·텃밭 체험활동 등으로 향후 전북의 체험활동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면 추가할 사업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텃밭체험은 보육 등의 복지시설에 노인을 파견하여 아동과 함께 원예활동 및 다양한 텃밭 식물을 가꾸는 경륜전수활동으로 다수 복지시설에서 높은 복지수요를 보이는 사업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19〉 체험활동 지원

시도	개수	관광지 안내	문화재 관리해설	환경정비	짚공예 목공예	문화체험	자연체험	생태체험	텃밭체험
서울	7	○						○	○
부산	4						○	○	
대구									
인천	2	○							
광주	2	○			○				
대전	2	○							○
울산	1							○	
세종									
경기	6					○	○	○	
강원	3	○	○	○	○				
충북	2								○
충남	7	○	○			○	○	○	○
전북	5	○	○			○			
전남	7				○	○	○	○	
경북	2	○		○					
경남	3	○	○					○	
제주	1		○			○			
미분류	5							○	○

경륜전수활동은 유아 및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륜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주로 예절교육과 구연동화 및 인형극을 통한 정서교육과 아동유괴 및 폭력예방교육, 한글, 한문 등의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경기도가 6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산과 전남 25개 사업단, 서울 24개 사업단, 전북 23개 사업단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타지역의 경륜전수활동의 유형을 보면, 예절교육과 구연동화 인형극, 언어관련교육, 텃밭농작 자연체험, 음악 및 악기연주, 전통놀이 등의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예절교육과 구연동화 및 인형극활동, 언어관련 교육활동 등과 함께 정보화교육, 텃밭 및 농작활동을 통한 자연체험, 체육교육 등의 사업을 경륜전수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는 노인학대교육, 공예관련교육, 음악과 악기관련교육, 이미용 기술교육, 정리수납관련교육 등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정리수납, 강원도의 돌탑전수 등의 활동이 매우 특징적인 사업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20〉 경륜전수활동

시도	개수	예절 교육	구연 동화 인형극	언어 관련 교육	노인 학대 교육	정보화 교육	공예 교육	텃밭 농작 자연 체험	체육 교육	음악 악기	취미여 가지원	전통 놀이	이미용 전수	정리 수납	돌탑 전수
서울	24	○	○	○		○		○		○		○			
부산	25	○	○	○		○	○		○	○		○			
대구	5	○	○	○											
인천	35	○	○	○		○		○		○		○			
광주	4	○	○	○											
대전	10		○	○		○	○		○			○			
울산	5	○		○				○	○	○					
세종	1							○							
경기	67	○	○	○			○	○	○	○		○		○	
강원	6	○			○		○		○		○		○		○
충북	10	○	○	○				○							
충남	16	○	○	○			○			○		○			
전북	23	○	○	○		○		○	○		○				
전남	25	○	○	○			○		○			○			
경북	8	○	○	○	○					○					
경남	19	○	○	○					○	○					
제주	2	○													
미분류	27	○	○	○		○				○		○			

2.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유형분석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상담 및 컨설턴트 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분석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 장애인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다함께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은 세종과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이었으며 한부모 복지시설은 부산과 인천 등 2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부산과 충남 2개 지역으로 한부모 복지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지원사업의 경우 시니어컨설턴트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서울은 이외에도 취약계층안전모니터링과 경로당의 증식도우미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모니터링, 세대동행사업, 그리고 경로당 식당도우미 사업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

〈표 8-21〉 사회서비스형

시도	개수	지역 아동 센터	다함 께 돌봄 시설	보육 시설	청소 년수 관련 시설	청소 년 상담 복지 센터	장애 인 관련 시설	장애 인 특수 학교	한부 모 복지 시설	다문 화 가족 시설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기타	시니 어 컨설 턴트	시니 어 소 비자 자립 이	취약 계층 안전 모니 터링	세대 동행 사업	경로 당 중 식도 우미
서울	88	○		○	○	○	○			○		○	○	○	○		○	○	○
부산	55	○		○	○	○	○		○		○	○	○	○	○				
대구	10	○		○											○	○			
인천	16	○		○			○		○						○	○			
광주	7	○		○											○				
대전	11	○		○			○					○				○	○		
울산	6	○					○					○			○	○			
세종	10	○	○	○								○			○				
경기	153	○		○			○	○				○	○	○	○	○			
강원	26	○		○	○		○			○			○	○	○	○			
충북	25	○		○			○					○			○	○			
충남	49	○	○	○	○		○	○			○	○	○	○	○	○			
전북	83	○	○	○	○	○	○	○		○		○		○	○	○			
전남	81	○		○	○	○	○	○		○		○	○	○	○	○			
경북	49	○	○	○	○	○	○	○		○		○	○	○	○	○			
경남	58	○	○	○			○					○			○	○			
제주	6	○		○											○	○			
미분 류	51	○		○			○		○	○		○		○	○				

3. 시장형 사업의 유형분석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동작업장 운영은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 및 조달하는 사업으로 식품가공, 제품조립 및 포장, 반제품 생산 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45개 사업), 경남(30개 사업), 충남(28개 사업), 전북(27개 사업)등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북은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식품가공, 제품포장 등을 포함하여 총 27개 기관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작업장의 수행방식은 식품가공, 제품포장, 반제품생산, 제품조립 등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 농산물 생산가공, 양봉작업, 인쇄물 DM우편발송, 그물통발 제작, 불교용품제작, 자동차 트렁크 네트워크 제작 등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불교용품제작과 더불어 경북의 양봉작업, 인천의 폐박스를 활용한 인테리어소품제작, 전남의 그물 및 통발제작, 충남의 자동차 트렁크네트 제작 등이 다소 특징적인 사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22〉 공동작업장 운영

시도	개수	식품 가공	제품 포장	반제품 생산	제품 조립	농산물 생산 가공	인쇄물 DM 우편 발송	양봉 작업	재활용 상품 판매	재활용 폐기물 분류	폐박스 인테리어 소품 제작	그물 통발 제작	불교 용품 제작	자동차 트렁크 네트 제작
서울	49	○	○	○	○					○				
부산	24	○	○	○	○		○							
대구	16		○		○					○				
인천	17		○	○	○						○			
광주	2	○			○									
대전	11	○	○	○	○									
울산	2			○										
세종	1					○								
경기	45	○	○	○	○	○								
강원	21	○	○	○	○									
충북	15			○	○				○					
충남	28	○	○	○	○									○
전북	27	○	○	○		○							○	
전남	17		○	○					○	○		○		
경북	15	○	○	○	○			○						
경남	30	○	○	○	○		○							
제주	1					○								
미분류	18	○	○	○	○									

다음으로 시장형 일자리의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업의 내용은 밥과 반찬류, 도시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참기름 및 들기름 판매, 두부(순두부)판매, 떡, 송편, 만두, 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형 일자리의 식품제조와 판매유형에서는 주로 반찬류 도시락, 참기름, 순두부, 떡 송편, 빵이나 과자, 누룽지 등의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라북도도 타 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두부와 참기름, 누룽지 등의 식품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식품 및 전통과자와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는 도시권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다수 사업단이 시장형 사업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한편, 시장형 사업단의 식품제도의 경우 지역별로 특색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경북의 경우는 과일청과 과일잼, 부산은 어묵, 충북과 전남은 김치, 강원도는 수제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다.

〈표 8-23〉 식품제조 및 판매

시도	개수	밥류 반찬 류 도시 락	참기 름 들기 름	두부 순두 부	떡 송편	만두	빵 과자	누룽 지 쌀과 자	커피 원두	고춧 가루	건강 즙	전통 식품 과자	장류	과일 청 잼	블루 베리	어묵	김치	수제 초콜 릿
서울	24	○	○	○			○	○			○	○						
부산	10	○	○	○	○		○									○		
대구	6	○	○		○													
인천	2						○											
광주	6	○	○	○			○											
대전	8	○	○	○	○				○						○			
울산	2	○																
세종	1	○																
경기	34	○	○	○	○	○	○	○			○							
강원	26	○	○	○	○	○	○	○	○	○								○
충북	16	○	○							○	○		○				○	
충남	29	○	○	○			○	○	○			○						
전북	25	○	○	○	○	○	○	○				○	○					
전남	21	○	○	○	○		○			○		○	○				○	
경북	13	○	○	○			○		○				○	○				
경남	9	○	○					○			○	○						
제주																		
미분류	3						○	○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단으로서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천연비누와 재봉관련 소품, 친환경 용품 등의 제품을 주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관련 사업으로 13개의 사업단에서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9개 사업단이 관련 사업을 시장형일자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과 서울도 각각 8개 시장형 사업단이 공산품의 제작과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로 공산품 제작과 판매는 주로 천연비누와 재봉수품, 친환경 용품 목공예 용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천연비누제작과 재봉관련소품제작, 친환경용품과 꽃과 관련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특색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베개와 수세미, 의류용품 등을 제작하였고, 경기도는 단체의류제작, 광주지는 지팡이제작, 전남과 경북은 천연염색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24〉 공산품제작 및 판매

시도	개수	천연비누	재봉소품	친환경용품	베개	수세미	의류용품	전통공예	단체의류	쇼핑백끈	지팡이	꽃	목공예품	문구류	천연염색	폐현수막제품
서울	8	○	○	○				○				○	○			
부산	3												○	○		
대구	2											○				
인천	2	○		○												
광주	3										○					
대전	1												○			
울산	4	○	○					○								
세종																
경기	13	○	○			○		○	○							
강원	5	○	○		○	○	○									
충북	3		○													○
충남	8	○		○												
전북	4	○	○	○								○				
전남	9	○	○					○							○	
경북	7	○	○							○						
경남	4	○														
제주	1		○												○	
미분류	2	○		○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으로서 매장운영사업은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장운영의 업종으로는 한식과 분식, 매점 및 구내식당, 카페 및 베이커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식품판매매장, 생활용품, 의류판매 매장 등을 운영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매장운영 사업은 그 유형으로 카페나 찻집 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식과 분식, 매점 구내식당, 그리고 식품판매 등의 순이었다.

전라북도에서는 31개의 사업단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매장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내용으로는 한식매장과 카페 및 베이커리매장, 반찬, 도시락 등 식품판매매장, 식자재 및 농산품판매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매장운영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는 의료용품판매매장을 운영하는 유일한 지역이었고, 인천 또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산은 게스트하우스와 전통주류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타 시도와 비교하여 특색 있는 유형의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매장운영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주로 게스트하우스 정리 및 이용객 편의를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전통한옥 체험하우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표 8-25〉 매장운영

시도	개수	한식	분식	매점 구내 식당	카페 찻집 베이 커리	식품 판매	생활 용품 판매	의류 판매	식자재 농산품 판매	자전거 임대	수공예 화훼 판매	의료 용품 판매	게스트 하우스	전통 주류 판매	미용실
서울	36		○	○	○										
부산	33	○	○	○	○	○							○	○	
대구	25	○	○	○	○		○								
인천	23	○			○										○
광주	12	○			○							○	○		
대전	9	○	○		○	○	○		○						
울산	7	○				○		○							
세종	2			○			○								
경기	88	○	○	○	○	○	○		○						
강원	64	○	○	○	○	○	○	○	○	○	○				
충북	27	○		○	○	○	○								
충남	31	○	○		○	○									
전북	31	○			○	○		○	○						
전남	28				○	○									
경북	21	○		○	○				○						
경남	60		○		○				○						
제주	8	○	○		○				○		○				
미분류	2				○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으로서 지역영농사업은 유흥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광주와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강원도는 32개의 사업단으로 가장 많은 사업단에서 지역영농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뒤이어 경북(19개 사업), 충남(18개 사업단), 전북(12개 사업단) 등의 지역 순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지역영농사업은 도시권보다는 군부를 포함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다수 수행하고 있다.

지역영농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채소와 나물류 그리고 작물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봉이나 오미자, 블루베리 등 다소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은 작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12개의 시장형 사업단에서 지역영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채소 및 나물류, 콩과 같은 작물류, 오미자 및 블루베리 등의 영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채소 및 나물류와 작물류를 경작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강원도의 경우는 왕대추나무, 양봉, 매실, 대마, 버섯, 대추 등 다양한 종류의 영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빌레나무, 경기도는 삼 등 특색있는 품종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8-26〉 지역영농

시도	개수	왕대추 나무	빌레 나무	양봉	채소 나물류	작물류	매실	오미자 블루 베리	대마	버섯	대추	삼	화훼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4			○		○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					○						○	
강원	32	○		○	○	○	○	○	○	○	○		
충북	1				○								
충남	18				○	○							○
전북	12				○	○		○					
전남	6				○	○							
경북	19			○	○	○				○			○
경남	3							○					○
제주	2		○		○								
미분류													

시장형 사업단의 기타 제조판매사업으로는 재활용품수거생산, 봉제사업, 중고매장, 식자재 및 농산품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타 제조 판매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재활용품 수거 및 생산, 식자재 농산품 판매, 방역청소, 카페나 매점, 청과다과 등의 판매 등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기타 제조판매사업의 경우 서울과 경북, 강원 등의 지역이 20개 이상의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구나 세종, 그리고 전북이나 전남, 제주 등의 지역은 기타 제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다. 전라구도는 기타 제조판매 사업으로 3개의 사업단에서 운영중에 있고, 그 유형을 보면, 식자재 및 농산품 판매,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방역 및 청소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분석해보면, 서울은 중고품 판매매장운영과 가족제품제작, 경기도는 반려동물용품, 부산은 체험농장운영과 관광상품판매, 대전은 팔레방 운영, 경북은 미용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8-27〉 기타 제조판매사업

시도	개수	재활용품수거생산	봉제사업	중고매장	반려동물용품	식자재농산품판매	유통판매	가족제품제작	카페매점	화훼재배판매	방역청소	체험농장운영	식당운영	미용실운영	운동시설운영	주차장관리	청과다과판매	팔레방운영	관광상품판매	친환경제품판매
서울	26	○	○	○			○	○	○											
부산	17	○							○			○	○			○	○		○	
대구	3		○				○				○									
인천																				
광주	2								○											
대전	10										○						○	○		
울산	3										○									
세종	1																			○
경기	18	○	○		○	○			○											
강원	22	○				○			○				○		○					○
충북	8		○			○	○										○			
충남	14	○				○			○											
전북	3					○	○				○									
전남	6					○				○										
경북	25	○					○		○		○		○	○		○				○
경남	8						○		○								○			
제주	3						○										○			○
미분류	6	○					○				○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의 서비스 제공형은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급식배식 도우미 지원, 식사 및 생활예절교육, 등하교지원과 환경정비, 수업보조활동 등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별 서비스형 사업 중에서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의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은 서울과 부산이 30개 이상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30개에 이른다.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급식 및 배식지원, 식사 생활예절, 환경정비, 등하교지원, 수업보조 그리고 보육보조와 체험학습지원,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급식배식지원과 등하교지원, 환경정비, 수업 및 보육보조, 인형극 및 동화구연활동, 학교폭력예방과 교통안전지도활동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서울과 충남의 바둑교육, 충북의 국궁교육 등이 있으며 광주와 경기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수업보조활동을 하고 있다.

〈표 8-28〉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시도	개수	급식 배식 지원	식사 생활 예절	등하교 지원	환경 정비	수업 보조	보육 보조	인형극 동화 구연	학교 폭력 예방	장애 아동 수업 보조	교통안 전지도	체험 학습 지원	축구 교육	바둑 교육	국궁 교육
서울	33	○	○	○	○	○	○	○				○		○	
부산	30	○	○	○	○				○		○		○		
대구	6	○		○							○	○			
인천	20	○	○		○	○			○			○			
광주	11	○			○			○		○		○			
대전	4	○	○		○										
울산	1	○	○		○	○	○								
세종															
경기	70	○	○	○	○	○	○	○	○	○	○				
강원	7	○	○	○	○	○									
충북	5				○			○				○			○
충남	8	○	○	○	○	○					○			○	
전북	28	○		○	○	○	○	○	○		○				
전남	18	○	○	○	○		○		○		○				
경북	14	○	○		○	○						○			
경남	7	○	○	○	○	○			○		○				
제주	3	○			○	○	○	○							
미분류	35	○	○	○	○	○					○				

시장형 사업으로 아파트단지내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아파트택배사업은 울산과 충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과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인 지하철택배 사업은 지하철 노선이 다양하게 정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세차 및 세탁사업은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 세차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세차서비스의 경우 세차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세차와 방문을 통해 세차를 해주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출장방문세차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북 지역이었고, 부산과 대구, 경기는 출장세차와 일반 세차서비스를 같이 시행하고 있었다. 세차 및 세탁사업의 유형으로는 대부분 출장세차와 세차, 세탁수거배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에서 세차 및 세탁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서울과 강원 2개 지역이었고, 대전은 빨래방 운영, 경남은 공중화장실청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표 8-29〉 아파트·지하철택배 및 세차·세탁사업

시도	아파트/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개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개수	세차	출장 세차	세탁 수거 배달	빨래방	운동화 세탁	구두 관리	건물 청소	공중 화장실 청소
서울	33	○	○	4		○	○			○		
부산	15	○		4	○	○						○
대구	6	○		3	○	○						
인천	10	○										
광주	7	○										
대전	4	○		2	○			○				
울산												
세종	1	○										
경기	11	○	○	9	○	○						
강원	3	○		2		○	○					
충북												
충남	8	○										
전북	4	○										
전남	5	○										
경북	5	○		1		○						
경남	4	○		3					○			○
제주												
미분류	5	○	○	2	○						○	

시장형 사업으로서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마트의 운영지원사업, 마트 및 카페 등의 주변 도로 보행자의 통행안전지원, 매장주변의 교통관리, 식당 등의 조리업무지원, 실버바리스타의 카페 파견활동 등이 있다. 소상공인 협력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보행자 동행안전과 매장주변 교통관리의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는 카페 등의 매장주변 교통관리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은 식당의 조리업무지원, 광주와 경북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안전지원활동, 인천은 카페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실버바리스타파견, 경기도는 마트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소상공인 협력사업은 광주와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사업단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과 대구, 경기도가 2개의 사업단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소상공인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특색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전북만의 특색 있는 소상공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8-30〉 소상공인 협력사업

시도	개수	마트운영지원	보행자 동행안전	매장주변 교통관리	식당조리 업무지원	카페인력지원 실버바리스타
서울	2			○		
부산	1				○	
대구	2			○		
인천	1					○
광주	3		○			
대전						
울산	1					
세종						
경기	2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		○	○		
경남						
제주						
미분류	1		○			

시장형 사업으로서 기타 서비스제공형 사업을 분석해 보면, 17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방역과 환경정비사업, 교통안전지도활동, 재활용품수거활동, 급식도우미활동, 체험학습교육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전북에서는 2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방역 및 환경정비, 재활용품수거, 급식도우미활동, 체험학습교육지원, 방문돌봄 및 가사지원활동, 유통판매활동, 문화공연활동, 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시장형 사업으로 기타서비스 제공형으로는 전술한 반려견 산책, 실버호텔리어, 마을안전관리, 노인인권교육, 시니어방송사업단이 매우 특징적인 사업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시에서는 노인방송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소식을 유튜브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은 마을의 안전관리와 노인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전은 실버호텔리어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은 반려견 산책지원 활동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8-31〉 기타 서비스제공형

시도	시설 개수	시설 방역 환경 정비	교통 안전 지도	재활 용품 수거	급식 도우 미	체험 학습 교육 지원	장난 감 세척 대여	방문 돌봄 가사 지원	건강 관리 지원	이미 용지 원	유통 판매 배송	관광 안내	정보 화교 육	문화 공연 활동	주차 장자 전거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은퇴 전문 가활 용	반려 견산 책	실버 호텔 리어	마을 안전 관리	노인 인권 교육	방송 사업 단
서울	38		○	○		○	○	○		○	○										○	○
부산	9	○	○	○		○						○						○				
대구	11	○		○			○						○	○								
인천	16	○						○			○				○	○						
광주	17	○		○												○						
대전	16	○	○		○									○			○		○			
울산	3	○			○																	
세종	4		○											○								○
경기	41	○	○	○	○				○							○						
강원	14	○	○						○	○					○							
충북	10	○				○		○	○													
충남	13	○			○	○	○				○	○				○						
전북	24	○		○	○	○		○			○			○		○						
전남	17	○	○			○								○	○							
경북	23	○		○		○		○				○			○							
경남	10	○		○	○																	
제주	13					○						○		○	○		○					
미분 류	18	○	○	○	○			○								○						

9

장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
1.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
 2. 시장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3. 노인일자리 전문 교육훈련 기관 설치
 4. 노인일자리 정책의 세부추진과제

제9장.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1.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

1) 노인특성별 일자리정책의 체계화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의 특성에 맞춰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보다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 의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란 참여자의 근로에 대한 욕구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수요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수요치를 추정하고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맞춰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수요 집단을 추정해 보면, 크게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A그룹)과 일상생활수행에 장애가 있는 집단(B그룹)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있지만 경제활동참여의사가 없는 집단(C그룹),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는 있지만 근로의지가 다소 소극적인 집단(D그룹),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E그룹)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9-1〉 노인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구조



〈표 9-1〉 노인특성별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구분	추정인구	정책방향	세부사업
A그룹	212,657명	· 현재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노인고용사업장 대상 인사 및 노무관리상담(고충상담 등) · 이직의 의사가 있는 노인 대상 재취업상담 및 교육	· 직무능력향상 교육 · 인사노무관리 상담 · 재취업 상담 및 직업교육
B그룹	34,727명	· 국가의 재정지원일자리 연계 ※ 일자리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 공공형 일자리 지원
C그룹	28,470명	· 노인적합 일자리 개발 · 사회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중심의 일자리 편입 지원	·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 연계
D그룹	10,510명	· 고용역량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전문성 부족) ·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지원(적당한 일자리 미비)	· 고용역량강화교육 · 맞춤형 특화일자리 개발
E그룹	94,059명	· 지역별 특화 노인일자리 발굴 · 노인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역량 확대 · 시장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대	· 일자리사업단 다양화 · 전직경험 활용 일자리연계 · 노인맞춤형 직업훈련지원

먼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약 21.2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계층은 다수가 국가의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참여가 유지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노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 및 노무관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고용사업장과 고용 노인이 현재의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적성과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이직의 의사가 있는 노인은 별도로 선별하여 재취업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일상생활수행에 장애가 있어 사실상 경제활동참여에 제약이 있는 노인은 약 3.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민간분야의 일자리보다는 국가의 재정일자리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B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일자리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약한 공공형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조정 등의 제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없는 C집단의 경우 약 2.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집단은 경제활동 참여보다는 사회봉사나 사회활동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C집단의 경우 일정한 소득의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지원의 방식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집단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로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상황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의 특성별로 적합한 노인일자기 발굴을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포함한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경제활동참여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근로의지에 대한 적극성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정책도 차별화해야 한다. 먼저 경제활동참여 의향은 있지만 다소 소극적인 근로의지가 있는 D그룹은 전라북도 전체 노인 중 약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있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근로의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 및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하여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계층은 적합한 노인일자리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정규직의 전일제 노동보다는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 중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은 일자리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소극적 근로의지의 사유에는 본인의 고용능력에 대한 불신과 근로환경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고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직무특성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반영하여 민간분야의 일자리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로 흡수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경제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 근로의지가 있는 E계층은 약 9.4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들 계층은 국가의 재정지원일자리보다는 민간분야의 노인 적합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유지되는 시장형 일자리로의 흡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계층은 현재의 고용환경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 및 직무교육을 통해서 민간분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민관 연계형의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2. 시장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는 올한해만 약 5.5만개가 창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9년 4.9만명에서 2020년 5.5만개로 약 1.6만개나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5.5만개의 노인일자리 중에서 여전히 공익형 일자리가 4.7만개로 85.8%를 차지하고 있고 공익형 이외의 시장형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4천개에 불과하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공익형 일자리는 약 1.4만개(44.1%p) 증가한 반면, 공익형 외 일자리는 1.0천개(15.9%p) 증가하는데 그쳐 노인일자리의 상당수가 공익형 일자리로 제한되어 있다. 전라북도 노인일자리가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선발방식에서부터 시장형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및 노인직업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형일자리는 노동강도가 약하고 월급여수준이 27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공공형 보다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시장형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노인생산품의 품질향상,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량의 확대, 여기에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유통구조의 혁신 등의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9-2〉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다시 말해, 공공형 일자리에서 시장형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형 일자리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매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시장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의 적성이나 전직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채 수행되고 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이 원하는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 그리고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구성된 시장형 일자리의 다양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

적합업종의 선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이론적으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노인의 구인을 희망하는 지역의 사업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일자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구인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 구인의사가 있는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수요자를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노인을 구인희망 사업체에 연계하는 1년 단위의 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적합직종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장형 일자리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전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단순한 생산물의 포장만이 아닌 생산과정에서부터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등의 중간지원 조직내에서 시장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을 설치하여 14개 시군의 노인 생산품의 전과정에서 적절한 전문적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통과 판리의 모든 구조를 사업단에서 전담하고 있어 품질개선과 유통체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또한, 시장형 사업단은 운영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매와 유통까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광역차원의 경영컨설팅 사업단을 구성하여 일선 사업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함께 노인생산품이 품질부분에서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 중 매출구조가 견고한 사업단을 중심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모든 시장형 사업단이 매출과 노인인건비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량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시장형 사업단 중 유사상품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통해서 매출량을 확대하고 광역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로 생산하여 품질관리와 함께 매출향상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의 시장형 사업단의 상품의 유형에 따른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고 충분한 시장성을 담보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동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품의 매출의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생산품의 매출확대는 일반시장에서의 유통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에서 대형유통사업장과의 협약을 통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형유통사업체로의 판로개척은 전제조건으로 생산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상품의 광역화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림 9-3〉 노인일자리 정책의 추진주체별 과제



여기에 일반 시장에서의 유통체계의 기반 마련과 함께 노인생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지역에서의 생산품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광역유통매장의 설치 및 운영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산품을 광역단위의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매출의 성장은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유관 사회복지분야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구분을 통해서 노인생산품도 함께 광역단위 유통매장을 설치하여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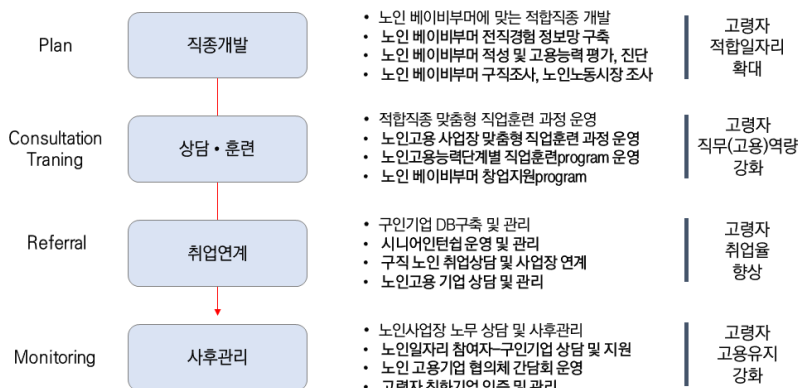
3. 노인일자리 전문 교육훈련 기관 설치

노인일자리 수혜체계는 대부분 수행기관의 일자리 제공, 광역기관의 노인일자리 연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일자사업도 지역별로 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통합된 지원체계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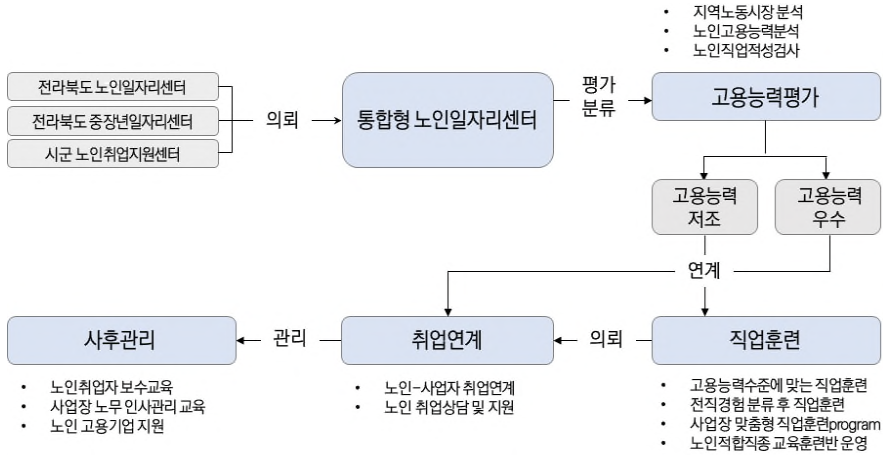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일자사업을 직종개발에서부터 상담과 훈련 그리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직종개발은 대부분 수행기관의 역할에 맞춰져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일자리가 개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세대와 인구학적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베이비붐세대의 등장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맞는 적합한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 대상 전직 경험에 대한 조사와 적성 및 고용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인의 구인 및 구직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후 노인 대상 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능력향상을 견인하는 하역 고용능력의 단계에 따른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직종개발이나 상담 및 훈련의 과정 없이 바로 취업연계로 이루어지는 구조라서 노인의 특성 그리고 고용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9-4〉 노인일자리 통합형 지원체계(안)



〈그림 9-5〉 노인일자리 전문교육기관 운영체계(안)



노인의 전직경험을 비롯한 인구학적 특성과 고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과 훈련이 진행되고 나면 노인의 고용역량에 기초하여 노인의 취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인기업에 대한 DB관리에서부터 노인고용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직무상담 등을 통해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취업 이후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노인이 취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및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고령자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체를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노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직종개발에서부터 상담과 훈련 그리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직업훈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노인일자리센터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의 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적정규모의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국가차원에서 권역별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되, 시범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전문화된 직종개발과 사후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노인일자리 정책의 세부추진과제

1) 교육훈련 전담기관 지정 및 업종별 통합교육 제공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교육은 수행기관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제공기관의 업무과다로 인한 적절한 교육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도 높은 상황이 아니다.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일자리에 대한 의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선결조건이 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처럼 수행기관이 파편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유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별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9-6〉 노인일자리 교육운영체계(안)



수행기관은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소양교육은 광역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직무교육은 유사직종을 통합하여 시군단위에서 전담기관이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안전교육도 업종에 따라 위험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안전교육도 업종별로 유사한 특징을 종합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시군단위에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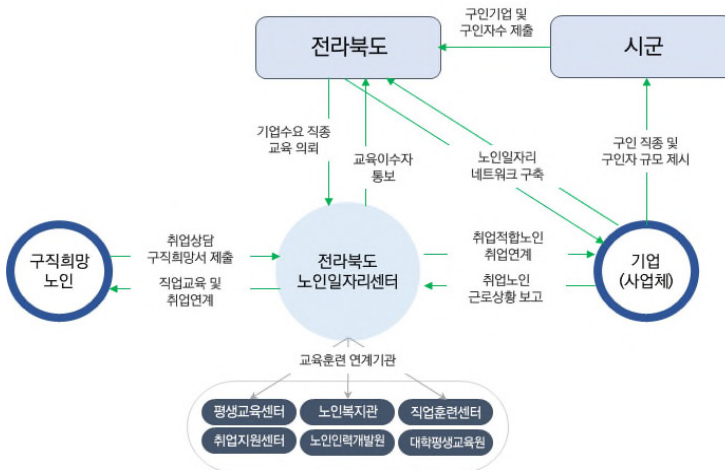
교육기관은 기본소양교육은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안전교육은 유사업종을 중심으로 시군 일자리 수행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교육은 노인일자리의 업무특성에 맞춰 일자리 수행기관 중 한곳을 거점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유사업종별 직무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 교육과 직무교육은 전주시와 같이 노인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해당 센터가 담당하되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지역은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용교육과 안전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의 교재는 전라북도의 시장상황과 노인일자리의 업무특성에 맞춰 개발하되 그 업무는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의 교육업무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대부분 안정적인 보수의 일자리보다는 4시간 이하의 평균 50만원 내외의 시간제 일자리를 가장 선호한다. 노인의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의 경우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라북도에서는 9시간의 정규일자리보다는 4시간 전후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노인일자리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림 9-7〉 지역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개발 및 연계방안



따라서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노인의 특성을 맞춰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맞춤형 교육을 노인일자리센터에 포함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기업(사업체)나 노인 대상 구인의사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직종 및 구인자 규모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원화하고 모든 시군의 노인관련 시간제 일자리의 희망 업종과 구인자 규모를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관련 기업수요를 반영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자체 조직과 인력만으로 기업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교육전문기관인 평생교육센터, 노인복지관, 직업훈련센터, 취업지원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대학평생진흥원 등의 기관과 함께 기업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통합 및 조정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여 매출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형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광역단위로 매출량을 확대하고 단일 품목으로 조정하여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2〉 전라북도 시장형 일자리사업단 생산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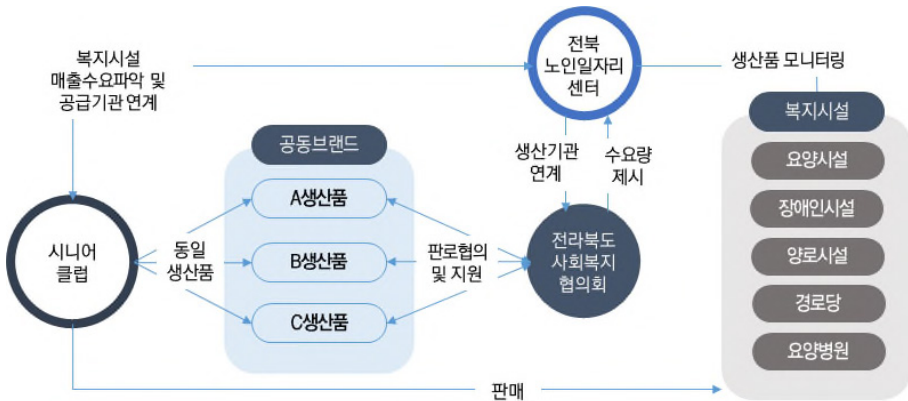
구분	누룽지	청국장	들기름 참기름	도시락	김부각	떡	수제김	수제 과자	두부	건강즙	수제청	진빵	차 (커피)	두부	핸드 크림	앞차마	수제 공예
전주	●	●			●	●	●	●	●			●	●	●			●
효자																	
군산	●		●				●	●				●					
익산	●		●		●		●	●		●	●						
정읍					●			●								●	
남원					●					●					●		
원주					●		●						●	●			
진안							●	●		●	●						
장수					●			●			●						
고창	●			●						●	●		●				●
임실								●			●	●					
부안	●			●									●				

현재 전라북도는 각 시군의 시니어클럽별로 누룽지나 청국장, 김부각, 참기름 등을 생산하고 있고 이들 생산품은 판로개척이 용이하지 않아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생산품(누룽지, 김부각, 수제김, 건강즙, 수제과자 등)을 우선 전라북도의 공동의 브랜드로 생산하고 판매량을 광역단위로 확대하여

일반 유통센터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지역생산품을 사회복지 유관기관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대비 기준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특히, 이용자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은 전라북도에만 약 1.2천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만 1.3만명에 이른다. 사회복지시설이 복지기관의 주요 생산품의 중요한 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형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생산품을 일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방안과 함께 중요 자원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복지의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판로확보와 이를 통한 노인 일자리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림 9-8〉 노인생산품 복지생태계 구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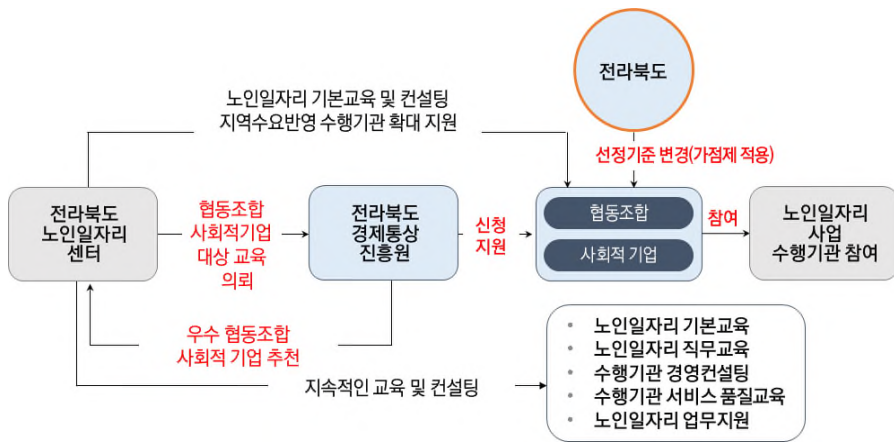
이 같은 노인생산품의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형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공동브랜드로 생산하는 생산체계의 개편과 함께 소비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량을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인 소비품목과 함께 분기별, 연도별 소비량을 상호 교차하여 시장형 사업단과 연계할 수 있는 생산품목을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노인생산품에 대한 매출시장을 일반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활용할 경우 매출량 확대와 함께 인일자리의 확대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의 노인 급여도 확대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다변화(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배정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담기관의 증가와 다변화는 일자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노인일자리가 수행되다보니 노인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행기관이 적은 농촌지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농촌노인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즉, 전라북도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다수가 농촌사회로 구성된 만큼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노인적합직종, 이를테면, 식품가공이나 유통 등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다수 수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림 9-9〉 사회적 경제조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반 확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을 거점으로 조직되어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다양성과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유능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일정한 가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은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수행 능력, 지역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담당부서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 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선정기준(안)을 변경하여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경험이 있는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한 사회적 경제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제도적 기준의 변경과 함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노인일자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신청 이전에 일정한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행기관 신청 이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부터 사업실무에 이르는 전문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5) 수행주체별 역할분담체계 조정

노인일자리의 수행체계간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행주체별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노인일자리 추진체계에서는 신규사업개발에서부터 인력모집 및 관리, 홍보와 수요처확보 그리고 교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행기관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의 수행체계의 역할을 시군 및 광역도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관리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여부를 불문하고 수행기관만의 노력으로 노인일자리의 수요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의 수요처 발굴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적절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9-10〉 노인일자리 추진체계의 역할조정(안)

		사업개발	인력모집	인력관리	홍보	수요처확보	교육
현행	수행기관			급여지급 근로관리 등			
	시군						
	전라북도						
조정	수행기관	사업단위 사업개발					
	시군	지역단위 사업개발			추가	추가	직종별 교육
	전라북도	광역단위 사업개발			추가	추가	교육+ 컨설팅

또한 시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형 일자리의 노인생산물,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의 생산품 등을 홍보하여 지역시장 내에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수요처의 확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단위에서도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수요처 확보 특히,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 차원의 사업들과의 협의체 구성하여 정기적인 노인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 수요가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노인의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구인과 구직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차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함께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직종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광역차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양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어난 일자리만큼의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을 제외하면 다수 노인일자리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지자체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전담기관의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참여노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 기관에서는 겸직의 형태로 참여노인과 관련 사업단이 관리되고 있고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만 약 1.6만개나 증가한 노인일자리 양적팽창

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노인일자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적정 인력의 배치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참여노인과 사업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장

요약 및 결론

제10장. 요약 및 결론

고령노인의 증가는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기준 고령인구는 20.3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20년 37.1만명, 2030년 53.4만명 그리고 2040년에는 68.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로 인해 국가의 생산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부양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세대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의 아동인구를 추월하고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 현재의 시점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의 새로운 인구대책 마련 필요하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노인 개인에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위협이 된다. 노인은 경제적 빈곤에 더하여 사회적 고독감과 단절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노인 2명 중 한명은 빈곤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이 같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노인빈곤율인 12.4%보다도 3대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월 20만원정도의 생활비만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고립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는 올한해만 약 5.5만개가 창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9년 4.9만명에서 2020년 5.5만개로 약 1.6만개나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폭의 증가한 노인일자리 개수는 향후 우리지역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5.5만개의 노인일자리 중에서 여전히 공익형 일자리가 4.7만개로 85.8%를 차지하고 있고 공익형 이외 시장형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4천개에 불과하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공익형 일자리는 약 1.4만개(44.1%p) 증가한 반면, 공익형

외 일자리는 1.0천개(15.9%p) 증가하는데 그쳐 노인일자리의 상당수가 공익형 일자리로 제한되어 있다.

전라북도 노인일자리가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선발방식에서부터 시장형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및 노인직업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제공기관의 역량은 일자리 참여노인의 고용역량과 직무역량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제공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이다. 따라서 이번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한 제공기관 대상 전수조사는 지역의 노인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참여노인의 직무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공기관은 수요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참여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형의 경우 참여자관리와 교육이 제공기관이 겪는 어려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익형 사업의 경우 개별 제공기관에게 교육을 일임하기보다는 공익형의 직종에 맞춰 광역단위에서 일관성 있는 전문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도 제공기관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참여노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소양이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특성화하여 운영되어 한다.

또한, 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고용인력이 배출되어야 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전문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도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공익형 위주의 노인일자리로 편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합 직종의 발굴과 함께 참여노인과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의 연계방식도 참여노인의 욕구와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등 노인일자리의 유형별 특성과 노인의 욕구 및 경력 등을 매칭하여 참여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노인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도탈락없

이 노인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어난 일자리만큼의 관리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을 제외하면 다수 노인일자리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지자체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전담기관의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참여노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 기관에서는 점직의 형태로 참여노인과 관련 사업단이 관리되고 있다.

올해만 약 1.6만개나 증가한 노인일자리의 양적팽창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노인일자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적정 인력의 배치를 통해서 참여노인과 사업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관리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여부를 불문하고 수행기관만의 노력으로 노인일자리의 수요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의 수요처 발굴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적절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노인일자리의 중간조직인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참여노인 및 수행기관 대상 교육과 컨설팅, 노인적합직종의 개발과 판로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처발굴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적합일자리의 발굴 및 취업연계, 그리고 노인의 고용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제공기관을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 제공기관은 크게 시니어클럽 등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수가 증가한 만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공기관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다수가 농촌사회로 구성된 만큼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노인적합직종, 이를테면, 식품가공이나 유통 등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다수 수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박상우(2011) 경상북도 지역특성별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심인선 외(2018) 경상남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 이중섭 외(2018)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장경호 외(2011) 충남 농촌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연구원
- 최승호(2019)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개선방안. 충북연구원
- 황경란(201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 관계부처합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 3차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8) 노인일자리종합계획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노인일자리 관련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각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전라북도노인일자리센터(2020) 2020 전북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통계청(각연도) e지방지표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20) 고용동향 9월
- 남인순(2020) 국정감사 자료

정책연구 2020-24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분석 및 일자리 정책 방향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15-5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